



제7권 제2호

장애인복지연구

DISABILITY & SOCIAL WELFARE

목 차

1. 장애수용이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 –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1
김두영
2.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연구 37
박미량
3. 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이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장애인의 요리기술에 미치는 효과 71
김영준
4.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109
백삼현

장애인복지 연구 제7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7, No. 2, 1-35.

장애수용이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

달성군장애인복지관 김 두 영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장애수용 정도가 자기관리를 매개로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효율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463명을 대상으로 총 4개의 영역으로 총 59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장애수용 9문항, 자기관리 16문항, 자립생활 25문항, 일반적 특성 9문항)를 이용하여 장애수용과 자기관리, 자립생활과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기관리는 자립생활(공동체, 환경)에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관리 능력을 높이고, 장애수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수용과 자립생활(공동체, 환경)에 대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장애태도가 자립생활을 위한 단계적 서비스 개발과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 부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이론적·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연구의 큰 의의가 있다.

주제어 : 장애수용, 자기관리, 자립생활

I. 서론

최근에 장애인복지는 장애당사자의 기본적 권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사회참여를 위한 자립생활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장애인복지의 실질적인 구현 방안으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고, 차별적인 환경의 변화를 도모하며, 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인을 서로 돕고, 서비스의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다. 특히, 탈시설화, 정상화, 자립생활 이념 등의 확산으로 인하여 장애인 복지서비스는 당사자 중심의 자기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역량강화 등이 강조되고 있다(이채식 외, 2010). 즉, 자립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자기결정을 바탕으로 한 선택의 권리와 각종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는 것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적극적인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자립생활이 강조하고 있는 주요 개념으로서는 자기결정권, 역량강화, 자조, 공동체관계, 생산성, 환경 변화 등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을 자립생활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다(윤재영, 2010). 따라서 자립생활과 관련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러한 자립생활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한 구성요인 간의 관계와 영향을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애수용 문제는 객관적인 장애 정도의 심각성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장애인 자신이 자기 장애에 대해 자기 용인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즉, 주관적 가치관이 신체장애 때문에 손상되었거나 신체를 자기 인생의 종속적 부속물로 보지 않고 지상적 본질로 볼 경우 장애에 대한 자기 용인이 어려운 상태이다. 따라서 장애인이 자기 장애를 수용할 수 있는 주관적 메카니즘(mechanism)을 갖지 못할 경우에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문제가 발생한다. 장애수용 정도가 미숙할 경우에는 부정이 무의식 속에 남아있게 된다.

장애인의 적응과정에서 의미하는 장애수용이란 자신의 장애를 '가치절하 하지 않는(nondevaluation)' 것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한다. 즉, 장애를 불편하고 제한을 주는 것이라고 인정하고 가능한 한 그 상태보다 나아지려고 노력은 하지만 단지 인생의 어떤 측면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이지 자신이 인간으로서 가치 절하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며, 자기 장애를 감추기 위한 긴장과 수치심으로 괴로움을 겪지 않는 것을 말한다(Wright, 1969; 석말숙, 2003; 손연숙, 2008 재인용).

자립생활을 통해 완전한 사회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자립생활은 의존을 거부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독립선언과 같은 것이다. 장애인의 노력은 자기 자신, 자신들의 공동체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사회 환경에 대한 지배의 폭을 넓혀가는 과정으로 설명된다. 이에 장애인의 장애상태에 대한 장애수용에 따라 자립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사회는 장애인들이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장애인의 욕구를 사회에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장애를 극복하고 사회생활능력을 회복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필수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수용 정도가 자기관리를 매개로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장애인의 자립생활 뿐만 아니라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적인 부분의 성과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수용

실제로 동일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애수용 정도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정하지 못해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자신의 삶에는 장애 이외에 다른 중요한 것들이 많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이종하, 2008).

김은정(2002)의 연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장애수용정도는 자립생활에 긍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재삼(2010)의 연구에서는 장애수용과 지각된 사회인식으로 구성된 장애태도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활시설 퇴소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심석순 외(2011)의 연구에서는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자립생활 정도가 높다고 하였다. 즉, 많은 선행연구에서 장애수용이 자립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대, 2013; 남연희 외, 2013).

그러므로 장애수용은 장애인의 자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장애수용은 사회적 편견이나 좌절감 등의 경험이 강하게 작용되어 형성되기 때문에 장애로 인해 사회적 편견이나 좌절감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판단된다. 자신의 장애를 문제로 지각하고 있을수록 사회응용, 사회통합은 물론 자립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

장애수용은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며, 신체능력과 개인적 기대 사이에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신에게 주어진 신체적 제한을 인정하는 방향에서 자아와 신체 이미지를 형성해가는 것이다(Geis, 1972). 장애수용이란 자기의 신체장애를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현실적으로 인지하며 마음속으로 용인하는 것이라고 정의(곽승철, 1995)하면서, 장애를 가진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장애수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한편, 장애수용을 자신의 신체적 조건에 관여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신체적 장애를 부끄러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신체적 장애가 장벽이기보다는 새로운 도전이나 각오를 하게 되는 계기로 삼으려는 태도로 정의(김성희, 2000)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애수용을 자신의 장애를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2. 자기관리

자기관리는 여러 연구문헌에서 자기통제, 자기조절, 자기규제 등의 다양한 용어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특히, 자기통제라는 용어가 행동적 연구문헌에서 자기관리라는 용어보다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허정훈, 2001). 오늘날에는 인간의 능동적인 면과 주체성이 강조된 자기관리라는 용어를 더 선호되는 경향이 있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권순관, 2016).

Kuhl(1985)은 자기조절능력을 폭넓은 적응 능력이며, 효율적인 자기조절은 건강 증진 행동과 긍정적 심리학적 의미의 안녕(well-being), 높은 과제수행을 촉진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Yates(1986)는 인간은 환경에 단지 순응하거나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절하여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존재이며, 자기관리는 전 생애를 통해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또한, Zimmerman(2002)은 자기관리를 철학적 관점에 따라 해석함으로써 자기관리에 대한 책임은 자기에게 있으며, 자기관리는 외부적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기를 통제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자기관리의 목표는 문제행동을 바꾸거나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방법과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자기관리는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행동조절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를 주도하는 과정이며, 자기관리의 긍정적 태도로써 자기결정, 자기역량강화 등이 있다.

먼저,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와 욕구가 있다는 것에 바탕을 둔 것이며(양옥경 외, 2005), 사회복지실천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은 사회복지실천이 지향하는 본질적 가치이다(Tower, 1994). 즉, 사회복지실천에서 서비스 이용인의 자기결정권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본질적인 가치라고 설명할 수 있다(이채식, 2012).

자기역량강화에서는 외부나 타인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는 것보다는 개인 자신의 능력과 역량을 강화하는 측면이 강조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Vogot & Merrel(1990)은 타동사 즉, 타인이나 외부의 힘이 개인을 역량강화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자동사적인 의미가 강조된다고 하였다. 즉, 자기역량강화는 미시적인 차원의 개념으로 개인의 주관적 인식과 심리 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내용 면에서는 자발성과 능동성을 강조하고, 궁극적으로 개인의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강점 요소의 강화를 추구한다. 이것은 목적일 뿐 아니라 이

를 향한 과정이고 수단이기도 하다. 또한, 엄명용 외(2005)는 사회복지실천에서 “역량강화는 클라이언트에게 권한을 주거나 공유하는 기술을 말하며, 클라이언트가 적절한 권력을 획득하거나 자신들의 삶에서 자율성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3. 자립생활

자립생활은 장애인이 활동적이고 능력 있는 소비자이며 자신의 강점을 깨닫고 이를 증진시키며 삶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사회통합에 이르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되어 왔다. 따라서 장애인의 일상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통해 장애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것을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한 통제력을 기반으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러한 자립생활은 장애인들의 지역사회에서 스스로 자립하고 자신의 생활을 결정할 수 있는 있는 능력을 최대화시켜주는 것이다(김익균, 2007; 이채식 외, 2009 재인용; 이채식, 2013 재인용). 장애인의 자립이란 기존의 신체적 자립이나 경제적 자립의 의미에 국한된 의미로서가 아니라 삶 그 자체에 대한 결정과 관리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행하여진다는 의미이다(정종화, 2001). 변용찬(2004)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적, 경제적으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상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립생활이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관리하고 그 생활 전반에 걸쳐 방향을 설정하여 스스로 삶을 주도해 나간다. 또한, 사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자립생활이 강조하고 있는 하위개념에는 자립생활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 윤재영(2010)의 연구에서 자기지배(자기결정, 역량강화), 공동체 지배(관계, 생산성) 및 환경 변화(사회 환경)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자립생활의 구성 개념인 공동체 지배 및 환경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각각의 구성 개념을 정리하고자 한다.

1) 자립생활에서의 공동체

자립생활의 구성 개념인 관계성과 생산성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를 살펴보자.

독립의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으로 상호의존 패러다임(interdependent paradigm)을 주장한 Condeluci(1998)는 상호의존 패러다임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역사회 내에서의 관계 개발(relationship development)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자립생활 패러다임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나 독립생활은 자립생활운동에 참여한 비장애인과 관계나 기존 재활서비스 기관의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게 함으로 지역공동체와의 연결 고리를 끊어놓고 있기에, 관계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relationships)에 대한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는 관계의 영역을 대인관계로 국한하고 있는데, 여기서 대인관계는 낯선 사람과의 관계, 공식적인 관계(직장의 상·하급자 등), 비공식적인 관계(친구, 이웃 등), 가족관계, 친밀한 관계(부부, 애인 등) 등으로 분류되어 있다(WHO, 2004). 하지만, 독립의 개념을 보완하는 상호의존 패러다임에서 설정하고 있는 관계는 대인관계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니다. 자립생활이 지향해야 하는 상호의존적 관계는 보다 포괄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동료 장애인 집단의 관계, 비장애인 집단과의 관계, 기존 재활서비스 조직과의 관계, 지역사회의 다양한 체계와의 관계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는 것이다(Condelucuci, 1998).

자립생활의 장기성공을 측정한 DeJong(1982)의 연구에서 생산성(productivity) 개념에 대한 조작화 시도를 찾을 수 있다. 그는 장애를 가진 개인이 지역사회(혹은 공동체)와 가족에 헌신할 수 있는 차원을 다섯 가지로 나누고 이의 참여 정도를 평가하여 생산성을 측정하였다. 개인이 헌신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생산성에 대한 다섯 가지 차원은, 유급 고용(gainful employment), 가사(homemaking), 학교와 교육프로그램(school or educational programs), 공식적인 조직(formal organizations), 레저 활동(leisure time activities) 등이다.

이상을 요약하면, 관계성은 공동체 및 공식적인 관계 그리고 가족 및 이웃과의 관계를 주로 포함하며, 생산성은 유급고용, 교육·훈련 참여, 가사 및 여가활동을 포괄한다.

2) 자립생활에서의 환경

자립생활은 장애를 보는 시각에 있어서 사회모델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장애문제의 원인이 ‘환경’에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사회를 변화시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겠다는 주장은 사회모델에서 비롯된 생각이며, 사회적 표준에 맞지 않은 손상된 개인을 시설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은 개별모델에 입각한 것으로 자립생활은 사회모델과 맥을 같이 한다. 사회모델과 자립생활은, 사회·물리적 환경으로 인해 개인이 더 이상 지역사회에 머무르지 못하며, 자립생활을 지속하지 못하고, 자신의 염원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장애인들이 살기에 알맞은 집이 주어지지 않고, 음식과 옷 그리고 활동보조인에게 지불할 적당한 수입이 없으며, 지역사회의 지원책이 부족하기에 장애를 가진 개인은 자립생활 대신 시설 보호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다(Oliver & Sapey, 2006). 다시 말해, 사회환경의 조건에 의해 장애인이 무력화(disabling)된다는 사회모델의 입장을 자립생활이 취하고 있다(윤재영, 2010).

사회모델의 입장을 취한 자립생활의 개념에 ‘환경’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분명하나, 매우 포괄적인 ‘환경’의 개념을 자립생활 관련 환경으로 구체화시키는 문제는 쉽지 않다.

사회모델의 입장에서 제시한 연구 문헌들(Oliver & Sapey(2006), Rothman(2003), Nosek, Further & Hoeland(1992), DeJong(1981))과 ICF 환경요인 구성 항목과 비교한 결과, 자연환경 및 인위적 환경 변화를 제외하고, 제품과 기술(products and technology), 지원과 관계(support and relationships), 태도(attitudes) 그리고 서비스, 시스템 및 정책(services, systems and policies) 등에 포함된 여러 범주가 자립생활을 위한 환경 구성요소인 것으로 나타났다(윤재영, 2010).

이상을 요약하면, 환경은 개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외적 지지체계를 망라하는 개념으로 생산물과 테크놀로지, 지지와의 관계, 태도 그리고 서비스·제도·정책 등으로 분류된다.

4. 자립생활에서 장애수용, 자기관리, 공동체 및 환경과의 관계

선천적 장애와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삶의 중간에 장애를 입게 된 경우 온전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장애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인들이 자신의 장애를 잘 받아들이는 장애수용이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 및 정신건강과 적극적인 자립생활 또는 사회참여, 삶의 질, 사회통합 등에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자경 외, 2009; 김영삼, 2012; 박현숙 외, 2013; 송진영,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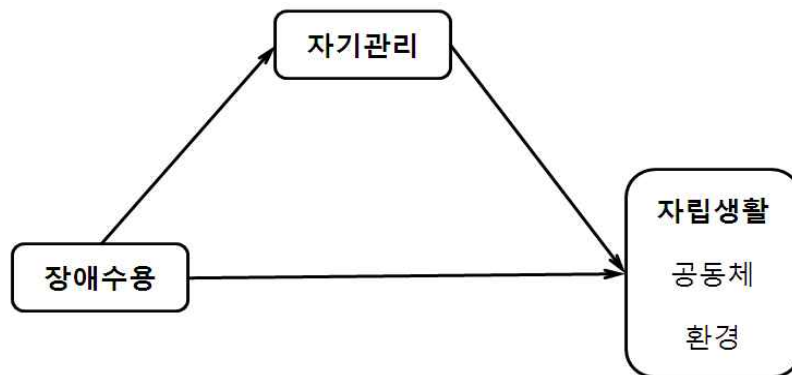
자립생활에서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선행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희택(2006)의 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이용 장애인의 선택권과 통제권을 강조할수록 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김동기(2007)의 연구에서도 서비스 제공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정도가 사회참여 수준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익섭 외(2007)의 연구에서는 자립생활프로그램에서 역량강화 기반이 지역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채식(2012)의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역량강화 정도가 높을수록 사회참여 효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승원(2012)의 연구에서 사회 환경이 가지는 장애에 대한 책임과 영향이 중요하며 환경은 개인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 활동과 참여를 촉진할 수도 있고 저해할 수도 있는 중요한 배경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했다. 신예철(2012)은 지역만들기에 있어서 공동체 관계와 개인주민의 역량강화 간의 관계와 관련된 연구에서 지역만들기 공동체의 참여역량은 개인역량에 많은 영향을 받고, 지역문화 활동 공동체는 관계역량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긍정적인 공동체 관계를 형성하는데 개인의 역량강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수용이 자기관리를 매개로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림 1>과 같이 장애수용과 자기관리, 자립생활 간의 관계를 파악할 것이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의 가설 설정

본 연구의 가설수립을 위해 연구목적에 기초하여 이에 따른 인과관계를 파악하며, 가설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 가설 1. 장애수용은 자기관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 장애수용은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3. 자기관리는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장애수용은 자기관리를 매개로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측정도구 및 자료수집

장애수용은 Kaisser 외(1987)가 Linkowski(1971)와 Flatley(1972)의 장애수용척도를 참고하여 개발한 것을 노승현(2007)과 조재삼(2010)이 재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긍정적인 3문항과 부정적인 6문항의 총 9문항으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의 장애수용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718$ 로 나타났다.

자기관리는 윤재영(201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여 총 16문항으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의 자기관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65$ 로 높게 나타났다.

자립생활은 윤재영(2010)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공동체 총 21문항과 환경 총 4문항으로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의 공동체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931$ 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환경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64$ 로 높게 나타났다.

[표 1] 설문지 구성

변인	구성내용			문항수	문항 번호	척도	조사도구 출처	신뢰도 (Cronbach's α)
장애태도	장애수용			9	1~9	등간척도 (5점)	노승현(2007) 조재삼(2010)	0.718
자기관리	자기신뢰			7	10~25	등간척도 (5점)	윤재영(2010)	0.865
	자기결정			2				
	자기역량강화			7				
자립생활	공동체	관계	가족관계	5	26~50	등간척도 (5점)	윤재영(2010)	0.931
			동료관계	2				
			대인관계	6				
		생산성		8				
		환경	사회환경					4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학력 등			9	51~59	명목척도	연구자 구성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설문자료는 2016년 2월 1일부터 3월 12일까지 6주에 걸쳐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본 연구자가 사전에 실무자에게 설문지에 대한 요지를 설명하고 실무자들이 설문지를 배부 및 회수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총 500부로 회수된 설문지 474부 중 무응답 항목이 많은 경우와 무성의한 설문 11부를 제외하고 총 463부를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 자료의 통계적 분석을 위해 SPSS/Win 18.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자의 장애수용, 자기관리와 자립생활(공동체와 환경)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t -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ANOVA 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집단 간의 차이 규명을 위해 Duncan의 사후검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실시하였다.

셋째, 장애인들의 장애수용과 자기관리가 자립생활(공동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매개회귀분석을 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이 성별에서는 ‘남성’이 55.9%, ‘여성’이 44.1%였고, 연령에서는 ‘60세 이상’이 26.6%로 가장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50세 이상’이 49.7%로 거의 절반 가까이 고령의 장애인이 많았다. 학력수준은 ‘고졸’이 40.4%로 가장 많았고, 결혼유무에서는 ‘무’ 54.6%로 ‘유’ 45.4%보다 더 많았다. 거주형태는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음’이 50.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개인소득에서는 ‘49만원 이하’가 40.8%로 나타났고, 100만원 이하가 68.0%를 차지할 정도로 소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직업유무에서는 ‘유’ 52.3%로 ‘무’ 47.7% 보다 조금 높았다. 장애유형에서는 지체장애가 42.1%로 높았고,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및 지적장애가 84.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특히, 지적장애(17.3%) 및 자폐성장애(1.1%)의 경우는 당사자와 설문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서 진행하였고 부족한 경우는 보호자와 함께 설문을 진행하였다. 장애등급에서는 ‘중증(1, 2, 3급)’ 77.3%로 ‘경증(4, 5, 6급)’ 22.7% 보다 많았다.

〈표 2〉 일반적 특성

(단위 : 명, %)

구분	요인	빈도(%)
성별	남성	259(55.9)
	여성	204(44.1)
연령	29세 이하	64(13.8)
	30세 이상~39세 미만	76(16.4)
	40세 이상~49세 미만	93(20.1)
	50세 이상~59세 미만	107(23.1)
	60세 이상	123(26.6)
학력	중졸이하	165(35.6)
	고졸	187(40.4)
	대졸 이상	111(24.0)

구분	요인	빈도(%)
결혼	유 (기혼, 별거, 이혼, 사별 등)	210(45.4)
	무	253(54.6)
거주형태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음	235(50.8)
	혼자 살고 있음	98(21.2)
	독립하고 싶으나 부모 혹은 친인척과 함께 살고 있음	100(21.6)
	기타	30(6.5)
개인소득	49만원 이하	189(40.8)
	50만원 이상~99만원 미만	126(27.2)
	100만원 이상~149만원 이하	66(14.3)
	150만원 이상~199만원 이하	34(7.3)
	200만원 이상	48(10.4)
직업	유 (전문가, 기술공, 일용근로자, 고용주, 자영업자, 단순노무직 등)	242(52.3)
	무	221(47.7)
장애유형	지체장애	195(42.1)
	뇌병변장애	118(25.5)
	시각장애	32(6.9)
	청각장애	18(3.9)
	언어장애	6(1.3)
	지적장애	80(17.3)
	자폐성장애	5(1.1)
	정신장애	3(0.6)
	심장장애	4(0.9)
	뇌전증	2(0.4)
장애등급	중증(1, 2, 3등급)	358(77.3)
	경증(4, 5, 6등급)	105(22.7)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평균비교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수용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수용의 평균값을 독립표본 T검정(t-test)과 분산분석(ANOVA)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표 3>과 같다. 구체적으로 어느 집단

간에 차이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검정(post-hoc)의 방법으로는 Dunncaan-test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령에서 장애수용($F=2.679$)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수용에서 '50세 이상~59세 이하'($M=3.55$)가 가장 높고 '29세 미만'($M=3.27$)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40세 이상~49세 이하'와 '50세 이상~59세 이하'가 '29세 이하'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거주형태에서 장애수용($F=6.154$)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수용에서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과 살고 있음'과 '혼자 살고 있음'($M=3.51$)이 가장 높고 '독립하고 싶으나 부모, 친인척, 형제 등과 살고 있음'($M=3.25$)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과 살고 있음'과 '혼자 살고 있음'이 '독립하고 싶으나 부모, 친인척, 형제 등과 살고 있음'과 '기타'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인소득에서 장애수용($F=5.369$)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수용에서 '200만원 이상'($M=3.69$)이 가장 높고 '49만원 이하'($M=3.31$)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200만원 이상'이 '49만원 이하', '50만원 이상~99만원 이하' 및 '150만원 이상~199만원 이하'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애유형에서 장애수용($F=2.093$)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수용에서 '뇌전증'($M=3.83$)이 가장 높고 '정신장애'($M=2.67$)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심장장애' 및 '뇌전증'이 '정신장애'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수용

변인	구분	장애수용	
		M±SD	
성별	남자	3.37±0.55	
	여자	3.52±0.60	
	t value(p)	-2.851(0.005)	
연령	29세 미만	a	3.27±0.59
	30세 이상~39세 이하	ab	3.41±0.64
	40세 이상~49세 이하	b	3.47±0.52
	50세 이상~59세 이하	b	3.55±0.62
	60세 이상	ab	3.42±0.52
	F(p)	2.679*(0.031)	
	Duncan-test	a(b)	

변인	구분	장애수용	
			M±SD
학력	중졸이하		3.41±0.58
	고졸		3.43±0.58
	초대졸 이상		3.49±0.57
	F(p)		0.739(0.478)
결혼	유		3.40±0.57
	무		3.47±0.58
	t value(p)		-1.276(0.203)
거주형태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과 살고 있음	b	3.51±0.54
	혼자살고 있음	b	3.51±0.57
	독립하고 싶으나 부모, 친인척, 형제 등과 함께 살고 있음	a	3.25±0.61
	기타	a	3.27±0.62
	F(p)		6.154*** (0.000)
	Duncan-test		a<b
개인소득	49만원 이하	a	3.31±0.60
	50만원 이상~99만원 이하	a	3.47±0.59
	100만원이상~149만원이하	ab	3.53±0.49
	150만원이상~199만원이하	a	3.48±0.44
	200만원 이상	b	3.69±0.53
	F(p)		5.369*** (0.000)
	Duncan-test		a<b
직업	유		3.45±0.56
	무		3.42±0.59
	t value(p)		0.648(0.517)
장애유형	지체장애	b	3.46±0.55
	뇌병변장애	b	3.51±0.57
	시각장애	ab	3.34±0.57
	청각장애	b	3.58±0.48
	언어장애	b	3.56±0.37
	지적장애	ab	3.29±0.64
	자폐성장애	ab	3.16±0.96
	정신장애	a	2.67±0.68
	심장장애	b	3.78±0.29
	뇌전증	b	3.83±0.24
	F(p)		2.093* (0.029)
	Duncan-test		a<b
등급	중증(1, 2, 3등급)		3.44±0.58
	경증(4, 5, 6등급)		3.44±0.55
	t value(p)		0.030(0.976)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 : $p < .05$, ** : $p < .01$, *** : $p < .001$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관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관리의 평균값을 독립표본 T검정(t-test)과 분산분석(ANOVA)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표 4>와 같다.

연령에서 자기관리($F=4.36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관리에서 '60세 이상'($M=3.55$)이 가장 높고 '29세 미만'($M=3.28$)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60세 이상'이 '29세 이하'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에서 자기관리($F=5.205$)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관리에서 '초대졸 이상'($M=3.64$)이 가장 높고 '고졸'($M=3.41$)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초대졸 이상'이 '중졸 이하'와 '고졸'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에서, 자기관리($F=3.394$)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관리에서 '무'($M=3.56$)가 '유'($M=3.37$) 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에서 자기관리($F=5.66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관리에서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과 살고 있음'과 '혼자 살고 있음'($M=3.56$)이 가장 높고 '독립하고 싶으나 부모, 친인척, 형제 등과 살고 있음'($M=3.2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과 살고 있음', '혼자 살고 있음'과 '기타'가 '독립하고 싶으나 부모, 친인척, 형제 등과 살고 있음'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인소득에서 자기관리($F=4.418$)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관리에서 '200만원 이상'과 '100만원 이상~149만원 이하'($M=3.65$)가 가장 높고 '49만원 이하'($M=3.28$)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200만원 이상', '150만원 이상~199만원 이하'와 '100만원 이상~149만원 이하'가 '49만원 이하'와 '50만원 이상~99만원 이하'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애유형에서 자기관리($F=3.219$)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자기관리에서 '언어장애'($M=3.77$)가 가장 높고 '자폐성장애'($M=2.75$)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시각장애', '언어장애'와 '심장장애'는 '자폐성장애'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애등급에서, 자기관리($F=0.4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기관리에서 '경증(4,5,6급)'($M=3.63$)이 '중증(1,2,3급)'($M=3.43$)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관리

변인	구분	자기관리	
			M±SD
성별	남자		3.47±0.62
	여자		3.48±0.62
	t value(p)		-0.317(0.751)
연령	29세 미만	a	3.28±0.63
	30세 이상~39세 이하	ab	3.40±0.66
	40세 이상~49세 이하	ab	3.40±0.58
	50세 이상~59세 이하	bc	3.54±0.62
	60세 이상	c	3.62±0.58
	F(p)		4.365**(0.002)
	Duncan-test		a<c
학력	중졸이하	a	3.44±0.64
	고졸	a	3.41±0.59
	초대졸 이상	b	3.64±0.60
	F(p)		5.205**(0.006)
	Duncan-test		a<b
결혼	유		3.37±0.63
	무		3.56±0.60
	t value(p)		-3.394**(0.001)
거주 형태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과 살고 있음	b	3.56±0.64
	혼자살고 있음	b	3.47±0.58
	독립하고 싶으나 부모, 친인척, 형제 등과 함께 살고 있음	a	3.26±0.55
	기타	b	3.49±0.62
	F(p)		5.666**(0.001)
	Duncan-test		a<b
개인 소득	49만원 이하	a	3.38±0.69
	50만원 이상~99만원 이하	a	3.41±0.57
	100만원이상~149만원이하	b	3.65±0.50
	150만원이상~199만원이하	b	3.62±0.52
	200만원 이상	b	3.65±0.55
	F(p)		4.418**(0.002)
	Duncan-test		a<b
직업	유		3.48±0.61
	무		3.45±0.62
	t value(p)		0.868(0.386)

변인	구분	자기관리	
		M±SD	
장애 유형	지체장애	ab	3.52±0.57
	뇌병변장애	ab	3.50±0.52
	시각장애	b	3.76±0.60
	청각장애	ab	3.44±0.63
	언어장애	b	3.77±0.67
	지적장애	ab	3.25±0.67
	자폐성장애	a	2.75±0.36
	정신장애	ab	3.17±0.77
	심장장애	b	3.58±0.50
	뇌전증	ab	3.34±0.49
	F(p)		3.219**(0.001)
	Duncan-test		a(b)
등급	중증(1, 2, 3등급)		3.43±0.63
	경증(4, 5, 6등급)		3.63±0.56
	t value(p)		0.410**(0.004)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 : $p < .05$, ** : $p < .01$, *** : $p < .001$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립생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립생활(공동체, 환경)의 평균값을 독립표본 T 검정(t-test)과 분산분석(ANOVA)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표 5>와 같다.

연령에서 자립생활 중 공동체($F=4.47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동체에서 ‘60세 이상’($M=3.53$)이 가장 높고 ‘29세 미만’($M=3.1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60세 이상’, ‘50세 이상~59세 이하’, 40세 이상~49세 이하’와 ‘30세 이상~39세 이하’는 ‘29세 이하’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연령에서 자립생활 중 환경($F=2.576$)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환경에서 ‘50세 이상~59세 이하’($M=3.50$)가 가장 높고 ‘29세 미만’($M=3.11$)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60세 이상’, 50세 이상~59세 이하’, 40세 이상~49세 이하’와 ‘30세 이상~39세 이하’는 ‘29세 이하’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학력에서 자립생활 중 공동체($F=8.60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동체에서 ‘초대졸 이상’($M=3.64$)이 가장 높고 ‘중졸이하’($M=3.33$)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초대졸 이상'이 '중졸 이하'와 '고졸'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자립생활 중 환경($F=5.58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환경에서 '초대졸 이상'($M=3.63$)이 가장 높고 '고졸'과 '중졸이하'($M=3.33$)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초대졸 이상'이 '중졸 이하'와 '고졸'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결혼에서, 공동체($F=-3.92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립생활 중 공동체에서 '무'($M=3.56$)가 '유'($M=3.3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립생활 중 환경($F=-3.058$)에서 '무'($M=3.51$)가 '유'($M=3.27$) 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형태에서 자립생활 중 공동체($F=7.661$)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동체에서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과 살고 있음'($M=3.52$)이 가장 높고 '독립하고 싶으나 부모, 친인척, 형제 등과 살고 있음'($M=3.16$)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과 살고 있음', '혼자 살고 있음'과 '기타'가 '독립하고 싶으나 부모, 친인척, 형제 등과 살고 있음'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자립생활 중 환경($F=8.035$)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환경에서 '기타'($M=3.54$)가 가장 높고 '독립하고 싶으나 부모, 친인척, 형제 등과 살고 있음'($M=3.04$)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배우자(자녀) 등 내가 원하는 중요한 사람과 살고 있음', '혼자 살고 있음'과 '기타'가 '독립하고 싶으나 부모, 친인척, 형제 등과 살고 있음'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개인소득에서 자립생활 중 공동체($F=12.470$)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동체에서 '200만원 이상'($M=3.83$)이 가장 높고 '49만원 이하'($M=3.25$)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200만원 이상', '150만원 이상~199만원 이하'와 '100만원 이상~149만원 이하'가 '49만원 이하'와 '50만원 이상~99만원 이하'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자립생활 중 환경($F=13.339$)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동체에서 '200만원 이상'($M=3.92$)이 가장 높고 '49만원 이하'($M=3.18$)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200만원 이상', '150만원 이상~199만원 이하'이 '100만원 이상~149만원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았고, '100만원 이상~149만원 이하'가 '49만원 이하'와 '50만원 이상~99만원 이하'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공동체에서 '유'($M=3.50$)가 '무'($M=3.34$)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립생활 중 환경($F=2.154$)에서 '유'($M=3.48$)가 '무'($M=3.31$) 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5〉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립생활

변인	구분	자립생활			
		공동체		환경	
		M±SD		M±SD	
성별	남자		3.44±0.64		3.41±0.82
	여자		3.40±0.65		3.38±0.84
	t value(p)		0.565(0.572)		0.368(0.713)
연령	29세 미만	a	3.16±0.54	a	3.11±0.80
	30세 이상~39세 이하	b	3.38±0.64	b	3.39±0.67
	40세 이상~49세 이하	b	3.38±0.69	b	3.38±0.82
	50세 이상~59세 이하	b	3.52±0.65	b	3.50±0.89
	60세 이상	b	3.53±0.62	b	3.48±0.85
	F(p)		4.470**(0.001)		2.576*(0.037)
	Duncan-test		a<b		a<b
학력	중졸이하	a	3.33±0.66	a	3.33±0.81
	고졸	a	3.37±0.59	a	3.33±0.80
	초대졸 이상	b	3.64±0.66	b	3.63±0.85
	F(p)		8.602*** (0.000)		5.585** (0.004)
	Duncan-test		a<b		a<b
결혼	유		3.29±0.62		3.27±0.77
	무		3.53±0.65		3.51±0.86
	t value(p)		-3.920*** (0.000)		-3.058** (0.002)
거주 형태	중요한 사람과 살고 있음	b	3.52±0.65	b	3.49±0.84
	혼자살고 있음	b	3.44±0.62	b	3.51±0.78
	독립하고 싶으나 형제, 친인척 등	a	3.16±0.59	a	3.04±0.72
	기타	b	3.40±0.69	b	3.54±0.87
	F(p)		7.661*** (0.000)		8.035*** (0.000)
	Duncan-test		a<b		a<b
개인 소득	49만원 이하	a	3.25±0.66	a	3.18±0.80
	50만원 이상~99만원 이하	a	3.34±0.58	a	3.30±0.82
	100만원이상~149만원이하	b	3.61±0.55	b	3.59±0.69
	150만원이상~199만원이하	b	3.68±0.53	c	3.87±0.56
	200만원 이상	b	3.83±0.67	c	3.92±0.89
	F(p)		12.470*** (0.000)		13.339*** (0.000)
	Duncan-test		a<b		a<b
직업	유		3.50±0.64		3.48±0.78
	무		3.34±0.64		3.31±0.87
	t value(p)		2.708** (0.007)		2.154* (0.032)

변인	구분	자립생활	
		공동체	환경
		M±SD	M±SD
장애 유형	지체장애	ab 3.52±0.64	3.50±0.84
	뇌병변장애	ab 3.37±0.65	3.29±0.81
	시각장애	b 3.71±0.62	3.63±0.88
	청각장애	ab 3.43±0.59	3.61±0.86
	언어장애	ab 3.37±0.15	3.19±0.40
	지적장애	ab 3.20±0.63	3.22±0.80
	자폐성장애	ab 2.90±0.28	2.87±0.59
	정신장애	ab 3.11±0.45	2.89±0.10
	심장장애	ab 3.68±0.46	3.63±0.50
	뇌전증	a 2.88±0.17	3.08±0.12
	F(p)	3.093**(0.001)	1.881(0.053)
등급	Duncan-test	a(b)	
	중증(1, 2, 3등급)	3.37±0.65	3.35±0.83
	경증(4, 5, 6등급)	3.59±0.62	3.57±0.79
	t value(p)	-3.122**(0.002)	-2.455*(0.014)

M : mean, SD : standard deviation, * : $p < .05$, ** : $p < .01$, *** : $p < .001$

직업에서, 공동체($F=2.70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립생활 중 공동체에서 ‘유’($M=3.50$)가 ‘무’($M=3.34$)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립생활 중 환경($F=2.154$)에서 ‘유’($M=3.48$)가 ‘무’($M=3.31$) 보다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에서 자립생활 중 공동체($F=3.093$)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동체에서 ‘시각장애’($M=3.71$)가 가장 높고 ‘뇌전증’($M=2.88$)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정의 결과, ‘시각장애’는 ‘뇌전증’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등급에서 자립생활 중 공동체($F=-3.122$)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공동체에서는 ‘경증(4, 5, 6등급)’($M=3.59$)이 ‘중증(1, 2, 3등급)’($M=3.37$)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환경($F=-2.455$)에서는 ‘경증(4, 5, 6등급)’($M=3.57$)이 ‘중증(1, 2, 3등급)’($M=3.35$)보다 높게 나타났다.

3.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각 개념들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판별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균치는 총합척도(summated scale)를 사용하였으며, 이를 사용하는 목적은 측정오차를 줄이고 단일 차원으로 구성개념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데 있다(Hair 외, 1995). 모든 상관계수는 $\alpha=0.01$ 에서 유의하였으며, 설정된 방향과도 일치하였다. 구성개념 간에 상관관계가 너무 커서 1이라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판별타당성도 충족된다(강병서, 2002). 결과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모형을 구성하는 구성개념들은 타당성과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표 6〉 상관관계분석

구분	장애수용	자기관리	공동체	환 경	Mean	SD
장애수용	1				3.43	0.58
자기관리	0.437*6*	1			3.47	0.62
공동체	0.423**	0.828**	1		3.42	0.65
환 경	0.449**	0.652**	0.767**	1	3.40	0.83

주: 모든 상관계수는 $\alpha=0.01$ 에서 유의함.

4.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1)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자립생활 중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7〉과 같다.

〈표 7〉 자립생활 중 공동체에 미치는 요인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B(S.E.)	β	t	B(S.E.)	β	t	B(S.E.)	β	t
일반적 특성	(상수)	2,683 (0,205)		13,068	1,324 (0,239)		5,529	0,206 (0,154)		1,338
	성별	0,013 (0,058)	0,010	0,226	-0,068 (-0,054)	-0,052	-1,264	-0,044 (0,033)	-0,033	-1,305
	연령	0,050 (0,030)	0,107	1,677	0,039 (0,028)	0,084	1,423	-0,008 (0,017)	-0,017	-0,449
	학력	0,064 (0,019)	0,164	3,409**	0,056 (0,017)	0,143	3,235**	0,021 (0,011)	0,054	1,972*
	결혼유무	0,081 (0,078)	0,063	1,039	0,121 (0,072)	0,094	1,687	0,057 (0,045)	0,044	1,274
	거주형태	-0,007 (0,029)	-0,012	-0,229	0,025 (0,027)	0,045	0,937	0,004 (0,017)	0,007	0,242
	개인소득	0,105 (0,026)	0,215	4,102***	0,069 (0,024)	0,142	2,905**	0,065 (0,015)	0,134	4,408***
	직업유무	-0,002 (0,011)	-0,009	-0,182	-0,006 (0,010)	-0,028	-0,613	-0,006 (0,006)	-0,028	-0,978
	장애유형	-0,017 (0,014)	-0,059	-1,240	-0,014 (0,013)	-0,049	-1,137	-0,004 (0,008)	-0,013	-0,485
	등급	0,036 (0,023)	-0,059	1,528	0,046 (0,022)	0,090	2,145*	0,006 (0,013)	0,011	-0,419
독립 변수	장애수용				0,432 (0,047)	0,385	9,212***	0,069 (0,032)	0,062	2,158*
매개 변수	자기관리							0,801 (0,030)	0,767	26,874***
R ²		0,141			0,277			0,722		
Adjusted R ²		0,124			0,261			0,715		
F		8,255			17,290			106,452		
sig.		0,000			0,000			0,000		

*: p<.05, **: p<.01, ***: p<.001

먼저, 독립변수인 장애수용과 매개변수인 자기관리 그리고 통제변수인 일반적 특성 변수들간의 다중공선성을 검토하기 위해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를 살펴본 결과,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일반적 특성만을 투입한 모델1의 설명력(R²)은 14.1%로 설명하고 있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8.255, p=0.000). 일반적 특성에 독립변수 장

애수용을 추가한 모델2의 설명력(R^2)은 27.7%로 증가하였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7.290$, $p=0.000$). 그리고 매개변수 자기관리를 추가한 모델3의 설명력(R^2)은 72.2%로 비교적 높았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06.452$, $p=0.000$).

이와 같이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기관리는 원만한 공동체관계 형성에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들의 원만한 공동체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관리 능력을 높이고, 장애수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2)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자립생활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다.

우선 일반적 특성만을 투입한 모델1의 설명력(R^2)은 11.6%로 설명하고 있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6.625$, $p=0.000$). 일반적 특성에 독립변수 장애수용을 추가한 모델2의 설명력(R^2)은 27.7%로 증가하였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17.350$, $p=0.000$). 그리고 매개변수 자기관리를 추가한 모델3의 설명력(R^2)은 50.1%로 증가하였고,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F=41.083$, $p=0.000$).

이와 같이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기관리는 환경 형성에 중요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들의 환경 형성을 위해서는 스스로 자기관리 능력과 장애수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8> 자립생활 중 환경에 미치는 요인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B(S.E.)	β	t	B(S.E.)	β	t	B(S.E.)	β	t
일반적 특성	(상수)	2.494 (0.266)		9.365	0.601 (0.306)		1.963	-0.411 (0.265)		-1.552
	성별	0.009 (0.075)	0.005	0.120	-0.104 (0.069)	-0.062	-1.511	-0.082 (0.057)	-0.049	-1.429
	연령	0.028 (0.039)	0.047	0.718	0.013 (0.035)	0.021	0.356	-0.030 (0.029)	-0.050	-1.016
	학력	0.0446 (0.024)	0.092	1.895	0.035 (0.022)	0.070	1.578	0.004 (0.018)	0.007	0.191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B(S.E.)	β	t	B(S.E.)	β	t	B(S.E.)	β	t
	결혼유무	0.091 (0.101)	0.055	0.901	0.147 (0.092)	0.089	1.602	0.089 (0.077)	0.054	1.161
	거주형태	0.018 (0.038)	0.025	0.479	0.062 (0.034)	0.086	1.816	0.043 (0.029)	0.060	1.510
	개인소득	0.182 (0.033)	0.291	5.473***	0.132 (0.031)	0.211	4.330***	0.129 (0.025)	0.206	5.058***
	직업유무	0.010 (0.014)	0.036	0.718	0.004 (0.013)	0.015	0.340	0.004 (0.010)	0.016	0.413
	장애유형	-0.006 (0.018)	-0.016	-0.333	-0.002 (0.016)	-0.006	-0.137	0.007 (0.014)	0.020	0.546
	등급	0.034 (0.030)	0.052	1.134	0.049 (0.028)	0.074	1.777	0.012 (0.023)	0.019	0.530
독립 변수	장애수용				0.602 (0.060)	0.420	10.037***	0.273 (0.055)	0.191	4.969***
매개 변수	자기관리							0.725 (0.051)	0.543	14.194***
R ²		0.116			0.277			0.501		
Adjusted R ²		0.099			0.261			0.488		
F		6.625			17.350			41.083		
sig.		0.000			0.000			0.000		

*: $p < .05$, **: $p < .01$, ***: $p < .001$

3) 자기관리의 매개효과 검증

장애인의 장애수용과 자립생활(공동체, 환경) 사이에 자기관리가 매개하는 역할을 알아보기 위하여 Baron & Kenny(1986)의 회귀분석을 통한 매개효과 분석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 매개변수에 대해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2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해 독립변수를 투입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종속변수에 대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투입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여기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가 유의성을 상실하면 매개변수는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게 된다. 만약에 유의성을 가지면서 2단계에서의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보다 작으면 매개변수는 부분매개효과를 가진다. 부분매개효과의 유의성은 3단계에서 설명력 증가의 분산이 유의

성을 가질 때 나타난다(조철호,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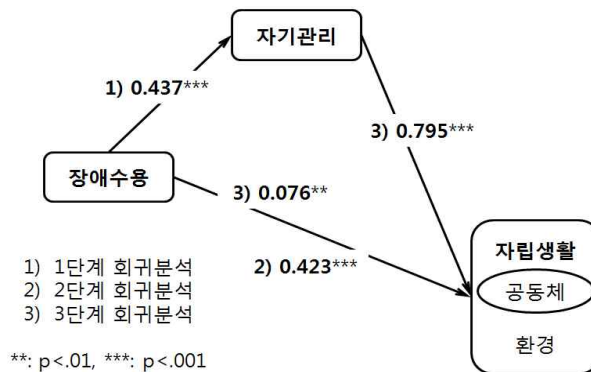
이와 같은 매개효과를 가질 때에 2단계 독립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총효과가 되며, 3단계에서 독립변수의 표준화 회귀계수는 직접효과이고, 총효과에서 직접효과를 차감한 수치는 매개변수에 의해 전달되는 간접효과가 된다.

실제 SPSS에서 장애수용과 공동체에 대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를 1단계에서는 단순회귀분석을 사용 후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나타난 결과표는 <표 9>와 [그림 2]와 같다.

<표 9> 자기관리의 매개효과 검증(공동체)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기관리	공동체	
		β	β	
		1단계	2단계	3단계
장애수용		0.437***	0.423***	0.076**
자기관리				0.795***
ΔR^2 (F변화량)				0.689(F=761.806)
R^2		0.168	0.177	0.689
F		108.540***	100.353***	513.888***

*: $p < .05$, **: $p < .01$, ***: $p < .001$, 3단계 다중공선성 진단(VIF : 1.235<10)



[그림 2] 매개회귀분석을 활용한 인과모형(공동체)

1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장애수용은 매개변수인 자기관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장애수용이 종속변수인 공동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

는 장애수용과 자기관리가 공동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수용의 영향력은 2단계의 경우보다 다소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관리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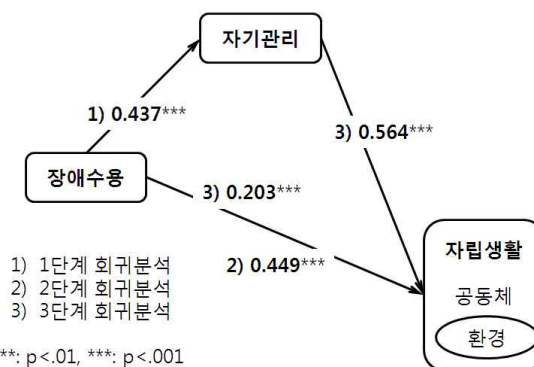
장애수용이 공동체에 미치는 총효과는 0.423이며, 그 중 직접효과는 0.076이고, 자기관리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347이었다. [그림 2]에서 총효과 0.423은 직접효과 0.076과 간접효과 0.347의 합이 되며, 간접효과 0.347은 총효과 0.423에서 직접효과 0.076을 차감하거나 계수값 0.437과 0.795의 곱으로 산출된다.

또한, 장애수용과 환경에 대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를 1단계에서는 단순회귀분석을 사용 후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나타난 결과표는 <표 10>과 [그림 3]과 같다.

<표 10> 자기관리의 매개효과 검증(환경)

독립변수 \ 종속변수	자기관리	공동체	
	β	β	
	1단계	2단계	3단계
장애수용	0.437***	0.449***	0.203**
자기관리			0.564***
ΔR^2 (F변화량)			0.257(F=218.664)
R^2	0.189	0.200	0.459
F	108.540***	116.432***	195.035***

*: $p < .05$, **: $p < .01$, ***: $p < .001$, 3단계 다중공선성 진단(VIF : 1.235<10)



[그림 3] 매개회귀분석을 활용한 인과모형(환경)

1단계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인 장애수용은 매개변수인 자기관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2단계 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수인 장애수용이 종속변수인 환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3단계 회귀분석에서는 장애수용과 자기관리가 환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장애수용의 영향력은 2단계의 경우보다 다소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관리는 부분매개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장애수용이 환경에 미치는 총효과는 0.449이며, 그 중 직접효과는 0.203이고, 자기관리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246이었다. [그림 3]에서 총효과 0.449는 직접효과 0.203과 간접효과 0.246의 합이 되며, 간접효과 0.246은 총효과 0.449에서 직접효과 0.203을 차감하거나 계수값 0.437과 0.564의 곱으로 산출된다.

이상과 같이 장애수용과 자립생활(공동체, 환경)에 대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장애수용이 자기관리를 매개로 자립생활(공동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장애수용의 수준은 연령, 거주형태, 개인소득 및 장애 유형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장애수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거주형태에서는 중요한 사람과 혼자 살고 있을수록, 장애유형에서는 심장장애, 뇌전증 등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장애수용도가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기관리의 수준은 연령, 학력, 결혼, 거주형태, 개인소득,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학력 및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거주형태에서는 중요한 사람과 살수록, 경증일수록 자기관리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유형에서는 언어장애 및 시각장애 등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자기관리 능력이 높았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립생활(공동체, 환경)의 수준에서 먼저 공동체의 수준은 연령, 학력, 결혼, 거주형태, 개인소득, 직업, 장애유형,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학력 및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거주형태는 중요한 사람과 살수록, 경증일수록 자기관리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이 있을수록, 장애유형에서는 시각장애 및 심장장애 등 장애를 가진 분들이 공동체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의 수준은 연령, 학력, 결혼, 거주형태, 개인소득, 직업, 장애등급 등의 변인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학력 및 개인소득이 높을수록, 미혼일수록, 거주형태는 '기타'와 거주할수록, 직업이 있을수록, 경증일수록 주변의 환경 형성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 학력별 등 장애수용 프로그램, 자기결정권 향상 프로그램, 역량강화 프로그램,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많이 참여시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자립생활(공동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에서 장애수용과 자기관리를 단계별로 추가한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점차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셋째, 장애수용과 자립생활(공동체, 환경)에 대한 자기관리의 매개효과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설명한 자기관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난 만큼 장애수용프로그램, 자기결정과 역량강화 등의 자기관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자기관리의 매개효과가 큰 만큼 자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또한, 장애수용을 위해서는 심리적 안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가족의 지지나 사회적 역할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족상담 및 교육, 가족기능을 강화하는 가족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으로 가족지지체계 구축 마련이 필요하며, 다양한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제안하는 관계형성 및 공동체 지지체계 및 사회 환경을 마련하여 자립생활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고려되어야 할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구·경북 지역의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에 전국에 있는 다른 종류의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후속연구를 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유형에 따른 변인들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연구자는 장애발생 시기, 연령, 학력, 경제상태, 소속 복지관의 특성 등에 따른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성별간의 자립생활에 대한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가설이 남기에, 후속연구를 주문하고자 한다.

셋째, 2010년부터 장애등급 판정의 객관성과 합리성 제고를 위한 새로운 장애인등급 판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의료적 장애진단의 제한된 보완조치에 불과하다.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전달체계 및 현실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장애인의 장애유형이 많으나 신체적 장애 중 내부기관의 장애와 정신적 장애 중 정신장애의 경우는 각 유형별 장애인 수에 비해 그 수가 너무 적어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 참고문헌

- 강병서 (2002). 인과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무역경영사.
- 곽승철 (1995). 지체부자유아교육. 대구 : 대구대학교출판부.
- 권순관 (2016). 장애인의 자기관리가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 대구한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동기 (2007). 자립생활서비스 이용 중증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대한 자립생활센터의 조직효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성희 (2000). 장애발생시기와 귀인양식이 장애수용과 우울반응에 미치는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대 (2013). 재가중증장애인의 장애태도가 자립생활에 미치는 영향 : 임파워먼트의 매개효과와 가족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영삼 (2012). 척수장애인의 자립생활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은정 (2002). 시각장애인의 사회통합에 관한 요인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익균 (2007). 사회복지개론. 서울 : 파워북.
- 남연희, 김영삼, 한승길(2013). 척수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7(3), 1-29.
- 노승현 (2007). 노화에 따른 지체장애인의 주관적 삶의 질 모형구축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자경·엄명용 (2009). 사회적 지지와 장애인의 삶의 만족도 관계 분석 - 장애수용 요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재활복지. 13(4), 1-23.
- 박현숙·손민정·송진영 (2013). 중증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장애수용의 매개효과 및 대인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장애와 고용. 23(1), 55-76.
- 변용찬 (2004). 한국의 장애인복지정책과 자립생활. 장애와 사회. 5, 32-49.
- 석말숙 (2003). 중도지체장애인의 종교적 특성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연숙 (2008). 성인중도지체장애인이 장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진영 (2014). 고령장애인의 일상생활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장애수용과 취업여부의 매개효과 검증.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예철 (2012). 지역만들기에 있어서 지역공동체 역량이 지속적 참여와 참여확대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심석순·김성천·김안자 (2011). 생활시설 퇴소장애인의 자립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활복지. 15(4), 79-106.
- 양경옥·김정진·서미경·김미옥·김소희 (2005). 사회복지실천론. 서울 : 나남출판.
- 양희택 (2006).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엄명용·김성천·오혜경·윤혜미 (2005).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서울 : 학지사.
- 윤재영 (2010). 장애인 자립생활의 의미와 측정 : 자립생활센터 이용장애인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익섭·김동기·이한나 (2007). 자립생활서비스 이용과 지역사회참여 및 고용의 관계와 역량강화의 매개효과. 한국직업재활학회. 17(1), 5-24.
- 이종하 (2008). 신체장애자들의 스포츠참여정도, 장애수용 및 자기효능감의 인과관계. 한국체육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채식 (2012).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지각한 자기결정권, 활동보조인의 자질 및 역량, 서비스 질이 서비스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16(1), 87-112.
- 이채식 (2013). 장애인 자립생활의 구성요인 중 자기결정권과 역량강화가 공동체관계 및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재활복지. 17(4), 221-244.
- 이채식·이성규·김명규 (2009). 활동보조서비스 이용 장애인의 일반적 특성이 자기결정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13(1), 111-134.
- 이채식·이은영·이형렬·김재익·전영록 (2010). 장애인복지론. 서울 : 창지사.
- 정승원 (2012). 고용관련 환경요인이 장애당사자의 장애수용에 미치는 영향. 장애와 고용. 22(4), 323-350.
- 정종화 (2001). 장애인 자립생활실천을 위한 과제와 전망. 2001 국제 장애인복지 실천세미나.
- 조재삼 (2010). 중증뇌성마비장애인의 자립지원 모형구축을 위한 요인 탐색.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철호 (2014). SPSS/AMOS 활용 구조방정식모형 논문통계분석. 도서출판 청람.
- 허정훈 (2001). 운동선수 자기관리 측정도구의 구조적 타당화와 인과모형 검증.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Condeluci, A. (1998). Interdependence : the route to community. 2nd ed. St. Lucie Press.

- DeJong, G. (1992). Independent living : methodology for measuring long-term outcomes. *Arch Phys Med Rehabil*, 63(Feb), 68-73.
- Flatley, J. M. (1972). The Relationship of Selected Characteristics of Physical Disability to the Self Concepts of the Physically Disable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
- Geis, H. J. (1972). The Problem of Personal Worth in the Physically Disabled Patient. *Rehabilitation Literature*, 33(2), 34-39.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 Prentice Hall.
- Kaiser, S. B., Wingate, S. B., Freeman, C. M., & Chandler, J. L. (1987). Acceptance of Physical Disability and Attitudes Toward Personal Appearance. *Rehabilitation Psychology*, 38, 199-210.
- Kuhl, J. (1985). Volitional mediators of cognitive consistency ; Self-regulatory processes and action versus state orientation. IN J. Kuhl & J. Heckman(Eds), *Action control*, New York: Springer. 101-128.
- Linkowski, D. C. (1971). A Scale to Measure Acceptance of Disability.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236-244.
- Nosek, M., Fuhrer, M. & Howland, C. (1992). Independence among people with disabilities : II. personal independence profile.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36(1), 21-36.
- Oliver, M. & Sapey, B. (2006). *Social work with disabled people*. 3rd ed. NY : Palgrave Macmillan.
- Reuben M. Baron & David A. Kenny.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Rothman, J. C. (2003). *Social work practice across disability*. Boston, MA : Pearson Education.
- Tower, K. D. (1994). Consumer-centered social work practice ; Restoring client self determination. *Social Work*, 39(2), 191-196.
- Vogot, J. F. & Murrel, K. L. (1990). 경영혁신 임파워먼트, 1995, 김성구 역, 서울 : 고려원.
- WHO (2004).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ICF 한국번역출판위원회 역, 보건복지부.
- Wright, B. A. (1969). *Physical disability : A Psychological approach*. New York : Harper & Low.
- Yates, B. T. (1986). *Applications in self-management*. Belmont :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Zimmerman, B. J. (2002). Becoming a self-regulated learner ; An overview. *Theory into practice*, 41, 64-72.

A Study on the effects of disability acceptance on independence living : Based on the mediated effect of self management

Kim Doo Young

Dalseong rehabilitation center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intervention strategy for policies and institutions associated with disability welfare to have effective independence living in disability welfare facilities. Specifically, the aim of the study is to provide the policy in the disability welfare facilities and the efficient information necessary to develop the program.

We analyz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disability acceptance, self management and independent living based on a 59-item questionnaire composed of a total of 4 areas - disability acceptance 9 questions, self management 16 questions, independent living 25 questions, general features 9 questions - completed by 463 disabled person to use rehabilitation center in Daegu-Kyeongbuk Institute.

The result shows that disability acceptance and self management is the predictive factors of independent living (community, environment). So, disabled person is needed to increase self management skill and to effort disability acceptance. We also confirmed that disability acceptance has an indirect impact on independent living through self management.

The data gives indication that it is crucial that emotional leadership ha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development of a step-by-step services and the policies and institutions associated with disability welfare.

■ **key words** : disability acceptance, self management, independent living

논문투고일 : 2016. 10. 14

논문심사일 : 2016. 12. 07

게재확정일 : 2016. 12. 14

장애인복지 연구 제7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7, No. 2, 37-70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 연구*

대구대학교 박 미 랑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장애인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고용패널 5차년(2012)도 임금근로 장애인 1,094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일자리, 심리사회적 요인들과 직무만족도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근로자들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은 남성, 50대, 고졸, 신체외부장애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자리 요인은 민간사업체 근무, 200만원 이하의 임금, 비정규직, 조직적응능력이 좋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심리사회적 요인은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일상생활만족도의 9개 항목들은 대체적으로 높았으며,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요인에서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 및 만족감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높았다. 둘째, 직무만족도는 12개의 문항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으며,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문항에 따라 불만족과 만족의 비율이 골고루 나타났다. 셋째, 요인들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최종 학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직무만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고졸과 대졸 이상의 직무만족도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만족도가 가장 높은 일자리는 시민 및 종교단체였으며, 소속되지 않은 임금근로자들이 가장 낮은 직무만족도를 보였다. 지위 및 정규직 여부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평균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안정적인 근로환경이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요인들의 영향력과 상호관계를 분석한 결과 최종학력 중 고졸과 대졸만이 직무만족도에 기여했으며, 임금이 높고 정규직이며 조직적응능력이 좋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은 긍정적, 부정적으로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긍정적 자아존중감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낮았으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일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일상생활만족도는 사회적(일과 임금 등), 환경적(결혼, 친구 등) 요인으로 나누었더니 사회적인 만족도가 직무만족도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인구사회학적, 일자리, 심리사회적 요인들은 직무만족도와 상호관계를 가지며 영향을 미친다. 향후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임금근로장애인, 직무만족도, 인구사회학적, 일자리, 심리사회적 요인

* 본 논문은 필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및 요약한 것임

I. 서론

인간은 누구나 일을 함으로써 임금을 받고 생계를 유지하며,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서는 일을 통해 자아실현을 하게 된다. 일을 하는 것은 비장애인과 장애인 모두에게 인간으로서의 당연하고 기본적인 권리이지만,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숫자에 비해서 일자리의 양이 부족하며 일자리이 질 또한 제한적이다.

이러한 일자리의 부족은 장애인 숫자의 증가로 인해 취업 장애인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더욱 일자리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의하면 1990년 24만여 명이었던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2012년 12월 말 기준으로 251만 명을 넘어서면서 10배 이상이 증가를 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의 양적인 성장에 대한 고려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과 시행으로 인해 20여 년간 5배 이상이 증가하였다(양수정, 최종철, 김호진, 고제훈, 2013).

이렇듯 장애인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변화와 그에 따른 고용율 증가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에 일자리 질에 대한 평가로 여겨지는 이직율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장애인 통계(고용개발원, 2013)의 근로형태별 임금 근로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비정규직 59.1%와 정규직 40.9%이다. 또한, 근속기간별로 살펴보면 3년 미만 비율은 전체 장애 인구의 31.9%로 10년 이상의 비율인 39.9%와 비슷했다. 그리고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임금은 전체 상용근로자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단순노무종사자들이 가장 큰 경제활동 비율을 차지한다. 이렇게 장애인들은 취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낮은 일자리의 질로 인하여 이직할 가능성이 크다(문필동, 이정화, 2012).

낮은 일자리의 질은 개인적, 조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장애인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장애와 관련된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여전히 관련 종사자들에 관한 연구가 대다수인 반면에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201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경제활동을 하는 장애인 인구들 중에서는 임금근로자가 전체 인구의 21.5%로 가장 많았고, 그 외의 경제활동 형태는 자영업주 10.6%, 무급가족종사자 2.3%가 있었다. 비경제활동 장애인의

비율이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앞으로의 장애인 일자리 질을 개선을 위해서 현재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만족도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임금근로 장애인은 근로자들이 가지는 보편적 특성과 장애인으로서 갖는 특수한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이러한 특수한 특성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과 그가 속해 있는 사회를 같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장애에 대한 개념이 점차적으로 기존의 장애 개념과는 차별화되게 인구사회학적 요인 외에도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도 있다(나운환, 김지민, 2012). 그러므로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인구사회학적, 일자리, 사회적으로 관련된 많은 변인들을 복합적으로 살펴 보아야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들이 숫자가 많아짐에 따라 일자리의 다양화와 필요성도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현재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분석하여 향후 장애인 일자리 질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장애인 직무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기에 연구내용이나 대상 측면에서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전국적인 표본을 이용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실태를 분석 할 수 장애인고용패널을 이용할 것이며, 연구 대상자는 임금근로 장애인들로 선정하여 직무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 중 인구사회학적, 일자리, 그리고 사회심리요인들을 분석하여 일자리의 질 개선을 위한 배경 정보와 기초 자료 제공을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 데이터 중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인구사회학적, 일자리, 사회심리요인들의 특성들을 알아본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일자리 요인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일자리,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이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II. 이론적 배경

1. 임금근로 장애인

1) 임금근로 장애인

임금근로 장애인은 직업의 유형과 상관없이 사업장에서 임금을 받기 위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취업 장애인 중 59.4%를 차지한다. 임금근로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일자리 유형을 살펴보면 그 외 일반사업체(공무원 등 포함)가 85.9%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정부재정지원 일자리(공공근로, 희망근로, 복지일자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9.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일자리(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자립작업장 등) 4.5% 순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3)

2)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자리 질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장애인의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고용 후 장애인들의 취업의 질은 아직 많이 열악한 상태이다. 취업의 질은 다양한 변인들로 가늠할 수가 있지만 그중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개념들은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및 근로형태, 이직, 임금으로써 장애인 일자리의 질을 측정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고용계약기간을 기준으로 근로형태를 분류한다. 이에 따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는 고용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 이상인 경우를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경우를 임시근로자, 1개월 미만인 경우를 일용근로자로 분류한다(주석진, 한성덕, 2010). 이런 분류에 따르면 장애인근로자의 종사상지위는 상용 55.5%, 임시 25.1%, 일용 19.4%로 나누어지고, 전체 인구 취업자의 경우는 상용 63.8%, 임시 27.0%, 일용 9.2%로 나타난다. 이는 장애인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 비해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적고 일용근로자의 비율이 큰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장애인 일자리들이 불안정한 것을 알 수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3).

이렇게 일자리의 안정성과 관련된 임금근로 장애인 일자리의 형태는 정규직여부와 근로형태를 통해서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임금근로 장애인 중 비정규직은 5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형태는 한시직 33.7%, 시간제 24.7%, 비전형 근로자 29.3%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32.3%이고, 근로형태가 한시직 18.8%, 시간제 9.9%, 비전형 근로자 12.4%인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장애인 근로자의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불안정적인 일자리와 이직

Ashford 등(1989)은 근로자 스스로가 자신의 일자리 상태가 불안정하다고 인식할 때 직원들의 조직몰입 수준이 감소하고 이직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불안한 일자리상태에 따른 이직은 비정규직일수록 쉽게 행해 질 수가 있는데, 정재호와 이병희(2004)는 비정규직들은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비해서 50~7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열악한 근로조건,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이직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Mottaz(1988)는 일정을 잡기 어려운 불규칙적인 교대근무로 인해 직장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진다고 하며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등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이탈로 인해 이직률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Mobley(1982)와 Javonic(1979)는 자신의 기술 또는 학력을 고려했을 때 현재 직장의 임금 수준이 시장 평균 임금에 못 미치면 이직을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근로에 있어서 불안정적이고 만족감이 떨어지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이직 수준은 심각하다. 2008년 사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장영석, 류정진, 김호진, 임미화, 전상철, 황수정, 이상원, 2009)의 상반기 통계에 의하면 입사한 장애인 근로자 16,965명 중 13,081명이 퇴사를 했으며 이는 장애인들의 입직/이직 비율은 1.3인 것에 비해 다른 전체 상시 근로자들의 입직/이직 비율은 0.8인 것으로 장애인들의 퇴사 및 이직 숫자가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임금근로 장애인의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며 근로의 불안정성을 보이는 또 다른 요소는 임금이다.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156.6만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월평균 임금 217.1만원의 72.1% 수준에 미친다. 이러한 장애인 임금은 2010년에 비해 22.4만원 증가한 금액이지만 많은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일거리가 정기적이지 않은 것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수입도 개인별 차이가 많이 나며 불안정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종사상 지위별로 보았을 때 상용 근로자는 205.0만원, 임시근로자 95.2만원, 일용근로

자 97.3만원으로 상용근로자가 임시 및 일용근로자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3). 이렇듯 임금근로 장애인들 중에서도 근로 형태에 따른 임금의 격차가 크며 이는 임시와 일용 근로자의 비율이 큰 것을 고려했을 때 불안정도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장애인들의 임금 수준이 불안정적인 것에 대한 해석은 기존의 이론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노동자의 노동능력으로 노동의 질, 생산성은 취업과 임금수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적자본이론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런 인적자본이론은 교육이나 훈련에 의해 향상 될 수 있는 다양한 인적 특성을 의미하며 장애인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전리상, 2006). 인적자본이론에서 장애인의 취업여부와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선택으로 노동자로서의 장애인의 생산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 이론은 교육과 훈련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과 훈련에 대한 선택을 하지 않거나 못하는 장애인들의 경우 임금근로자가 되기 위한 불리한 위치에 놓여있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한이슬, 2012 재인용).

이러한 학교교육과 직업훈련 등에 대한 인적자본 이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등장한 선별이론의 경우 인적자본을 생산성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단순히 고용주가 고용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선발도구로서 봤다는 것이다(Spence, 1974; 전리상, 2006).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볼 때 장애인들은 장애라는 특성이 노동시장에서 다른 노동특성(교육수준, 경력, 연령 등)보다 가장 우선적인 선발기준이 되면서 비장애인과 같은 노동시장에서 경쟁을 할 경우에 차별적 위치에 놓이게 된다. 고용주의 선별작업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임금 수준에서 있어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권유경, 1998; 한이슬, 2012 재인용).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취업과 임금수준의 어려움에 대한 다른 이론적 설명은 취향가설이다. Becker가 주장한 취향가설은 고용주의 편견과 선호가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고 취업과 임금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내용이다. 즉 고용주들의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경쟁에서 고용이 되기가 더욱 어렵고, 장애가 얼마나 눈에 띄는가에 따라 고용주의 편견의 정도가 다르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주류집단과 경쟁하기 위하여 소수집단의 낮은 임금이 정당화되기도 한다(유동철, 2000; 한이슬, 2012 재인용).

이러한 통계와 이론들의 해석들처럼 장애인들은 여전히 취업취약계층으로 취업을

하더라도 불안정적인 일자리에서 근무를 하며 낮은 임금과 직무만족도 등으로 인해 이직을 반복한다. 이러한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에 대한 연구들이 더욱 필요하다.

2. 직무만족도

1) 직무만족도의 개념

직무만족도(job satisfaction)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써 여러 학자들에 의해 정의 내려졌다. Smith(1955)는 “직무에서 욕구 충족이 가능한 임금, 승진기회, 목표달성 등과 같은 환경적 상황에 대한 유쾌한 감정상태”라고 했고, Locke(1976)는 “직무나 직무경험의 평가를 하고 난 뒤 느끼는 유쾌하고 긍정적인 정서적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Williamson(1996)이 “일반적으로 자신의 일에 대한 만족감, 정서적으로는 유쾌한 상태”라고 했으며, Fisher(2000)는 “개인의 직무에 대한 정서적 감정의 반응과 내·외재적 보상을 같이 고려하는 상태”라고 정의했다(강도명, 2013 재인용).

국내에서는 유종해(1988)가 직무만족도에 대해 “고도의 지적, 감성적 성격을 띤 조직 참여들의 근무수행 의욕”이라고 했으며, 서동수(2001)는 “직무와 직무 관련 평가에서 얻어지는 감정, 정서 등의 만족의 상태”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방하남과 김상욱(2009)은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는 산업사회의 생산현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나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거나 나타내는 감성적, 정서적 상태의 정도, 일반적으로 피고용 근로자들의 근무지향성을 지칭한다.” 라는 설명을 했다.

이처럼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행해져왔는데 구성원들이 자기의 일이나 환경에 대해서 느끼는 좋고 나쁜 감정적, 정서적 태도의 총합이라는 해석이 주류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은 여전히 장애인근로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환경, 작업환경, 조직환경 등 사업체 측면에서의 외적요인을 연구하는데 치중되어 있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내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이채식, 김명식, 2012).

2)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직무만족도의 요인이나 영역을 정확하게 구분 짓거나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현대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모든 경험의 핵심은 자신(self)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주변의 수많은 타인이나 환경과 끊임없이 관계를 하며 살아가고 다양한 체계 수준인 개인, 가족, 조직을 포함하는 소집단, 지역사회들의 상호작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박선영, 2010). 그러므로 근로자 자신과, 근로자가 몸담고 있는 조직과 관련된 요인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은 직무만족도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자신(self)은 개인적 영역으로 내부의 심리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일에 대한 의지나 동기로 표현될 수 있으며, 직장에서는 작업 태도나 조직의 몰입 정도로 나타낼 수 있다. 개인의 높은 작업태도는 일에 대한 경험들, 조직에 대한 지각들,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조합되어서 발달시키고, 이것이 조직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유도하여서 결과적으로 직무만족도를 높이게 된다(Mowday, Porter, & Steers, 1979, 차세영, 2010 재인용). 이렇듯, 개인과 조직에 대한 변인들도 중요하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들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조직,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 직무만족도의 경우 다양한 이론들로 설명될 수 있다. 이들 중 Maslow의 이론은 통상 욕구 단계 이론이라고 불리며 동기이론으로써 ‘개인의 행동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특정 시점에서 개인의 가장 강한 욕구가 행동을 결정한다’고 한다. 또한 Alderfer(1972)는 Maslow의 욕구 5단계를 생존욕구, 사회관계욕구, 성장욕구의 3단계로 축소시켰다. 생존욕구는 음식, 공기, 물과 조직의 직무상황과 관련해서 임금, 안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물리적 환경이 해당된다. 사회관계욕구는 조직구성원 상호간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나누는 욕구이다. 성장욕구에는 직무 상황에서 개인의 성장을 위한 생산에 대한 공헌 등에 의한 자기개발욕구들이 포함된다(김명환, 재인용 2009). 이렇듯 직무만족은 개인의 환경과 심리적인 영향들의 총체적인 결과이다.

또 다른 심리학의 발달과정에서 분석되어 온 Vroom(1964)의 기대이론은 동기란 인간이 마음대로 선택하는 행위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지를 지배하는 심리과정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이것은 선택하고 나서의 성과, 보상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기대이론은 직무만족도에 있어서 임금 및 보상이라는 변인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상과 관련된 또 다른 연구는 Adams(1965)의 공정성이론을 들 수 있다. 이 이론은 개인의 투입요인과 성과요인

의 비를 다른 사람의 투입 및 성과의 비와 비교하여 직무만족이 결정된다고 하며 기본적으로 인간은 공정하게 대우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개인이 조직 내에서 불공정성을 지각하게 되면 대개 부족한 보상에 따른 불만이나 긴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Altimus 와 Tersine(1973)는 개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중 하나인 연령에 따른 직무만족 수준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연령이 많은 종업원이 적은 종업원보다 상대적으로 직무자체와 전체 만족수준이 높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러한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에 대해 Sersshore 와 Taber(1975)는 인구 통계적 요인(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안정적 성격요인(분노, 지겨움), 능력(지능, 기술), 지각, 인지, 기대 등을 들고 있다.

또한, McCormick(1980)는 직무만족에 대한 설명은 개인의 역할과 인구사회학적 변수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무만족 요인에 대하여 종합적인 설명으로 인간은 같은 직장 내에서 같은 작업 환경 하에 동일한 보수를 받더라도 각 개인의 학력, 연령, 성별, 결혼여부, 직위 등 여러 가지 배경변수에 따라 직무에 대한 만족의 정도 및 각각의 직무만족 요인들에 대한 욕구충족수준 그리고 이들이 전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명환, 2009 재인용).

선행연구들과 같이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은 내·외적으로 다양한 결정 요인들로 이루어져있는데 개인, 조직 또는 환경,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인 부분들의 총체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직무만족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3. 장애인의 직무만족도

직무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는 오래전부터 이루어져왔지만 장애인에 대한 선행 연구는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편이다. 하지만 장애인의 직무만족에 대한 중요성은 직업재활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일자리의 양적측면 보다는 질적측면과 직업재활프로그램의 효과적 방향모색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면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은정, 2009). 또한, 이러한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대한 관심은 직무만족이 일자리에 관련해 개인이 느끼는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인 동시에 조직관리와 조직구성원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장애인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중요한 것이다(김복일,

2005; 이채식, 김명식, 2012, 재인용).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동영과 이정주(2007)는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에 대해 인구사회학적인 요인으로 개인수준(장애특성, 인적자본, 고용특성변수)과 일자리 요인인 조직수준(물리적 환경, 인사환경, 기업환경변수)으로 나누어서 연구를 했고, 박자경(2009)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 결정요인을 인구사회학적요인(성별, 장애상태, 교육수준 등), 보상요인(임금, 승진 등), 작업환경요인(작업시간, 작업시설, 작업장 물리적 환경 등), 직무요인(직무적합도, 역할모호성 등)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채민혜(2012)는 직무만족도 결정 요인으로 업무특성(업무다양성, 중요성), 조직특성(보상체계, 직업능력개발기회), 개인특성(자기효능감), 인구사회학적특성(성별, 연령, 결혼여부, 최종학력, 소속기관, 근무연수, 월평균소득, 근무시간)으로 분석을 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장애인 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들, 직무 관련 요인들 같이 외부적인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장애인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대한 외적요인을 규명하는데 치중되어 있고, 장애인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아존중감, 생활만족도 같이 개인과 환경의 심리사회적인 요소들을 반영하는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비장애인과는 또 다른 특성들을 가진 장애인 근로자로서의 심리 사회 요인들 간 관계는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이 장애인들의 직무만족도와 갖는 밀접한 관계를 충분하고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이운식, 2010).

이에 본 연구에는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고자 인구사회학적 요인 변수, 일자리 요인 변수, 사회심리 요인 변수와 직무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각 요인 변수들은 선행연구를 통해 선별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변수에는 성별, 연령, 장애유형 및 등급, 최종학력이 포함되고, 일자리 요인 변수에는 일자리 종류, 임금,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대인관계/조직적응 능력이, 마지막으로 심리사회 요인에는 자아존중감과 일상생활 만족도가 포함되었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의 직무만족도 관련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07년부터 도입 실시한 장애인고용패널조사(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 PSED) 데이터를 분석한다. PSED는 장애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고용 패널로써 조사내용은 2008년 1차년도 본 조사에서 시작하여 매년 불필요한 문항은 삭제, 필요한 부분들은 첨가를 하여 축적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장애 및 기본 정보, 일상생활, 개인소득, 가구정보 등과 함께 경제활동상태를 판별하기 위해서 패널의 경제활동, 직업적 능력, 고용서비스 이용 현황, 직업능력개발 등을 조사했다. 이러한 조사는 관련 기초통계, 인구사회학적 및 환경적 요인 규명을 통해 장애인들을 위한 고용정책 수립 및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 제공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5월부터 7월까지 3회에 걸쳐 조사된 5차년도 데이터를 분석하였고, 전체 표본 4,297명 중 임금근로 장애인 1,094명의 기본정보(DQ), 개별 일자리 정보(BA), 직업적 능력(C), 일상생활과 삶의 질(F) 등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 주요 변수와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과 2012년 제5차 장애인 고용 패널 조사 데이터를 토대로 하여 조사표의 구분 중 기본정보(DQ)에서 성별, 연령, 장애유형, 장애등급, 최종학력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조사표 중 개별 일자리 정보(BA)에서 일자리 종류, 고용형태, 현재 주업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 근무시간 형태의 일자리 요인을, 그리고 직업적 능력(C)의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에서도 일자리 요인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일상생활과 삶의 질(F)의 자아존중감, 일상생활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종속변수는 조사표 중 직무만족도 12개의 문항들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1) 종속변수

(1) 직무만족도

장애인고용패널조사 5차년도 조사에서 일자리에 대한 직무만족도는 12개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만족도의 정도에 따라 매우 불만족(1점), 불만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에 답을 할 수 있다.

직무만족도의 항목들 중 의사소통/대인관계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임금/소득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이에 임금근로 장애인들은 직장내에서 동료들과의 상호작용을 중요시 여기며 만족하는 반면에 낮은 임금에 대해서는 불만족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 직무만족도 항목

직무만족도 항목	평균	표준편차	빈도
1. 임금/소득	2.74	.78	1094
2. 취업의 안정성	3.05	.77	
3. 일의 내용	3.15	.67	
4. 근로환경	3.09	.72	
5. 근로시간	3.13	.73	
6. 개인의 발전가능성	2.95	.67	
7. 의사소통/대인관계	3.34	.65	
8. 인사고과 공정성	3.10	.56	
9. 복리후생	2.85	.85	
10. 교육훈련기회	2.88	.64	
11.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	3.09	.63	
12. 전반적 만족	3.12	.62	

2) 독립변수

(1) 일상생활만족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5차년도 조사에서 일상생활만족도는 패널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정도를 총 9문항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만족도의 정도에 따라 매우 불만족(1점), 불만족(2점), 보통(3점), 만족(4점), 매우 만족(5점)에 답을 할 수 있다.

아래 [표 2]의 일상생활만족도에 의하면, 임금근로 장애인들은 가족 관계, 결혼생활, 친구에 대한 일상생활만족도의 평균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자신의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임금근로 장애인들은 평균적으로 풍족하며 물질적으로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일상생활에서의 관계 속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에 대한 만족을 크게 느끼며,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강한듯하다. 임금근로 장애인들이 답한 다른 항목들의 평균 분포는 크게 다르지 않은 반면에 건강상태의 표준편차는 .84로 비교적 큰 편이다. 임금근로 장애인들이 다양한 장애상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가 큰 것으로 생각된다.

(2) 자아존중감

장애인고용패널조사의 5차년도 조사에서 자아존중감은 패널들의 생각을 10개 문항 (Rosenberg Self-Esteem Scales: RSES)으로 조사형 자아존중감을 측정한 것이다. 원래는 5점 척도였으나 장애인고용패널 조사에서는 4점 척도로 변형을 하여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대체로 그렇지 않다 (1점), 보통이다 (2점), 대체로 그렇다 (3점), 항상 그렇다 (4점)와 같이 답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래 [표 2]를 보면, 가장 평균이 높았던 자아존중감 항목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이고, 반면에 자신이 좋지 않은 사람이란 생각의 항목이 가장 낮았다. 임금근로 장애인들은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편이다.

[표 2] 독립변수 일상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항목

구분	항목	평균	표준편차	빈도
일상생활 만족도	1. 가족 관계 만족도	3.64	.61	1094
	2. 친구 관계 만족도	3.55	.62	
	3. 살고 있는 곳 만족도	3.41	.67	
	4. 건강상태 만족도	3.06	.84	
	5. 한 달 수입 만족도	2.71	.79	
	6. 여가활동 만족도	2.97	.69	
	7. 현재 하는 일 만족도	3.19	.65	
	8. 결혼생활 만족도	3.51	.61	
	9. 전반적 일상생활 만족도	3.22	.58	
자아 존중감	1.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다고 생각	2.71	.74	1093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	2.71	.70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낌	1.47	.68	
	4.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일을 잘 한다	2.80	.78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1.94	.76	
	6.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이다	2.81	.68	
	7.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2.57	.74	
	8. 내 자신을 좀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2.50	.68	
	9.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 느낌	1.39	.65	
	10.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	1.35	.58	

3. 자료 분석방법

본 연구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SPSS 21.0 통계 패키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2012년 제5차 장애인 고용 패널 데이터 중 임금근로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일자리요인, 사회심리요인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고, 이들 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또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데 목적으로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요인, 일자리요인, 사회심리요인, 직무만족도 변수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분포를 알기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알아보는 기술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 자아존중감, 일상생활만족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문항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요인, 일자리요인, 사회심리요인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test와 one way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임금근로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요인, 일자리요인, 사회심리요인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상관분석과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사회심리요인들과 다른 변인들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코딩

구분		변수명	변수측정 방법
종속변수		직무만족	리커트5점 척도 12문항
독립 변수	인구사회학적 요인	성별	2개 성별
		연령	개방형
		장애유형	4개 유형
		장애등급	6개 장애등급
		최종학력	5개 최종학력
	일자리 요인	일자리 종류	일자리 종류 2문항
		임금	개방형
		현재 주업 종사상 지위	종사상 지위 1문항
		정규직 여부	정규직 여부 1문항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	리커트 5점 1문항
	심리사회 요인	자아존중감	리커트 4점 척도 10문항
		일상생활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 9문항

IV. 연구 결과

1. 인구사회학적 요인의 기술 통계

1) 성별

5차년도 본조사의 1,094명 임금근로 장애인의 성별은 남성이 전체 패널의 793명(72.5%), 여성이 301명(27.5%)을 차지했다. 임금근로를 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 3배에 이른다.

성별 비율은 전체 장애인 패널 총 4,297명 중 남성이 2,674명(62.2%), 여성이 1,623명(37.8%)을 차지했다. 이는 시스템 결측값 795명(15.6%)을 제외한 값이다. 여기서 성별의 차이는 약 20%로 임금근로 장애인의 성별 차이의 절반 밖에 안 된다. 따라서 조사된 패널의 성별 불균형을 고려하더라도 여성의 임금근로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다.

2) 연령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1,094명의 평균 연령은 약 53.90세 (표준편차 11.24세)였다.

연령대에서 50대가 전체의 413명(37.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40대가 전체 패널의 287명(26.2%), 60대가 218명(19.9%), 30대가 117명(10.7%), 20대가 51명(4.7%), 70대가 8명(0.7%) 순으로 많았다.

3) 최종학력

임금근로 장애인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전체의 37.9%인 415명, 초등학교 졸업이 242명(22.1%), 중학교 졸업이 195명(17.8%), 대학교 졸업이상의 임금근로 장애인이 158명(14.4%), 무학은 84명(7.7%)으로 많았다.

4) 장애유형과 등급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장애유형은 신체외부장애가 전체의 680명(62.2%)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감각장애가 321명(29.3%), 정신적 장애가 48명(4.4%), 신체

내부 장애가 45명(4.1%)순으로 많았다.

임금근로 장애인의 장애등급은 6급이 전체 패널의 299명(27.3%)으로 가장 많았고, 3급이 230명(21.0%), 5급이 217명(19.8%), 4급이 179명(16.4%), 2급이 130명(11.9%), 1급이 39명(3.6%) 순으로 많았다. 전체 패널들의 분포에서는 3급이 18.9%로 가장 많았고, 2급이 16.1%, 6급이 14.5%, 5급이 12.7%, 4급이 12.5%, 1급이 9.8% 순으로 높았다. 이는 장애등급이 낮을수록 취업하기가 유리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급의 취업률도 높은 듯했고, 임금근로 장애인과 전체 분포 모두 골고루 분포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일자리요인의 기술 통계

1) 일자리 종류

일자리 종류는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가 820개(75.0%)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 창출 일자리가 68개(6.2%), 정부 외 공공기관이 54개(4.9%), 정부기관 50개(4.6%), 법인단체가 48개(4.4%),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29개(2.7%), 시민종교 단체가 15개(1.4%), 기타 7개(0.6%), 외국인 회사 3개(0.3%) 등의 순서로 많았다.

2) 임금

월평균 임금은 100~200만원(36.7%) 그리고 51~100만원(35.7%)이 비슷한 비율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1~50만원(14.1%), 200~300만원(9.0%), 300~400만원(2.8%), 400~700만원(1.6%) 순으로 많았다.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월평균 임금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3) 정규직 여부 및 현재 주업 종사상 지위

정규직 여부에서 비정규직이 698명(63.9%)인 반면에, 정규직은 394명(36.1%)에 그쳤다. 안정성과 관련이 있는 구체적인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현재 주업 종사상 지위는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25.7%인 450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노점제외)가 438명(25.0%), 임시근로자가 346명(19.7%), 일용근로자가 298명

(17.0%), 무급가족종사자가 119명(6.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노점)가 53명(3.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49명(2.8%) 순으로 많았다.

4) 대인관계/조직적응

임금근로 장애인의 대인관계/조직적응 능력에 대하여 살펴보면, 잘하는 편이라고 대답한 임금근로 장애인은 460명(42.0%), 보통임은 427명(39.0%), 못하는 편임은 129명(11.8%), 매우 잘함은 43명(3.9%), 전혀 못함은 35명(3.2%) 순으로 나타나 임금근로 장애인들은 대인관계/조직적응 능력을 비교적 잘하는 편으로 조사되었다.

3. 심리사회 요인 척도항목의 특성

1) 일상생활만족 척도항목의 특성과 요인

일상생활만족도의 척도는 모두 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일상생활만족은 복합적으로 가족, 친구, 사는 환경 등을 통해 느끼는 것이며, 눈에 보이는 영향력 보다는 장애인을 둘러싼 일상적인 환경들로부터 얻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만족도는 높게 나타난다. 9개의 항목들 모두 만족도가 높게 조사되었지만 수입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비율이 가장 큰 응답은 매우 만족이 전체의 47.5%과 그 다음으로 불만족이 전체의 32.4%로 대답한다. 이것은 수입에 대하여 느끼는 차이가 임금근로 장애인들 사이에서 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상생활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일상생활만족도 척도의 특성과 요인

척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매우 만족	보통	만족
1. 가족	4(0.4)	26(2.5)	350(33.1)	643(60.8)	35(3.3)
2. 친구	5(0.5)	38(3.5)	414(38.2)	605(55.8)	22(2.0)
3. 살고 있는 곳	7(0.6)	71(6.5)	504(46.1)	494(45.2)	18(1.6)
4. 건강상태	28(2.6)	259(23.7)	439(40.1)	355(32.4)	13(1.2)
5. 한 달 수입	64(5.9)	354(32.4)	520(47.5)	151(13.8)	5(0.5)
6. 여가활동	20(1.8)	205(18.7)	659(60.2)	203(18.6)	7(0.6)
7. 하는 일	9(0.8)	114(10.4)	643(58.8)	319(29.2)	9(0.8)
8. 결혼생활	1(0.1)	20(2.8)	322(45.5)	345(48.7)	20(2.8)
9. 전반적	1(0.1)	77(7.0)	699(63.9)	311(28.4)	6(0.5)

2) 자아존중감 척도항목의 특성과 요인

자아존중감의 척도는 리커트 4점 척도의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결과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일을 잘 한다’,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이다’,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에 대한 문항에서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다른 문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문항별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자아존중감 척도 특성과 요인

척도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다고 생각	49(4.5)	357(32.7)	546(50.0)	141(12.9)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	35(3.2)	363(33.2)	575(52.6)	120(11.0)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느낌	690(63.1)	299(27.4)	98(9.0)	6(0.5)
4.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일을 잘 한다	541(49.5)	303(27.7)	195(17.8)	54(4.9)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504(46.1)	338(30.9)	235(21.5)	16(1.5)
6.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이다	594(54.3)	328(30.0)	153(14.0)	18(1.6)
7.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517(47.3)	412(37.7)	91(8.3)	73(6.7)
8. 내 자신을 좀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51(4.7)	512(23.2)	462(27.4)	68(38.6)
9. 가끔 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 느낌	759(69.4)	249(22.8)	78(7.1)	7(0.6)
10. 때때로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	769(70.4)	267(24.4)	57(5.2)	0(0)

4.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의 측정학적 특성

1) 직무만족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는 리커트 5점 척도의 총 1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문항의 순서와 내용은 제1문항 임금/소득, 제2문항 취업의 안정성, 제3문항 일의 내용, 제4문항 근로환경, 제5문항 근로시간, 제6문항 개인의 발전 가능성, 제7문항 의사소통/대인관계, 제8문항 인사고과 공정성, 제9문항 복리후생, 제10문항 교육훈련기회, 제11문항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 제12문항 전반적 직무만족도이다. 이러한 12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는 직무만족도 척도에서 조사 대상자 1,094명의 직무만족도와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문항 임금/소득, 제6문항 개인의 발전가능성, 제9문항 복리후생, 제10문항 교육훈련기회의 4개의 문항들은 공통적으로 만족도의 정도가 보통, 불만족, 만족, 매우 불만족, 매우 만족 순으로 컸다.

제2문항 취업의 안정성, 제3문항 일의내용, 제4문항 근로환경, 제5문항 근로시간, 제7문항 의사소통/대인관계, 제8문항 인사고과공정성, 제11문항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 제12문항 전반적 만족도 8개의 문항들은 공통적으로 만족도의 정도 중 보통, 만족, 불만족이 순서대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표 6] 직무만족 척도의 특성과 요인

척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 만족
1. 임금/소득	55(5.0)	339(31.0)	539(49.3)	157(14.4)	4(0.4)
2. 취업의 안정성	33(3.0)	178(16.3)	602(55.0)	264(24.1)	17(1.6)
3. 일의 내용	13(1.2)	125(11.4)	648(59.2)	298(27.2)	10(0.9)
4. 근로환경	18(1.6)	173(15.8)	604(55.2)	289(26.4)	10(0.9)
5. 근로시간	19(1.7)	166(15.2)	568(51.9)	333(30.4)	8(0.7)
6. 개인의 발전가능성	25(2.3)	188(17.2)	713(65.2)	157(14.4)	11(1.0)
7. 의사소통/대인관계	12(1.1)	57(5.2)	592(54.1)	415(37.9)	18(1.6)
8. 인사고과 공정성	11(1.0)	85(7.8)	785(72.1)	203(18.6)	5(0.5)
9. 복리후생	71(6.5)	261(23.9)	532(48.6)	217(19.8)	13(1.2)
10. 교육훈련 기회	41(3.8)	171(15.7)	767(70.3)	107(9.8)	5(0.5)
11.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수용정도	14(1.3)	116(10.6)	736(67.3)	214(19.6)	14(1.3)
12. 전반적	10(0.9)	117(10.7)	702(64.2)	259(23.7)	6(0.5)

5. 변인에 따른 직무만족의 수준

1)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만족차이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만족도가 높아져서 대졸이상이 가장 큰 직무만족도를 느낀다. 집단 간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졸이상과 고졸은 다른 학력들과 평균차이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하지만 고졸과 대졸이상의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직무만족도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무학, 초졸, 그리고 중졸의 직무만족도도 마찬가지로 평균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7] 최종학력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

요인	최종학력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Scheffe	
직무만족도	대졸이상	3.25	.53	158	21.30***	무학	.42***
						초졸	.33***
						중졸	.31***
						고졸	.13
	고졸	3.12	.46	414		무학	.29***
						초졸	.20***
						중졸	.17**
						대졸	-.13
	중졸	2.95	.42	194		무학	.12
						초졸	.03
						고졸	-.17**
						대졸	-.31***
	초졸	2.92	.46	241		무학	.09
						중졸	-.03
						고졸	-.20***
						대졸	-.33***
	무학	2.83	.46	82		초졸	-.09
						중졸	-.12
						고졸	-.29***
						대졸	-.42***

p<.01, *p<.001

2) 일자리 종류에 따른 직무만족차이

일자리 종류에 따른 직무만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장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는 시민 단체 및 종교단체 다음으로 정부 외 공공기관이 두 번째로 만족도가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직무만족도는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임금근로자이다.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부 외 공공기관과 민간회사 또는 개인사업체간의 평균차이, 그리고 정부의 공공기관과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 없음의 평균차이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일자리 종류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

요인	일자리 종류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직무 만족도	시민단체, 종교단체	3.38	.37	15	10.47***
	정부 외 공공기관	3.37	.51	54	
	정부기관(공무원, 군인)	3.32	.56	49	
	법인단체	3.26	.44	48	
	정부 또는 지자체 창출 일자리	3.13	.51	68	
	외국인회사	3.06	.10	3	
	민간회사 또는 개인 사업체	2.99	.45	817	
	기타	2.92	.66	6	
	특정한 회사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음	2.80	.51	29	

***p<.001

3) 현재 주업 종사상 지위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현재 주업 종사상 지위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상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순서로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근로시간에 따른 지위인 듯하며 항시 근로를 하며 얻는 안정적인 면들 때문에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큰 듯하다. 이들 간의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용, 임시, 일용근로자 세 집단 간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표 9] 현재 주업 종사상 지위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

요인	현재 주업 종사상 지위	평균	표준편차	빈도	F	Scheffe	
						종사상지위	평균 차이
직무 만족도	상용근로자	3.21	0.47	450	75.48***	임시	.16***
						일용	.41***
	임시근로자	3.04	0.43	346		상용	-.16***
						일용	.25***
	일용근로자	2.79	0.45	298		상용	-.41***
						임시	-.25***

***p<.001

4) 정규직 여부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

임금근로 장애인의 정규직 여부에 따른 직무만족도가 비정규직에 비해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정규직이 비정규직 임금근로 장애인에 비해서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정규직의 경우에는 고용의 안정성과 질이 비정규직에 비해 나올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

[표 10] 정규직여부에 따른 직무만족 차이

요인	정규직여부	평균	표준편차	빈도	t
직무만족도	정규직	3.22	.46	393	9.24***
	비정규직	2.95	.46	694	

***p<.001

6. 직무만족에 미치는 연구 요인들의 영향력과 상호관계

1) 최종학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최종학력(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최종학력을 집단별로 변환시킨 다음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초졸, 중졸, 고졸, 대졸 이상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변수 네 개를 독립변수로 설정한 뒤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고졸과 대졸 이상만이 0.1% 수준에서 유의했다.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계산 F 통계 값은 21.30으로 통계적으로 0.1% 수준

에서 유의미하였다. 이 분석 모형의 전체 분산의 설명력은 7.3%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고졸과 대졸은 직무만족에 기여하지만, 중졸과 초졸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 변수 적률 상관값과 회귀분석에서의 베타 크기가 다소 상이한 고졸과 대졸이상에서는 독립변수들 사이에 상관의 크기가 반영된 것이다. 이들 독립변수들 사이의 유의미한 관계가 표준화 베타 크기를 확대시킨 것이다.

[표 11] 최종학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직무만족				
	B	표준오차	표준화베타	t	P
상수	2.83	.05		55.34	.000
초졸	.09	.06	.08	1.53	.129
중졸	.06	.03	.09	1.90	.082
고졸	.10	.02	.29	5.13	.000
대졸 이상	.11	.02	.31	6.68	.000
모델계수	R Square=.07, Adjusted R Square=.07, F=21.30***				

*p<.05, **p<.01, ***p<.001

2) 임금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임금근로 장애인의 임금을 6개의 범주로 나누고 난 후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0.1% 수준에서 유의했다. 회귀모형의 접합도를 나타내는 계산 F 통계 값은 111.23으로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 분석 모형의 전체 분산의 설명력은 9.0%로 나타났다. 즉, 임금이 높아질수록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2] 임금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직무만족				
	B	표준오차	표준화베타	t	P
상수	2.68	.04		72.22	.000
임금	.14	.01	.31	10.55	.000
모델계수	R Square=.09, Adjusted R Square=.09, F=111.23***				

*p<.05, **p<.01, ***p<.001

3) 정규직 여부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정규직 여부(정규직, 비정규직)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규직여부 변수를 정규직이라고 대답한 집단으로 변환시킨 다음에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0.1% 수준에서 유의했다. 회귀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계산 F 통계 값은 86.0으로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 분석 모형의 전체 분산의 설명력은 7.3%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가 정규직일수록 직무만족도가 커진다는 기존의 많은 선행연구들과 연구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13] 정규직여부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직무만족				
	B	표준오차	표준화베타	t	P
상수	2.95	.02		167.947	.000
정규직 여부	.27	.03	.27	9.274	.000
모델계수	R Square=.073, Adjusted R Square=.072, F=86.00***				

*p<.05, **p<.01, ***p<.001

4) 대인관계/조직적응력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직무만족도를 종속변수로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계산 F 통계 값은 119.01로 0.1% 통계적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 분석 모형의 전체 분산의 설명력은 10%로 나타났다. 즉, 대인관계 및 조직적응력이 좋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14]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직무만족				
	B	표준오차	표준화베타	t	P
상수	2.46	.06		44.16	.000
대인관계/ 조직적응능력	.18	.02	.31	10.91	.000
모델계수	R Square=.10, Adjusted R Square=.10, F=119.01***				

*p<.05, **p<.01, ***p<.001

5)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¹⁾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0.1% 수준에서 유의했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계산 F 통계 값은 116.31로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 분석 모형의 전체 분산의 설명력은 18%로 나타났다. 직무만족도 상승에 대하여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부정적인 역할을 하며,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듯, 장애인의 일자리의 질이 낮음에 따라 자신에 대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신과 직무에 대한 불일치성 및 근무에 있어서 회의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15] 자아존중감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직무만족				
	B	표준오차	표준화베타	t	P
상수	2.32	.11		20.69	.000
긍정적 자아존중감	-.10	.03	-.10	-3.20	.001
부정적 자아존중감	.33	.03	.36	11.05	.000
모델계수	R Square=.18, Adjusted R Square=.18, F=116.31***				

*p<.05, **p<.01, ***p<.001

6) 일상생활만족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일상생활만족도²⁾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0.1% 수준에서 유의했다. 또한 회귀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계산 F 통계 값은 345.72로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이 분석 모형의 전체 분산의 설명력은 39%로 나타났다. 즉, 임금근로 장애인이 하는 일, 임금과

1) 장애인고용패널의 자아존중감 문항은 10개로, 본 연구에서는 요인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배리맥스법(varimax rotation)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요인 1(긍정적 자아존중감)과 요인 2(부정적 자아존중감)로 축소되었다. 요인 1에는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의 성품은 좋다', '다른 사람과 일을 잘 한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다', '내 자신에 대체로 만족한다', '나를 좀 더 존경하고 싶다'의 문항이 포함되었고, 요인 2에는 '난 대체로 실패한 사람이다',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가끔 내가 쓸모없다', '가끔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 느낀다'의 문항이 포함된다.

2) 장애인고용패널의 일상생활만족도 문항은 9개로, 본 연구에서는 요인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배리맥스법(varimax rotation)을 활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공통적으로 요인 1(사회적 요인)과 요인 2(관계 및 환경적 요인)로 축소되었다. 요인 1에는 '건강상태', '한 달 수입', '여가활동', '하는 일', '전반적 만족도' 문항이 포함되고, 요인 2에는 '가족', '친구', '살고 있는 곳', '결혼생활' 문항이 포함된다.

같은 사회적인 일상생활만족도가 결혼생활, 친구 등과 같은 관계 및 환경적 일상생활만족도 보다 직무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표 16] 일상생활만족도가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직무만족				
	B	표준오차	표준화베타	t	P
상수	1.14	.08		14.91	.000
사회적 요인	.54	.02	.59	23.88	.000
관계 및 환경적 요인	.06	.01	.11	4.42	.000
모델계수	R Square=.39, Adjusted R Square=.39, F=345.72***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점차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을 위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일자리의 중요성과 양적인 팽창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이 인구사회학 및 일자리 요인에 집중되었던 반면 본 연구는 장애인 개인과 사회적 요인들을 고려한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을 함께 분석하고자 하였다. 장애 인구의 경제활동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근로 인구사회학적, 일자리, 심리사회적인 요인과 직무만족도를 세부적으로 파악하고, 세 가지 요인들과 직무만족에 대한 상호관계와 영향을 알아봤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향후 임금장애인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재활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향후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고용패널 조사 데이터 중 2012년의 제5차 본조사 자료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임금근로 장애인 1094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금근로자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중에서는 최종학력이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고학력일수록 큰 직무만족도를 느꼈다. 일자리 종류는 개인사업체가 가장 많았으나, 시민·종교단체 또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종사상 지위와 정규직 여부 중에서는 상용근로자와 정규직의 직무만족도가 가장 컸다. 하지만 불안정한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빈도가 매우 높았으며, 비정규직의 빈도도 정규직의 두 배로 장애인의 불안정한 일자리의 질을 보여줬다.

둘째,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인인 사회심리 요인들은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그리고 일상생활만족도로 이루어진다.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에 가장 많이 동의했으며, 가끔 내가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응답에 가장 적게 동의했다. 이처럼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자아존중감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편이었으며, 연구에서는 두 가지 요인인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요인들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다.

일상생활만족도의 경우에는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으며, 한달 수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일자리의 질이 좋지는 않지만 자신의 환경과 가까운 상호관계 속에서 임금근로장애인들의 전반적인 일상생활만족도는 평균이었다. 연구에서는 두 가지 요인인 사회적인 만족도와 관계 및 환경적 만족도로 나누어서 분석을 했다.

대인관계/조직적응능력에 대해서는 잘하거나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이 약80%로 임금근로 장애인들은 조직 내에서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으며 즐기는 것으로 보였다.

2. 제언

본 연구에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현재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재활 현장에 종사하는 관련 종사자들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효율적인 직무와 생산성을 위해서는 근로를 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효율적인 직업재활을 위해서 장애인 근로자가 직접 느끼고 겪는 일자리의 질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이해가 필요하다. 이는 근로를 하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일자리 및 개인의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을 더욱 자세히 분석할 수 있다.

둘째,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총체적으로 들여다 보기 위해서는 개인이 가정, 일등 다양한 사회환경 속에서 가지는 대인관계, 자아존중감, 일상생활만족도를 더욱 다양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심층면접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세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러한 추가적인 분석들을 위해서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일자리와 일자리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경우 개인 및 민간 사업체가 가장 큰 비율의 임금근로 장애인들이 근무하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오히려 시민·종교단체 또는 공공기관 근로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은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자료들이 축적됨에 따라 향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학력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향상은 있지만 대졸이상과 고졸 그리고 저학력간의 직무만족도가 유의미하게 차이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장애인 일자리가 많이 제한적이며 하는 직무들이 비슷한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장애인의 일자리의 질 뿐만

아니라 다양화는 중요한 문제이다. 일자리들을 더욱 다양화시킴으로써 장애인 개인의 적성 및 능력과 부합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들은 향후 근무시 직무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욱 구체적인 일자리 조사가 실행되어야 하며 이는 더욱 많은 기관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보고서등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일자리 특성들 보다 선행연구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었던 심리사회적 요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외적 특성을 주로 분석했다. 하지만 직무환경 및 복리후생 그리고 배려와 같은 자세한 직무관련 요인들을 추가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도를 더욱 다양하게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직무요인들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2012년 근무하는 임금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를 통해 향후 일자리 질 향상과 근로 장애인들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직무만족도에 관련된 변인들의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진다.

첫째, 장애인 고용 패널 데이터가 1차에서 5차까지 배포된 상태이므로 종단적 연구 외에도 횡단적 연구를 통하여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직무만족도 및 관련 변인들의 변화 양상 및 더욱 구체적인 현상들을 살펴 볼 수 있겠다.

둘째, 장애인고용패널 데이터 외에도 다른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연구에서 사용되는 변수들과 분석방법들을 통하여 임금근로 장애인들의 인구사회학적, 일자리, 사회 심리적 요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셋째, 여러개 의 항목들로 이루어진 직무만족도, 일상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한 분석과 설명을 하지 못하였으며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들이 제한적이었다. 다양한 관점과 변인들을 통한 임금근로 장애인들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넷째, 직무만족도와 이직간의 상관관계를 언급했지만 실질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용하지 못했다. 임금근로 장애인이라는 특정적인 연구 대상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직무만족도와 이직 그리고 더불어 임금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듯하다.

■ 참고문헌

- 강도명 (2013).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종사자의 직무만족도와 이직의도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명환 (2009). 우정사업종사원의 이직의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한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복일 (2005). 외식업체 종사원의 직무만족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나운환, 김지민 (2012). 고등교육기관의 적절한 배려가 장애 대학생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1(2), 113-137.
- 문필동, 이정화 (2012). 장애인근로자의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한국직업재활학회. 22(2), 77-96.
- 박선영 (2010).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 11(1), 60-76.
- 박자경 (2009). 장애인 삶의 만족도 모형 구축 및 검증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박사학위 논문.
- 방하남, 김상욱 (2009). 직무만족도와 조직몰입도의 결정요인과 구조분석. 한국 사회학. 43(1), 56-88.
- 서동수 (2001). 관광호텔 Front Desk Agent의 직무만족에 관한 실증연구. 관광경영연구. 82, 33-53.
- 양수정, 최종철, 김호진, 고제훈 (2013). 제5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12년). 성남: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유동철 (2000). 여성지체장애인에 대한 이중차별 분석. 사회복지연구. 15, 73-108.
- 유종해 (1988). 현대조직관리. 서울: 박영사.
- 이동영, 이정주 (2007). 장애인 근로자의 직무만족에 대한 조직효과분석. 사회 보장연구. 23(1), 177-203.
- 이운식 (2010). 장애인 고용의 질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은정 (2009). 장애인근로자의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채식, 김명식 (2012). 근로 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심리사회적 변인에 관한 연구. 장애와 고용. 22(1), 29-54.
- 장영석, 류정진, 김호진, 임미화, 전상철, 황수정, 이상원(2009).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실태 조사. 성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 정재호, 이병희(2004), 고용 유연화가 기업의 훈련투자에 미치는 영향. 노동정책연구, 4(4), 21-43.

- 주석진, 한성덕 (2010). 근로형태에 따른 장애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직무만족도 차이. 장애와고용. 20(3), 47-74.
- 차세영 (2010). 보호고용된 정신장애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채민혜 (2012).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이슬 (2012). 장애인의 취업 및 임금수준 관련 요인 탐색 :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dams, J. S. (1965). Inequity in social exchange. *Social Psychology*, 62(1), 335-343.
- Alderfer, C. P. (1972). *Existence, Relatedness and Growth*. New York : The Free Press, 124-150.
- Altimus, C. A., & Tersine, R. J. (1973). Chronological age and job satisfaction: The young blue collar worker.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16, 53-66.
- Fisher, C. D. (2000). Mood and Emotions While Working: Missing Piece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1(2), 185-202.
- Javonic, B. (1979). Firm-specific capital and turnover. *Journal of Politics Economy*, 97, 1246-1260.
- Locke, E. A. (1976). *The nature and cause of job satisfaction*. New York : Rand and McMally Co.
- McCormick, E. J., Ilgen, D. R. (1980). *Industrial Psychology*.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 Mobley, W. H. (1982). Employee turnover, causes, consequences and control, reading. *Addison-Welsey Bulletin*, 86, 493-522.
- Mottaz, C. J. (1988). Work satisfaction among hospital nurses. *Hospital and health Services Administration*, 33, 57-74.
- Mowday, R. T., Steers, R. M., & Porter, L. W. (1979). The measurement of organizational commitment.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4, 223-247.
- Seashore, S., & Taber, T. (1975). Job Satisfaction Indicators and Their Correlate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18), 333-368.
- Smith, H. C. (1955). *Psychology of industrial behavior*. New York: McGraw-Hill.
- Spence, A. M. (1974). *Market Signaling: Informational Transfer in Hiring and Related Screening Process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Vroom, V. H. (1964).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John Wiley and Stone.
- Williamson, D. A. (1996). *Job Satisfaction in Social Securitie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A Study of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Job Satisfaction of Wage Workers with Disabilities

Park, Mi Rang

(Daeg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quality of employment of the disabled people. The study used 1,094 cases of the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PSED) 5th(2012) data to examine the general, vocational, psychosocial, job satisfaction factors of the wage workers with disability. Also it examines the effects of these three factors on the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showed highest percentage among the male, 50s, highschool graduates, external physical disability for the general factors. The vocational factors were highest among private work places, wage less than 2,000 thousand won, temporary job, workers with good workplace adaptability. The psychosocial factor was separated into daily life satisfaction and self-esteem. The daily life satisfaction was divided into 9 sections and the income section showed the highest percentage. The percentage of negative self-esteem was highest among the wage workers. Second, the job satisfaction was divided into 12 sections and the highest percentage of wage workers answered average amount of satisfaction, and there were regular distribution among the not satisfied and satisfied answers. Third,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However, the average job satisfaction of the high school and college graduate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e civil and religious jobs showed the highest job satisfaction and the wage workers without an affiliation showed the lowest job satisfaction. The job position and permanency had an positive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Forth, the high school and college graduates were the only sections among the highest level of education that had an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The high wage, permanency, good adapta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However, the positive self-esteem lowered the job satisfaction. The daily life satisfaction was divided into social(work and wages, etc) and the environment(family, friendship, etc). The social part showed a higher ef-

fect on the job satisfaction a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level.

Based on such analysis results, the general, vocational, psychosocial variables have an significant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in a comprehensive way. In future research, these variables should be considered in different way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employment of the workers with disability.

■ **Key words** : Job Satisfaction, Quality of Employment, Worker with Disability, General, Vocational, Psychosocial Variables

논문투고일 : 2016. 10. 27

논문심사일 : 2016. 12. 07

게재확정일 : 2016. 12. 21

장애인복지 연구 제7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7, No. 2, 71-108

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이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장애인의 요리기술에 미치는 효과

동국대학교 김 영 준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이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장애인의 요리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정서장애 특수학교의 전공과 과정을 졸업한 이후 비고용의 상태로 1~1.5년째 일반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하다가 그룹홈에 입주한지 5~6개월째 된 자폐성장장애인 세 명이 연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실험 환경은 연구 대상이 거주하고 있는 그룹홈 내 주방과 학습실을 비롯하여 식당사업체 내 주방으로 구성되었다. 실험 설계는 단일대상연구의 기법 중 한 가지인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 설계를 사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실험 조건은 기초선, 중재, 유지로 구성되었다. 독립변인인 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은 자폐성장장애인이 그룹홈 내 주방에서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시청하는 가운데 요리기술 수행을 위한 음식재료·도구를 점검하고 연이어 요리기술을 행동시연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또한, 자폐성장장애인이 매 수행평가 회기마다 요리기술 수행에 대해 나타낸 결과를 수행기록일지로 작성하고 그 작성된 수행기록일지를 어머니로부터 피드백을 제공받는 절차 역시 포함되었다. 종속변인인 요리기술은 자폐성장장애인이 실제 창업현장인 식당사업체 내 주방에서 한식의 일종인 김치찌개 끓이기 기술로써 조작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과제분석을 통해 총 10가지의 하위 단계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연구 대상들은 중재프로그램의 적용을 통해 목표행동을 효과적으로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 대상들은 중재프로그램이 종료된 이후 3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중재를 통한 목표행동의 최종 효과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적용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갖는 기능적 의의를 중심으로 논의 및 제언하였다.

주제어 : 어머니 모델링,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 그룹홈, 요리기술, 자폐성장장애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부모들이 그룹홈에 대해 갖는 기대와 가치는 자폐성 장애자녀가 성인생활 일과에 대한 전반적인 자립능력을 개발하고 향후 직업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있다(유정현, 2009; Wehman et al., 2014). 이러한 부모들의 기대는 다양한 비전과 요구 속에서 비롯되나, 부모가 자폐성 장애자녀와의 공동창업을 통해 자폐성 장애자녀의 직업생활을 보다 분명하고 현실적으로 실현하려는 의도와 관련이 깊다(김영대, 2001; Dymond, 2004). 이렇게 부모가 자폐성 장애자녀와 공동창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폐성 장애자녀가 학교 졸업 후 취업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취업이 되었더라도 직장생활에 적응하거나 직장생활을 장기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갖기 때문이다(나용기, 2014; 박혜성, 안의정, 이소현, 이숙향, 2014; Sitlington et al., 2007). 특히, 부모와의 공동창업은 자폐성 장애자녀가 학교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가정에서의 고립이나 의존 성향을 크게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역시 성인기 연령에 놓인 자폐성 장애자녀의 의식주 생활 요구에 적합한 양육행동과 관련 부담감을 긍정적으로 조절해 나감으로써 가족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준다(김삼섭 외, 2013; 김영준, 강영심, 2013a; Cronin, Patton, & Wood, 2007). 이에 따라, 부모는 자폐성 장애자녀가 그룹홈 교육과정을 통해 전반적인 자립생활능력과 직업생활의 기초능력을 개발하였을 때 계획한 창업직무를 중심으로 자폐성 장애자녀의 구체적인 직업생활을 모색하고 실천한다.

자폐성 장애자녀와 공동창업을 계획하는 부모의 경우 창업직무에 대한 동기와 전문적인 수행역량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훈련에 대한 참여와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이원희, 2010). 자폐성 장애자녀가 훈련프로그램을 통해 창업직무를 습득하더라도 부모와 함께 실제로 공동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창업직무에 대한 전문성이 보다 높거나 먼저 창업을 계획한 부모가 요구하는 창업직무의 수행 내용이 명확히 반영되어야 한다(조성열, 김백수, 2005; 조희용, 1999). 이러한 측면에서, 부모는 창업직무에 대한 직무분석(job analysis)의 전문성에 근거하여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을 돕고 지도할 수 있다. 부모가 그룹홈에서 자폐성 장애자녀의 제반 교육훈련을 지도하고 있는 특수교

육전문가에게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훈련을 의뢰할 때 직무분석은 주요 토대가 된다(김백수, 2007; 김형일, 2013; Chapper & Somersb, 2010). 그리고 부모는 창업직무의 분석에 대한 구성 내용을 토대로 특수교육전문가와 상호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전문가의 조언을 통하여 자폐성 장애자녀가 창업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적응 스타일을 점진해 나갈 수 있다(남민, 2002; 정은혜, 2015; Greene & Kochhar-Bryant, 2003). 이에 따라, 부모는 최종적으로 자폐성 장애자녀에 중심을 두어 창업직무의 수행 내용을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으며 실제 창업을 위한 직무분석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부모가 창업을 위한 직무분석에 대해 권한과 역량을 반영하는 것은 창업직무의 수행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숙지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부모는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에 대해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박병숙, 2008; 서경희, 2014; Prater, 2007). 이는 부모가 자폐성 장애자녀와의 공동창업을 위한 직무계획 뿐 아니라, 동업 대상자인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을 위하여 교수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는 관점을 포함한다(김영준, 강영심, 2013b; 조인수, 2009; 황복선, 2006; Westling & Fox, 2009). 비록 부모가 직무분석의 차원에서 창업세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을지라도 특수교육 교수·학습 실제의 활용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김경호, 2012; 윤수용, 2015; Heward, 2006). 더구나, 자폐성 장애자녀가 부모와의 공동창업을 위하여 창업직무의 수행 내용을 단순한 모방이나 신체적 촉진으로만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부모는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인지나 학습성향에 적합한 여러 교수·학습 기술들을 활용해야 하는 역량이 요구된다(이숙향, 송은주, 이소현, 2012; Dunn et al., 2009). 이에 따라, 부모는 특수교육전문가와의 상호간 협력을 통하여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에 대해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기술들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소현 외, 2014; Mercer, Mercer, & Pullen, 2011). 특별히, 부모는 특수교육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과 관련하여 활용 가능한 교수·학습기술들의 목록차트를 작성할 필요가 있고(박지연, 2012; 방명애, 2000; Sze, 2009), 우선순위에 의해 기록된 몇몇 교수·학습기술들을 중심으로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에 대하여 교수자로서 참여하는 범위 및 역할을 특수교육전문가와 협의해야 한다(조인수, 정금자, 도명애, 2013; McDonnell & Hardman, 2011). 또한, 부모는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에 활용할 교수·학습기술이나 교수자로서의 역할 정도를 결정할 때 현재 자폐성 장애자녀가 속한 그룹홈 장면이나

창업직무 관련 사업체의 장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전문가와 함께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의 맥락이나 절차 역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폐성 장애자녀와의 공동창업을 계획·준비하고 있는 부모가 창업직무의 수행 내용을 숙지하고 있을 경우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에 대해 모방(modeling)의 교수·학습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박혜진, 2013; 이은주, 김영태, 2009; Beakley, Yoder, & West, 2003). 부모는 직무분석 원리에 기초하여 창업직무의 수행을 단계별로 조직화함으로써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에 대해 모방기술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모방기술은 부모가 자폐성 장애자녀에게 직접적인 대면에 의해 창업직무의 수행 장면들을 보여주는 방식을 비롯하여 컴퓨터나 스마트기기 등의 시청각적 매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방식 역시 포함한다(강지혜, 이영선, 2014; 왕미, 2013; Benitez, Lattimore, & Wehmeyer, 2005). 특히, 부모가 창업직무의 수행 내용을 숙지하고 있는 가운데 모방기술을 통해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을 지도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또는 자폐성 장애자녀가 그룹홈 환경에서 창업직무를 습득해야 하는 경우라면 간접적인 모방기술이 직접적인 모방기술에 비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유승연, 2012; Mann, 2005). 이렇게 부모가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을 위해 간접적인 모방기술을 실행할 수 있는 예는 비디오 모델링이 대표적이다(김영준, 강영심, 2013b; 이현진, 2006; 홍주희, 이숙향, 2016; Heward, 2006).

부모가 직접 참여하여 제작한 학습교구이면서 부모의 창업직무 수행 장면들이 포함된 비디오 모델링은 우선 그룹홈 환경의 시공간적 특성에 적합한 교수기술이다(신현희, 최연우, 김수진, 김경미, 2014; 조선경, 2009). 그리고 부모는 그룹홈에서 자폐성 장애자녀를 지도하는 특수교육전문가와 함께 협력하여 자신의 창업직무 수행 장면이 연출된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제작함으로써, 간접적인 교수자의 위치에서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을 지도하고 특수교육전문가가 그룹홈에서 자폐성 장애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을 지도하는 데 도움의 구실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교육전문가는 부모가 참여하여 제작한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그룹홈의 장면에서 우선적으로 참조하는 가운데 연계적인 보충학습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이재욱, 2006; Dunn et al., 2009; Prater, 2007). 단적인 예로, 특수교육전문가는 그룹홈 장면에서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자폐성장애편과 함께 시청하는 과정에서 창업직무 수행에 대한 탐색활동이나 가상의 행동시연 등의 보충학습을 통하여 자폐성장애편의 창업직무 습득을 지도할 수 있다(김영준, 강영심, 2013b; 이숙향 외, 2012).

나아가서, 부모는 특수교육전문가가 그룹홈에서 활용하는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제작하는 데 참여하였으므로 자폐성 장애자녀가 창업직무 수행에 대하여 갖는 오반응이나 어려움에 대한 피드백을 특수교육전문가와 함께 제공할 수 있다(한동욱, 강민채, 2014; Mann, 2005; Test & Mazzotti, 2011). 자폐성 장애자녀의 입장에서 역시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스마트폰이나 패드를 통해 활용할 경우 그룹홈의 생활 장면에서 수시 간헐적으로 부모가 제공하는 모방기술을 참조하여 창업직무훈련에 대한 일상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이재욱, 강수균, 1998; McDonnell & Hardman, 2011; Sze, 2009). 종합적으로, 이상의 비디오 모델링의 자료는 그룹홈에 거주하는 자폐성 장애자녀와 부모, 특수교육전문가가 일관적으로 창업계획과 준비를 위한 직무 수행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부모가 자폐성 장애자녀와의 공동창업을 계획하는 직종이 요리기술(cooking skills) 부분에 해당된다면, 자폐성 장애자녀는 그룹홈 내에서 가상현실을 소재로 한 모의체험의 형태로 창업직무를 활발히 습득할 수 있다(김영준, 도명애, 2015; 박안순, 이봉선, 박계영, 2015; Westling & Fox, 2009). 그룹홈과 식당사업체 간에 환경적 구조나 특성은 다를 수 있으나, 자폐성장애폰이 요리기술을 수행하는 절차와 방법은 그룹홈과 식당사업체 간에 상호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이다(강효영, 2008; 정소정, 2016; Dahl, 1998). 이런 요리기술 수행의 속성은 그룹홈 내에서 간접적인 체험 위주의 비디오 모델링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측면과 연결되며, 자폐성장애폰은 비디오 모델링을 통해 그룹홈과 식당사업체 간에 일반화 효과를 추구하는 가운데 요리기술을 수행할 수 있다(박안순, 2014; Kristy et al., 2008). 이러한 측면에서, 그룹홈 내에서 적용되는 비디오 모델링은 자폐성장애폰이 창업을 위해 요리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 식당사업체로 직접 접근해야 하는 시공간적 부담을 최소화시킬 뿐 아니라, 식당사업체를 실제 창업 준비·실행을 위한 평가환경으로 비중을 두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자폐성장애폰의 요리기술 습득은 식당사업체 뿐 아니라 시공간적 활용성이 보다 자유로운 그룹홈에서 역시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비디오 모델링 뿐 아니라 이와 연계된 보충학습을 중재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덧붙여서, 요리기술은 부모가 다른 직종에 비해 자폐성 장애자녀와 공동창업을 준비하고 이행하는 데 수월한 직종인 것으로 나타난다(김영선, 2015).

현재까지 국내 특수교육학 분야에서 그룹홈에 거주하는 자폐성장애폰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공동창업을 위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을 적용한 사례나 이런 창업직무훈

련프로그램에 부모의 참여와 교구제작에 기반한 비디오 모델링을 중재 절차로 포함한 사례는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나타난다. 대개 자폐성장장애인을 비롯한 발달장애인의 창업지원의 이해와 필요성을 이론적 고찰 차원에서 강조한 선행연구(김백수, 2007; 조성열, 김백수, 2005)가 있고, 장애인의 창업성공을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방안들을 예시적인 차원에서 모색한 선행연구(김관호, 2013; 김백수, 박경순, 2008; 변충규, 성창수, 2012; 이금진, 2008; 이은경, 2008; 이원희, 2010)가 현존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서, 자폐성장장애인이 독립적으로나 부모와의 공동창업 차원에서 도전 가능하거나 희망 적합 직종이 구안되지 못한 실정이며, 또한 자폐성장장애인이 희망하는 창업직종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차원에서 적용되어야 할 훈련 프로그램 역시 거의 개발되지 못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국내 특수교육학 분야는 직업교육훈련 영역에서 자폐성장장애인의 창업 부분보다는 취업 부분에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난다(박희찬, 2016; 이숙향 외,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이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장애인의 요리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와 훈련프로그램은 그룹홈 등을 비롯한 평생교육현장에서 자폐성장장애인이 독립적인 창업이나 부모와의 공동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장애인은 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요리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효과는 얼마나 되는가?

둘째,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장애인은 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습득한 요리기술의 수행 효과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정서장애 특수학교 전공과 과정을 졸업한 이후 일반가정에서 비고용의 상태로 부모와 함께 1~1.5년째 지내다가 그룹홈에 거주한 지 5~6개월째 되는 세 명의 자폐성장애인이다. 이들은 현재 특별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가운데 그룹홈에서 머물면서 자립생활훈련을 학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단, 부모들은 연구 대상들이 1년 기간 동안 그룹홈에 거주하면서 주거나 여가 등의 자립생활훈련에 대한 효과를 축적한 후 부모와 함께 식당 창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부모는 그룹홈 담당 교사(사회재활교사)에게 연구 대상들의 식당 창업을 위한 요리기술 지도를 의뢰하였다.

〈표 1〉 연구 대상의 기초 정보

구분	연구 대상 A	연구 대상 B	연구 대상 C
연령 (성별)	22세 (남)	23세 (남)	22세 (남)
최종 학력	정서장애 특수학교 전공과	정서장애 특수학교 전공과	정서장애 특수학교 전공과
장애 유형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	자폐성장애
그룹홈 거주 경력	5개월	6개월	6개월
사회성숙 도	42	38	45
자폐평정 척도 (CARS)	37	35	40
대소근육 운동능력	일상적인 동작을 수행할 정도로 대소근육 운동협응이 자유로우나, 조립 등과 같은 미세한 손 움직임에는 지루해 하거나 인자상의 어려움을 보임.	대소근육 운동능력이 비교적 잘 발달되어 있으며, 걷기 등의 이동이나 물체 분류 등의 미세한 손 움직임이 자유로운 것으로 나타남.	일상생활 장면에서 대소근육 운동에 별다른 제약이 없으며, 물체 분류나 포장 등의 동작이 자유로움. 단, 눈손협응이 주의집중의 분산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나타남.

구분	연구 대상 A	연구 대상 B	연구 대상 C
직업기초 (자기 관리)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청결관리, 건강관리, 대인관계관리, 정서행동관리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주변의 도움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의존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청결관리, 건강관리, 대인관계관리, 정서행동관리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주변의 도움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의존함.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안전관리, 청결관리, 건강관리, 대인관계관리, 정서행동관리 등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주변의 도움이나 지원을 필요로 하거나 의존함.
의사소통	타인의 표현언어를 수용하여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할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나, 복잡한 문장이나 단어가 포함된 언어를 수용하는 데 다소 제한이 있음.	일상생활에서 부모나 또래들과 대체로 명확한 의미를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자신의 의사를 강조하고자 타인의 말을 잘 경청하지 않기도 함.	일상생활에서 부모와 또래에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언어를 구사하나, 발음 정확도나 타인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복잡한 문장의 말을 수용하는 데도 어려움.
요리 관련 흥미	일반가정에서 어머니가 주방에서 요리하는 장면을 쳐다보는 행동을 자주 보이며, 어머니와 휴일이나 방과 후에 식당(예: 한식 등)을 방문하여 식사하는 것을 좋아함.	컴퓨터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이 선호하는 음식들의 조리과정이나 이미지가 되어 있는 블로그를 자주 방문하며, 이와 관련해 부모나 형제와 이야기 나누는 것을 좋아함.	일반가정에서 평소 부모와 요리기술을 직접 수행하진 않았으나, 주방에서 어머니가 식사 준비를 위해 요리를 할 때 요리 수행 절차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예: 이것 뭐지? 등)하는 행동을 보임.
요리기술 현행 수준	일반가정이나 그룹홈에서 요리기술을 수행해 본 경험이 없음. 이에, 특정한 음식을 실제로 요리할 수 있는 수행 절차와 방법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며, 요리기술을 수행하는 데 주의해야 할 자기관리(예: 청결, 안전, 도구, 시간관리 등)에 대해서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단, 부모와의 공동창업을 위해 요리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일반가정이나 그룹홈에서 요리기술을 수행해 본 경험이 없음. 이에, 특정한 음식을 실제로 요리할 수 있는 수행 절차와 방법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며, 요리기술을 수행하는 데 주의해야 할 자기관리(예: 청결, 안전, 도구, 시간관리 등)에 대해서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단, 부모와의 공동창업을 위해 요리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일반가정이나 그룹홈에서 요리기술을 수행해 본 경험이 없음. 이에, 특정한 음식을 실제로 요리할 수 있는 수행 절차와 방법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며, 요리기술을 수행하는 데 주의해야 할 자기관리(예: 청결, 안전, 도구, 시간관리 등)에 대해서도 인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단, 부모와의 공동창업을 위해 요리기술을 습득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창업 희망 여부	희망	희망	희망

한편, 연구 대상들이 거주하는 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자에게 연구 대상들의 식당 창업을 위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에 대하여 협조를 의뢰하였고, 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자가 재직하고 있는 연구기관에서 5개월간(1주 당 1~2회, 1회기 당 2시간 내외) 「발달장애인의 재활자립을 위한 그룹홈 교육과정 운영 및 직업 지도 방안」에 대해 연수를 제공받은 경험이 있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 대상들이 현재 거주하는 그룹홈의 환경적 맥락을 고려하여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을 그룹

홈 담당 교사와 협력하여 개발하였고, 또한 연구자는 개발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룹홈 담당 교사와 연구 대상들의 어머니를 연구 참여자로 구성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기초 정보는 <표 2>, <표 3>과 같다.

<표 2> 연구 참여자의 기초 정보 1(‘그룹홈 담당 교사’ 편)

구분	교수자 A	교수자 B	교수자 C
성별(연령)	여(41세)	남(36세)	남(39세)
학력	학사	학사	학사
자격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1급
그룹홈 담당 경력	7년	4.5년	5년
창업 지도 경력	그룹홈에 거주하는 자폐성장장애인의 창업 이행을 위해 실제 창업직무훈련을 실제로 수행한 지도 경험은 없으나, 5개월간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장애인을 위한 창업 지도 실제에 대해 연수 받은 경험이 있음.	그룹홈에 거주하는 자폐성장장애인의 창업 이행을 위해 실제 창업직무훈련을 실제로 수행한 지도 경험은 없으나, 5개월간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장애인을 위한 창업 지도 실제에 대해 연수 받은 경험이 있음.	그룹홈에 거주하는 자폐성장장애인의 창업 이행을 위해 실제 창업직무훈련을 실제로 수행한 지도 경험은 없으나, 5개월간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장애인을 위한 창업 지도 실제에 대해 연수 받은 경험이 있음.
담당 학습자	연구 대상 A	연구 대상 B	연구 대상 C

<표 3> 연구 참여자의 기초 정보 2(‘어머니’ 편)

구분	어머니 A	어머니 B	어머니 C
연령	50세	49세	49세
학력	고등학교 졸업	전문대학교 졸업	전문대학교 졸업
직업	가사	가사	가사
창업 희망 직종	식당	식당	식당
창업 관련 연수 경험	자녀와의 공동창업을 위해 그룹홈이 소속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된 부모교육프로그램(장애인 취업-창업 지도)을 6개월 이수한 경험이 있으나, 자녀의 창업을 위해 자녀에게 창업직무를 습득시킨 지도 경험은 없음.	자녀와의 공동창업을 위해 그룹홈이 소속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된 부모교육프로그램(장애인 취업-창업 지도)을 6개월 이수한 경험이 있으나, 자녀의 창업을 위해 자녀에게 창업직무를 습득시킨 지도 경험은 없음.	자녀와의 공동창업을 위해 그룹홈이 소속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된 부모교육프로그램(장애인 취업-창업 지도)을 6개월 이수한 경험이 있으나, 자녀의 창업을 위해 자녀에게 창업직무를 습득시킨 지도 경험은 없음.
자녀	연구 대상 A	연구 대상 B	연구 대상 C

최종적으로, 본 연구는 연구 대상들과 연구 참여자들의 동의를 통하여 창업직무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2. 실험 환경 및 설계

1) 실험 환경

본 연구의 실험 환경은 크게 그룹홈 내 주방과 식당사업체 내 주방으로 구성되었다.

(1) 그룹홈 내 주방: 중재 환경

그룹홈 내 주방은 연구 대상들이 평소 그룹홈에서 식사하는 공간으로 요리 수행을 위한 싱크대 시설, 냉장고, 각종 조리도구, 식탁과 의자 등이 구비되어 있다. 공간 면적은 15평을 차지한다. 연구 대상들은 평소 그룹홈에서 직접 요리를 수행하여 식사준비를 하지 않으며, 그룹홈 내 조리원에 의해 준비된 음식을 통해 식사를 수행한다. 본 연구는 연구 대상들이 스마트 패드를 통하여 비디오 모델링의 중재 절차를 주방 내 식탁에서 적용함과 동시에 요리기술을 직접 시연하는 중재 절차를 상호 연합적으로 구성하였기 때문에, 그룹홈 내 주방에서 모든 중재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중재 절차를 위해 그룹홈 내 주방을 별도로 재구성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활용하였다.

특별히, 본 연구는 연구 대상들이 식당사업체 내 주방에서 실시되는 수행평가의 결과에 대해 수행기록일지를 시청각적 매체 중 하나인 노트북을 통해 작성하게 하였는데, 이 중재 절차 역시 그룹홈 내 주방에서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들은 그룹홈 내 주방에 구비된 식탁 위에 노트북을 준비하여 요리기술에 대한 수행기록일지를 한글 작업(HWP)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 대상들은 그룹홈 내 주방에서 스마트 패드와 노트북의 시청각적 매체를 활용하였다.

(2) 식당사업체 내 주방: 평가 환경

본 연구에서 식당사업체는 부모가 연구 대상들과 공동창업하길 희망하는 창업기관이며, 연구 대상들이 그룹홈 내 주방에서 습득한 요리기술을 평가하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다. 식당사업체 내 주방 역시 요리 수행을 위한 싱크대 시설, 냉장고, 각종

조리도구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약 20평 내외의 면적을 차지한다. 본 연구에서 구성된 요리기술은 연구 대상들이 식당사업체 내 주방의 공간을 있는 그대로 활용하는 가운데 수행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식당사업체 내 주방을 별도로 재구성하지 않았다.

단, 식당사업체 내 주방은 연구 대상들이 그룹홈 내 주방에서 요리기술의 수행을 습득한 후 수행평가의 공간으로 활용된 데 이어서 어머니들이 참여하여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제작하는 데 역시 활용되었다. 식당사업체 내 주방에서 비디오 모델링 자료 제작 시 세 명의 어머니들과 연구자가 참여하였고, 연구자는 어머니 한 명마다 자녀에게 제공할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각각 제작토록 하였다.

2) 실험 설계

본 연구의 실험 설계는 단일대상연구의 기법 중 하나인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 설계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는 총 7개월(2015년 12월 1일~2016년 6월 30일)에 걸쳐 실시되었고, 연구자와 연구 대상, 어머니, 그룹홈 담당 교사가 실험에 참여하였다.

(1) 기초선

연구 대상들이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전에 요리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현행 수준을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두어 실시되었다. 이에 따라, 기초선 단계에서는 연구 대상들의 요리기술 수행에 대한 도움이나 촉진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2) 중재

본 연구의 중재는 연구 대상들이 식당사업체 내 주방에서 수행평가를 전개하기 이전에 적용되었다. 연구 대상들은 그룹홈 내 주방에서 중재를 제공받은 이후 즉각적으로 이동하여 식당사업체 내 주방에서 수행평가를 실행하였다. 그룹홈과 식당사업체는 도보로 10분 정도 걸리며, 그룹홈 담당 교사와 연구 대상들이 함께 이동하였다. 중재 1회기마다 45분 내외의 수업 시간을 할당하였고, 그룹홈 담당 교사와 연구 대상이 1:1로 상호작용하는 개별화 수업의 형태로 중재가 적용되었다.

어머니는 연구 대상이 중재 절차에서 주로 활용하는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제작하는 데 참여하였으며, 부분적으로 그룹홈 담당 교사와 협력하여 연구 대상이 요리기술을 수행한 결과에 대해 피드백하는 데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중재에

서는 그룹홈 담당 교사가 주요 교수자로 구성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그룹홈 담당 교사와 어머니가 중재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중재 적용에 앞서 사전 연수를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대상자간 중다간헐 기초선 설계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연구 대상들마다 중재의 적용 시기를 달리 하였다. 즉, 연구 대상 A가 기초선 단계에서 요리기술의 수행을 안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낼 때 중재를 적용해 나가기 시작하였으며, 연구 대상 A의 중재 효과가 안정적인 경향으로 나타날 때 연구 대상 B에게 중재를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 B의 중재 효과가 안정적인 경향을 보일 때 연구 대상 C에게 역시 중재를 적용하였다. 연구 대상들이 3회기 연속하여 목표행동을 90%의 정반응으로 수행할 때 중재를 종료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실험 기간인 7개월 중 중재 기간은 4개월(2016년 1월 25일~4월 26일)에 해당한다.

(3) 유지

중재가 종료된 이후 3주가 지난 시점에서 연구 대상들이 요리기술의 수행 효과를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유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들의 요리기술 수행에 대한 도움이나 촉진을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3. 종속변인(목표행동): 요리기술

1) 요리기술의 조작적 정의 및 선정 근거

본 연구에서 요리기술은 ‘김치찌개 끓이기 기술’로 조작적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연구 대상들이 향후 부모와 공동으로 식당 창업을 위하여 습득해 두어야 할 직무기술 중 한 가지로써 가치가 있다. 연구 대상들의 부모들은 한식을 전문적으로 요리하는 식당사업체를 창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놓고, 본 연구는 연구 대상들이 처음으로 창업직무훈련을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종단 연구의 차원에서 한 가지의 요리기술(‘김치찌개 끓이기 기술’)만을 집중적으로 지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연구자와 그룹홈 담당 교사, 어머니가 상호 협의한 결과임을 밝히둔다. 또한, 어머니들은 연구 대상들이 김치찌개 끓이기 기술을

일차적으로 습득할 경우 다른 음식 메뉴들(예: 된장찌개, 콩나물국, 두부찌개 등)을 연계하여 수월히 습득할 수 있다는 관점을 나타냈다. 그리고 어머니들은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식당사업체에서 김치찌개의 음식은 주 메뉴가 될 것으로 판단함으로써, 공동창업 대상자인 연구 대상들이 김치찌개 끓이기의 요리기술을 일차적으로 습득해야 한다는 인식을 보였다. 덧붙여, 연구 대상들은 현재 김치찌개를 요리하는 수행 절차와 방법에 대해 거의 인지하고 있지 못하지만, 창업직무훈련을 통해 김치찌개를 효과적으로 습득할 만한 학습인지능력과 대소근육 운동협응능력 등을 가지고 있기에 어머니와 그룹홈 담당 교사는 김치찌개 끓이기 기술에 비중을 두었다.

2) 요리기술의 과제분석

본 연구의 종속변인으로 선정된 요리기술은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김치찌개 끓이기 기술로 조작적 정의될 수 있으며, 이는 과제분석을 통하여 총 10가지 단계의 하위기술들로 구성되었다. 요리기술에 대한 과제분석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요리기술의 과제분석

단계	구체적인 수행 내용	비고
1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꺼내 싱크대로 가져온다.	· 1인분 기준으로 김치찌개를 끓임. · 연구 대상은 자신이 손목에 차고 있는 시계를 보면서 9, 10번 단계를 수행함.
2	김치통의 뚜껑을 열고 도마 위에 김치 한 포기를 올려놓는다.	
3	도마 위에 있는 김치를 칼로 5등분하여 썬다.	
4	칼로 썬 김치를 냄비 안에 넣는다.	
5	냄비 안에 천연 조미료(표고버섯 가루)를 한 스푼 넣는다.	· 냄비는 소형 크기이며, 스푼 역시 커피스푼과 같은 소형 크기임.
6	냄비 안에 고춧가루를 한 스푼 넣는다.	
7	냄비 안에 물을 1/2 넣는다.	
8	냄비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가스레인지를 작동시킨다.	· 연구 대상은 2, 3번 단계를 수행하는데 있어 비닐장갑을 착용함.
9	3분 이후 냄비 안에 실파와 팽이버섯을 넣는다.	
10	15분 이후 가스레인지의 전원 작동을 멈춘다.	

<표 4>의 과제분석 내용은 연구자와 어머니, 그룹홈 담당 교사가 상호 협의하여 구성된 결과이며, 또한 본 연구의 실험 환경으로 선정된 식당사업체의 창업주에 대한 조언 역시 참조하여 구성되었다. 그리고 <표 4>의 과제분석은 식당사업체에서 창업주 및 직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내용 및 수준과 동일한 결과이다.

4. 독립변인: 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

본 연구의 중재프로그램은 ‘중재 준비’와 ‘중재 적용’과 같이 두 가지의 절차로 분류되어 실시되었다. 각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중재 준비

본 연구에서 중재 준비는 그룹홈 담당 교사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연구자가 이들에게 중재 적용에 필요한 연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역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중재 준비를 통해 그룹홈 담당 교사와 어머니에게 연수를 제공하기에 앞서 연구 대상들에게 적용 가능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을 초안의 수준에서 개발하였다. 개발된 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룹홈 담당 교사와 어머니의 역할을 분석한 이후 이들 각각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표 5〉 중재프로그램(안)에 대한 연수 절차

절차	연수 내용	연수 대상	연수 횟수 (1회기 당 45분 내외)
1	비디오 모델링 자료 제작	어머니	1회기
2	비디오 모델링을 통한 음식재료·도구 점검	그룹홈 담당 교사	2회기
3	비디오 모델링을 통한 요리기술 수행과정 시청	그룹홈 담당 교사	2회기
4	요리기술 행동시연	그룹홈 담당 교사	2회기
5	중재회기별 수행기록일지 작성	그룹홈 담당 교사	2회기
6	어머니의 수행기록일지에 대한 피드백	어머니	1회기

〈표 5〉에서 비디오 모델링 자료는 연구자와 어머니가 식당사업체 내 주방을 직접 방문하여 제작하였다. 또한, 식당사업체의 창업주가 어머니에게 요리기술(‘김치찌개 끓이기 기술’)을 수행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모방을 제공한 이후 어머니가 수행하는 장면을 연구자가 스마트 패드로 촬영함으로써 비디오 모델링 자료가 제작되었다. 여기서 식당사업체의 창업주는 과제분석의 내용에 의거하여 어머니에게 모방을 제공한 것이다.

그리고 본 연구는 〈표 5〉에서 6번 절차에 한해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번 더 연수를 실시하였다. 어머니는 6번 절차를 자녀인 연구 대상과 E-mail을 주고받는 가

운데 수행하며, 이에 연구자는 어머니가 연구 대상과 E-mail을 주고받을 수 있는 절차를 비롯해 E-mail의 첨부파일에 수반되는 한글문서(HWP) 작업 양식 및 방법에 대해 반복 연습하도록 반응촉진 하였다. 단, 본 연구는 <표 5>에서 어머니에게 1번과 6번 절차만을 연수하였더라도 어머니가 그 이외의 절차(2~5번)에 대해서 역시 안내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표 5>에서 2~5번 절차에 대하여 그룹홈 담당 교사에게 연수를 제공하였다. 연구자는 <표 5>와 같이 초안 수준으로 개발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이 그룹홈 담당 교사의 요구에 적합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표 6>의 평가 양식(Likert5점 척도, 그룹홈 담당 교사 3명 참여)을 활용하였다. 위 평가 양식의 결과를 통해 연구자는 초안으로 개발한 중재프로그램의 적절성을 점검하였으며, 3명의 그룹홈 담당 교사의 의견을 추가로 수용하여 중재프로그램의 절차와 방법을 일부 추가하기도 하였다.

<표 6> 중재프로그램(안)에 대한 평가 양식

구분	평가 문항	평균 (범위)
1	그룹홈 환경 맥락에 적합한 중재 절차인가?	4.95 (4.9~5)
2	중재 절차 2~5('비디오 모델링을 통한 음식재료 점검'~'중재회기별 수행기록일지 작성')번은 상호 협력적으로 적용 가능한가?	4.85 (4.8~5)
3	중재 절차 2~5번을 상호 연합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가?	4.85 (4.9~5)
4	그룹홈과 식당사업체간의 시공간적 거리감을 최소화하고 요리기술에 대한 전이효과를 높이는 데 적합한 중재 절차인가?	4.95 (4.9~5)
5	연구 대상의 식당 창업을 위한 준비에 효과적인가?	4.95 (4.9~5)

본 연구는 <표 6>의 평가 절차 이후 그룹홈 담당 교사에게 연수를 실제로 제공하였고, 연수 시 연구자는 연구 대상들과 그룹홈 내에서 함께 거주하는 동료 자폐성장장애인 한 명을 선정하여 그룹홈 담당 교사들이 직접 지도하는 수행을 시연해 보도록 촉진하였다. 연구자는 언어·동작·신체를 통해 그룹홈 담당 교사가 지도 수행을 시연해 보도록 직접교수하였으며, 특히 그룹홈 담당 교사가 2~5번 절차를 순차적으로 연이어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데도 비중을 두어 연수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그룹홈 담당 교사가 2~5번 절차를 연이어 수행하는 데 있어 45분 내외의 시간을 준수하는가의 여부에도 초점을 두어 연수를 실시하였다.

2) 중재 적용

본 연구는 앞서 본 중재 준비를 바탕으로 연구 대상들에게 중재를 실제로 적용하였으며, 그룹홈 담당 교사가 주된 교수자이면서 어머니가 부분적으로 중재 절차에 참여하는 것으로 했다. 연구 대상들은 개별적으로 짝을 이룬 한 명의 그룹홈 담당 교사와 1:1로 수업을 하되, 그룹홈 내 주방과 식당사업체 내 주방의 활용 여건 문제를 고려하여 연구 대상별로 중재의 적용 시간을 달리하였다(연구 대상 A: 오전 9:00~9:50, 연구 대상 B: 11:00~12:00, 연구 대상 C: 14:00~15:00). 중재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적용 절차 및 방법은 <표 7>과 같다.

〈표 7〉 중재프로그램의 적용 절차 및 방법

절차	방법																						
1. 어머니 모델링 자료 시청	• 그룹홈 내 주방에서 스마트 패드를 통한 어머니 모델링 자료 시청 ①그룹홈 내 주방에서 그룹홈 담당 교사와 연구 대상은 식탁에 나란히 앉아서 스마트 패드를 준비함. ②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 대상이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과제분석의 단계 수를 구분하여 시청토록 촉진하며, 현재 과제분석의 단계 수 장면에서 어머니의 수행이나 관련 환경시설 및 재료를 연구 대상이 인지할 수 있도록 이야기 나누기를 전개함. [과제분석의 1단계 시청 → 이야기 나누기 → 과제분석의 2단계 시청 → 이야기 나누기 ... (계속)] ③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 대상이 ②번을 수행한 이후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연속하여 시청토록 하며, 이 때 별도로 연구 대상에게 촉진을 제공하지 않음.																						
2. 음식재료·도구 점검	• 어머니 모델링 자료 시청에 따른 과제분석 단계별 음식재료·도구 점검 ①그룹홈 담당 교사는 앞의 1번 절차 이후 연구 대상에게 다시 스마트 패드를 통한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과제분석의 단계별로 시청하도록 촉진함. ②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 대상이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 과제분석의 단계별로 확인되는 음식재료·도구를 연습장에 기록하도록 언어적인 촉진을 제공함. 〈과제분석의 단계별 음식재료·도구〉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단계</th><th>음식재료·도구명</th></tr> </thead> <tbody> <tr> <td>1</td><td>냉장고, 김치통, 싱크대, 김치</td></tr> <tr> <td>2</td><td>도마, 김치</td></tr> <tr> <td>3</td><td>칼, 김치</td></tr> <tr> <td>4</td><td>냄비, 김치</td></tr> <tr> <td>5</td><td>냄비, 조미료, 스푼</td></tr> <tr> <td>6</td><td>냄비, 고춧가루, 스푼</td></tr> <tr> <td>7</td><td>냄비, 물</td></tr> <tr> <td>8</td><td>냄비, 가스레인지</td></tr> <tr> <td>9</td><td>냄비, 실파, 팬이버섯</td></tr> <tr> <td>10</td><td>가스레인지</td></tr> </tbody> </table>	단계	음식재료·도구명	1	냉장고, 김치통, 싱크대, 김치	2	도마, 김치	3	칼, 김치	4	냄비, 김치	5	냄비, 조미료, 스푼	6	냄비, 고춧가루, 스푼	7	냄비, 물	8	냄비, 가스레인지	9	냄비, 실파, 팬이버섯	10	가스레인지
단계	음식재료·도구명																						
1	냉장고, 김치통, 싱크대, 김치																						
2	도마, 김치																						
3	칼, 김치																						
4	냄비, 김치																						
5	냄비, 조미료, 스푼																						
6	냄비, 고춧가루, 스푼																						
7	냄비, 물																						
8	냄비, 가스레인지																						
9	냄비, 실파, 팬이버섯																						
10	가스레인지																						

절차	방법										
	③ 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 대상이 ②번을 수행한 이후에 다시 한 번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시청하면서 ②번에서 기록한 과제분석별 음식재료·도구명이 적절한지 빨간색 펜으로 체크하도록 함. 〈예시〉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th>음식재료·도구명</th></tr> </thead> <tbody> <tr> <td>1</td><td>냉장고, 김치통, 싱크대, 김치</td></tr> <tr> <td>2</td><td>도마, 김치</td></tr> <tr> <td>:</td><td>:</td></tr> </tbody> </table>	단계	음식재료·도구명	1	냉장고, 김치통, 싱크대, 김치	2	도마, 김치	:	:		
단계	음식재료·도구명										
1	냉장고, 김치통, 싱크대, 김치										
2	도마, 김치										
:	:										
3. 요리기술 행동시연	• 어머니 모델링 자료 시청에 따른 요리기술 행동시연 ① 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 대상이 싱크대 앞에서 스마트 패드를 통한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과제분석의 단계별로 시청하면서 요리기술을 시연하도록 함. [과제분석 1단계의 시청 → 과제분석 1단계의 시연 → 과제분석 2단계의 시청 → 과제분석 2단계의 시연 …(계속)] ② 그룹홈 담당 교사는 언어촉진, 동작촉진(모방), 신체촉진을 통해 연구 대상의 요리기술 시연을 지도함.										
4. 수행기록일지 작성	• 수행평가 결과를 활용한 수행기록일지 작성 ① 연구자는 연구 대상이 식당사업체 내 주방에서 요리기술을 수행한 결과 장면을 스마트패드 내의 동영상에 저장하여 그룹홈 담당 교사에게 전달함. ② 그룹홈 담당 교사는 수행기록일지 작성을 위한 준비물 구비함. 〈준비물〉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활용 기능</th></tr> </thead> <tbody> <tr> <td>스마트패드</td><td>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수행평가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포함됨.</td></tr> <tr> <td>노트북</td><td>연구 대상은 수행기록일지를 한글문서(HWP)를 통하여 작성함.</td></tr> <tr> <td>연습장</td><td>·연구 대상은 스마트패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과제분석의 단계별로 나타난 정반응과 오반응 여부를 체크하는 메모기능으로 활용됨. ·연구 대상은 연습장에 메모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글문서(노트북)에 옮겨 기록함.</td></tr> <tr> <td>필기도구</td><td>·연구 대상이 연습장에 메모할 때 활용됨.</td></tr> </tbody> </table> ③ 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 대상이 스마트 패드를 통하여 수행평가의 결과를 연습장에 정리하도록 이야기 나누기를 통해서 언어촉진을 제공함. ④ 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 대상이 연습장에 정리한 결과를 노트북을 통하여 한글문서(HWP)에 옮겨 기록하도록 언어촉진을 제공함.	구분	활용 기능	스마트패드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수행평가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포함됨.	노트북	연구 대상은 수행기록일지를 한글문서(HWP)를 통하여 작성함.	연습장	·연구 대상은 스마트패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과제분석의 단계별로 나타난 정반응과 오반응 여부를 체크하는 메모기능으로 활용됨. ·연구 대상은 연습장에 메모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글문서(노트북)에 옮겨 기록함.	필기도구	·연구 대상이 연습장에 메모할 때 활용됨.
구분	활용 기능										
스마트패드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수행평가에서 촬영한 동영상이 포함됨.										
노트북	연구 대상은 수행기록일지를 한글문서(HWP)를 통하여 작성함.										
연습장	·연구 대상은 스마트패드 동영상을 시청하면서 과제분석의 단계별로 나타난 정반응과 오반응 여부를 체크하는 메모기능으로 활용됨. ·연구 대상은 연습장에 메모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글문서(노트북)에 옮겨 기록함.										
필기도구	·연구 대상이 연습장에 메모할 때 활용됨.										

절차	방법																
	〈한글문서 작업 양식〉 <table><tr><th>단계</th><th>○ / ×</th><th>내가 한 것</th><th>어머니 말씀</th></tr><tr><td>1</td><td>×</td><td>김치통을 싱크대로 가져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반응이다.</td><td></td></tr><tr><td>2</td><td>×</td><td>도마 위에 김치를 올려놓지 않았다. 그래서 오반응이다.</td><td></td></tr><tr><td>:</td><td>:</td><td>:</td><td>:</td></tr></table> · 그룹홈 담당 교사는 위 양식과 같이 연구 대상이 자신의 수행 결과를 문장 진술로 전개하도록 촉진함. · 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 대상이 한글문서를 주도적으로 작업하는 가운데 부분적인 도움이나 촉진을 제공함. ⑤ 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 대상이 최종 작업한 한글문서(HWP)를 노트북의 바탕화면에 저장하도록 지도하며, 어머니의 E-mail로 작업한 한글문(HWP)를 송부하도록 촉진함.	단계	○ / ×	내가 한 것	어머니 말씀	1	×	김치통을 싱크대로 가져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반응이다.		2	×	도마 위에 김치를 올려놓지 않았다. 그래서 오반응이다.		:	:	:	:
단계	○ / ×	내가 한 것	어머니 말씀														
1	×	김치통을 싱크대로 가져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반응이다.															
2	×	도마 위에 김치를 올려놓지 않았다. 그래서 오반응이다.															
:	:	:	:														
5. 어머니 피드백	• 일반가정에서의 어머니 피드백 ① 어머니는 일반가정의 컴퓨터를 활용하여 연구 대상이 송부해 온 E-mail을 확인함. ② 어머니는 E-mail의 첨부파일로 송부된 한글문서를 확인한 이후 연구 대상이 작업한 한글문서 작업 양식 중 ‘어머니 말씀’에 피드백을 기록함. 〈어머니 피드백의 예〉 <table><tr><th>단계</th><th>○ / ×</th><th>내가 한 것</th><th>어머니 말씀</th></tr><tr><td>1</td><td>×</td><td>김치통을 싱크대로 가져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반응이다.</td><td>김치통 가져 와야지! 다음부터 잘 하자! 우리 아들 화이팅!</td></tr></table> · 어머니는 연구 대상의 목표행동 수행에 대한 정반응과 오반응 요인을 중심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며, 감정적으로 격려하거나 용기를 주는 말도 피드백으로 함께 제공함. ③ 그룹홈 담당 교사는 연구 대상이 그룹홈 내 주방에서 어머니가 송부하여 온 피드백을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며, 어머니의 피드백 결과를 통하여 연구대상에게 언어촉진을 제공함.	단계	○ / ×	내가 한 것	어머니 말씀	1	×	김치통을 싱크대로 가져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반응이다.	김치통 가져 와야지! 다음부터 잘 하자! 우리 아들 화이팅!								
단계	○ / ×	내가 한 것	어머니 말씀														
1	×	김치통을 싱크대로 가져 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반응이다.	김치통 가져 와야지! 다음부터 잘 하자! 우리 아들 화이팅!														

〈표 7〉에서 ‘1. 어머니 모델링 자료 시청’의 절차는 연구 대상이 목표행동의 수행 절차와 맥락을 전반적으로 인지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적용되었으며, 이후의 중재 절차를 위한 준비 단계로 활용되었다. 그리고 〈표 7〉에서 ‘2. 음식재료·도구 점검’과 ‘3. 요리기술 행동시연’의 절차는 연구 대상이 목표행동의 수행을 실제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인지하도록 촉진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이 밖에, ‘4. 수행기록일지

작성'과 '5. 어머니 피드백'의 절차는 연구 대상이 목표행동에 대한 수행 결과를 점검·보완하도록 촉진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5. 자료 측정

본 연구에서 자료 측정은 연구자가 직접 수행하였고, 앞서 본 <표 4>의 과제분석 양식에 '정반응'과 '오반응'의 항목을 추가하여 자료 측정지를 구성하였다. 자료 측정을 위해 목표행동 수행에 대한 정반응과 오반응의 조작적 정의를 <표 8>과 같이 구성하였다.

<표 8> 목표행동 수행에 대한 정반응과 오반응의 조작적 정의

정반응	오반응
- 연구 대상이 목표행동을 과제분석의 단계별 순서와 방법에 맞춰 정확한 방법으로 수행하는 경우 - 연구 대상이 교수자의 도움이나 촉진을 제공받지 않은 상황에서 목표행동을 수행할 경우 - 연구 대상이 목표행동에 대한 과제분석의 단계별 반응 시작시간이 5초(s) 이내일 경우	- 연구 대상이 목표행동을 과제분석의 단계별 순서와 상관없이 수행하거나 부정확한 방법으로 목표행동을 수행할 경우 - 연구 대상이 교수자의 도움이나 촉진을 제공받은 채 목표행동을 수행한 경우 - 연구 대상이 목표행동에 대한 과제분석 단계별 반응 시작시간이 5초(s) 이상 지연될 경우

연구 대상별로 자료 측정의 시간을 달리 하였으며(연구 대상 A: 10:30~11:00, 연구 대상 B: 12:30~13:00, 연구 대상 C: 15:30~16:00), 연구자가 연구 대상의 목표행동 수행평가 장면을 직접관찰한 후 볼펜으로 자료 측정지의 해당 항목에 체크하는 형태로 자료 측정이 전개되었다. 자료 측정을 위한 계산 공식은 [정반응에 대한 과제분석의 단계 수 ÷ 전체 과제분석의 단계 수 × 100 (%)]이다.

6. 관찰자간 신뢰도

본 연구는 자료 측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찰자간 신뢰도의 측정을 전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의 자료 측정에 대해 보조자 3인(특수교육학박사)이 참여하였으며, 위 보조자 3인은 각각 한 명의 연구 대상과 짝을 이루어 자료 측정에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보조자 3인이 자료 측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목표행동에 대한

과제분석 내용과 자료 측정 방법에 대해 사전훈련을 실시하였다. 연구자와 보조자 3인은 사전훈련 이후 예비적으로 자료 측정을 실시하여 상호간 측정한 결과가 98% 이상 일관될 때 실제 관찰자간 신뢰도 측정의 작업을 전개하였다.

관찰자간 신뢰도의 측정은 각 실험 조건(기초선, 중재, 유지)을 모두 합하여 임의적으로 30%에 한해서 이루어졌으며, 측정 공식은 $[\text{일치한 수} \div (\text{일치한 수} + \text{불일치한 수}) \times 100 (\%)]$ 이다. 연구 대상별로 측정된 관찰자간 신뢰도 측정의 결과는 <표 9>와 같다.

〈표 9〉 관찰자간 신뢰도 측정의 결과

구분	연구 대상 A	연구 대상 B	연구 대상 C
평균 (범위)	99.5 (98~100)	100 (100)	100 (100)

7. 중재 충실도

본 연구는 연구 대상에게 중재프로그램이 얼마나 충실하게 적용되고 있는가의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중재 충실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가 연구 대상별로 각각 따로 정해져 있는 중재 시간에 맞추어 중재 장면을 관찰하여 중재 충실도를 측정하였다. 그리고 중재 충실도의 측정은 <표 10>의 문항을 통하여 실제로 전개되었으며, 중재의 전체 회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표 10〉 중재 충실도의 측정 문항

구분	문항 내용	적용	비적용
1	그룹홈 담당 교사와 어머니는 중재프로그램 적용에 앞서 연수를 제공받았는가?		
2	연구 대상은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시청하였는가?		
3	연구 대상은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통해 음식재료·도구를 점검하였는가?		
4	연구 대상은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통해 요리기술을 시연하였는가?		
5	연구 대상은 수행평가 결과에 따른 수행기록일지를 작성하였는가?		
6	연구 대상은 어머니로부터 수행기록일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받았는가?		
7	연구 대상은 5가지의 중재 절차를 상호 연합적으로 제공받았는가?		

중재 충실도의 측정을 위한 공식은 $[\text{적용한 수} \div (\text{적용한 수} + \text{비적용한 수}) \times 100 (\%)]$ 이며, 연구 대상별로 모두 100%의 중재 충실도가 측정되었다. 참고로, 실제 중재 제공자인 그룹홈 담당 교사 역시 <표 10>의 양식을 활용해 나가면서 중재를 실시하였다.

8. 사회적 타당도

본 연구는 연구 대상에게 적용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갖는 기능적 의의가 특수 교육 분야에서 얼마나 타당한가를 검증하기 위해 사회적 타당도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구성된 문항은 <표 11>과 같다.

<표 11> 사회적 타당도의 측정 문항

문항	구체적인 내용	평균 (범위)
1	본 연구에서 적용된 중재프로그램은 그룹홈 환경 맥락에 적합한가?	4.8 (4.75~5)
2	본 연구에서 적용된 중재프로그램은 자폐성장장애인의 창업 이행에 효과적인가?	4.95 (4.9~5)
3	본 연구에서 적용된 중재프로그램은 자폐성 장애자녀와 공동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모가 수행 가능한 역량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4.85 (4.8~5)
4	본 연구에서 적용된 중재프로그램은 그룹홈과 식당사업체간의 시공간적 거리감을 좁히면서 자폐성장장애인의 요리기술 수행에 대한 전이효과를 높이는가?	4.9 (4.8~5)
5	본 연구에서 적용된 중재프로그램은 그룹홈 담당 교사가 수행하는 데에 적합한 역량요소를 포함하고 있는가?	4.9 (4.85~5)
6	본 연구에서 적용된 요리기술은 자폐성장장애인의 식당 창업에 적합한 수행 수준 및 요구를 포함하는가?	4.95 (4.9~5)
7	본 연구에서 적용된 중재프로그램과 요리기술은 상호 유의미한 기능적 관계를 가진다고 보는가?	4.95 (4.9~5)

사회적 타당도 측정에 참여한 대상은 장애인 직업교육훈련을 전공한 특수교육전문가 8인(교수요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측정 방법은 Likert 5점 척도(5: 매우 그렇다, 4: 그렇다, 3: 보통이다, 2: 그렇지 않다, 1: 매우 그렇지 않다)를 사용하였다.

Ⅲ.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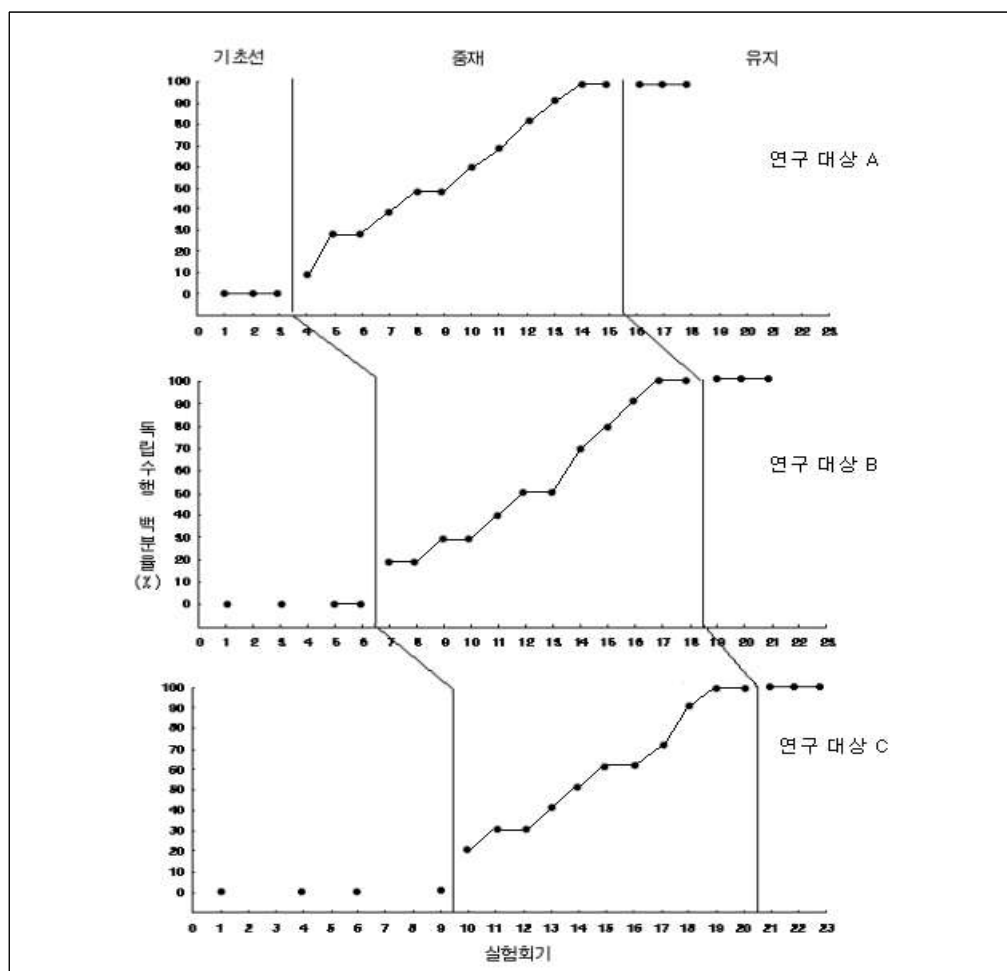
1. 요리기술 습득 효과

연구 대상들은 중재프로그램을 통하여 요리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대상들은 중재프로그램이 제공되기 전에 기초선 단계에서 요리기술의 수행에 대하여 아주 저조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중재프로그램을 제공받고서부터 요리기술 수행에 대한 정반응 정도를 향상시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기초선 단계에서 연구 대상들은 공통적으로 요리기술 수행에 대해 0%의 결과를 보였다. 이들은 요리기술 수행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과제를 수행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사업체 내 주방에서 가만히 서 있거나 음식재료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는 행동을 반복하여 보였다. 한편, 연구 대상 A는 목표행동에 대한 과제분석의 1번 단계를 수행하였으나 반응시작시간이 5초(s) 이상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결과를 보여 오반응으로 처리되었다.

중재프로그램이 적용된 이후 연구 대상들은 중재 전체 회기 동안 목표행동에 대한 정반응 수행비율을 10~20%의 안정적인 범위로 향상시켜 나갔다. 중재가 1회기 적용된 시점에서 연구 대상들은 10~20%의 정반응 수행을 나타냈다. 연구 대상들은 과제분석의 1번 단계를 독립 수행하였으며, 이 가운데 연구 대상 A는 2번 단계의 수행에서 도마 위에 김치를 올려놓지 않거나 김치통에서 김치를 꺼내는 시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오반응을 자주 보였다.

중재가 3회기 적용된 시점에서 연구 대상들은 공통적으로 목표행동에 대해 30%의 정반응 수행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 대상들은 과제분석의 1~3번 단계를 정반응으로 수행하였고, 이전에 3번 단계에서 보인 오반응(예: 칼로 김치를 2등분 자르기, 김치를 자르지 않기, 김치를 일정한 크기로 자르지 않거나 지그재그의 방향으로 자르기 등)을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연구 대상들은 과제분석의 3번 단계 이후의 수행 절차인 4번 단계의 수행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썬 김치를 냄비 안에 넣는 시간이 불필요하게 지연되거나 썬 김치를 냄비 안에 넣지 않는 오반응을 자주 나타냈다. 또한, 연구 대상 C는 썬 김치를 냄비 안에 넣는 데 있어 김치 국물을 바닥과 냄비 주변에 흘리는 부주의도 오반응의 일환으로 보였다.



〈그림 1〉 요리기술의 독립 수행비율

중재가 5회기 적용된 시점에서 연구 대상들은 목표행동에 대해 40~50%의 정반응 수행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 대상 A와 C는 과제분석의 1~5번 단계를 정반응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50%의 결과를 나타냈으며, 연구 대상 B는 5번 단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 조리료를 한 스푼 이상 넣거나 그 수행 자체를 생략하는 오반응을 보여 40%의 결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 대상 B는 중재가 6회기 적용된 시점에서 5번 단계를 정반응으로 수행하여 목표행동에 대해 50%의 정반응 수행 결과로 향상되었다.

중재가 7회기 적용된 시점에서 연구 대상들은 목표행동에 대해 50~60%의 정반응 수행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 대상 B는 중재가 6회기 적용된 시점에서 나타낸 50%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6번 단계를 생략하거나 고춧가루를 너무 많이 넣는 오반응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대상 A와 C는 과제분석의 1~6번 단계를 정반응으로 수행하는 가운데 60%의 결과를 보였고, 7번 단계의 수행 절차를 인지하고 있었으나 7번 단계의 수행에 대한 반응 시간이 지연되거나 냄비 안에 물을 너무 많이 넣는 오반응이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 대상 A와 C는 7번 단계에서 오반응을 보임으로써 8~10번 단계를 수행하려는 준비를 나타내지 않았다.

중재가 9회기 적용된 시점에서 연구 대상들은 목표행동에 대해 80~90%의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 대상들은 모두 과제분석의 1~8번 단계를 정반응으로 수행하였으며, 연구 대상 A와 B는 9번 단계를 오반응으로 수행하였다. 즉, 연구 대상 A와 B는 9번 단계를 수행하는 데 있어 3분 이후 냄비 안에 실파와 팽이버섯을 넣지 않고 8번 단계 수행 이후 실파와 팽이버섯을 바로 넣는 오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연구 대상 A와 B는 10번 단계의 수행 자체를 생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연구 대상 C는 9번 단계를 정반응으로 수행하였고, 이전 회기에서 9번 단계를 수행하는 데 보인 오반응(예: 수행 자체의 생략, 실파만 냄비 안에 넣기, 3분 이후가 아닌 5분 이후 등)을 소거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단, 연구 대상 C는 10번 단계의 수행에 대해선 연구 대상 A와 B와 마찬가지로 생략하는 결과를 보였다.

한편, 연구 대상들은 중재가 11회기 적용된 시점에서 목표행동에 대해 100%의 완전한 정반응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연구 대상들은 3회기 연속하여 목표행동에 대해 90% 이상의 정반응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중재프로그램의 적용은 최종적으로 종료되었다.

2. 요리기술 유지 효과

연구 대상들은 중재 종료 이후 3주가 지난 시점에서 목표행동에 대해 100%의 정반응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 대상들은 유지 단계에서 기초선이나 중재 단계에서 목표행동 수행과 관련해 나타낸 오반응을 보이지 않았으며, 목표행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과제분석의 단계별 순서에 기반을 둔 반응 정확도를 나타냈다. 또한, 연구 대상들은 목표행동을 수행함에 있어 반응시간의 지연도 나타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연구 대상들은 유지 단계에서 3회기 연속하여 목표행동에 대해 100%의 정반응 결과를 나타냈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이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장애인의 요리기술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 결과,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장애인은 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을 통하여 요리기술을 효과적으로 습득 및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어머니 모델링을 활용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과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장애인의 요리기술 수행 간에 상호 유의미한 기능적 관계가 있다는 측면을 결론지을 수 있었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이 갖는 기능적 의의를 중심으로 논의 및 후속연구의 제언, 제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은 자폐성장장애인의 요리기술에 효과적이었다. 먼저, 본 연구는 창업을 준비하는 자폐성장장애인을 위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이 활발히 개발되지 못한 국내 특수교육학 분야의 제한된 연구동향을 보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김백수, 2007; 김백수, 박경순, 2008; 김형일, 2013; 이숙향 외, 2012). 자폐성장장애인의 창업에 초점을 둔 직업교육훈련의 실체는 현재 특수교육학 분야에서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며, 특히 본 연구와 같이 사례관리의 차원에서 자폐성장장애인의 창업능력에 대한 가능성을 조망한 선행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박희찬, 201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현재의 경우 자폐성장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실체가 진학과 취업 부분에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박재국 외, 2016), 본 연구와 같이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한 사례연구는 자폐성장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실체에서 창업의 부분을 또 다른 영역으로 동등하게 강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를 기점으로 하여 자폐성장장애인을 위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의 사례연구와 효과 입증이 활발히 전개됨에 따라서 자폐성장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 실체에 있어 창업 적합 직종을 취업 부분과 변별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다(김백수, 2007; 변충규, 성창수, 2012; McDonnell & Hardman, 2011). 이상에서 고찰한 측면은 자폐성장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의 개발·적용 사례를 다룬 후속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지지하며, 이에 따라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이 특수교육학 분야에서 직업교육훈련의 영역에 대한 증거기반의 실체로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 역시 강조시켜 준다. 앞으로 자폐성장장애인을 위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양·질적으로 다양하게 검증

되어야 할 인식과 실행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적용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은 자폐성장장애인의 창업계획 및 준비에 있어 핵심 사항인 ‘부모와의 식당 공동창업’에 기반을 두어 ‘어머니 모델링’을 주요한 중재 요소로 구성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연구 대상과 향후에 공동창업을 이행하고자 하는 배경 정보와 더불어 식당 창업에 필요한 직무기술인 요리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중재프로그램의 구성 절차로 포함시켰다. 즉, 본 연구에서 어머니는 교수자의 입장에서 자폐성장장애인의 식당 창업을 위한 요리기술의 습득에 기여하고자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어머니는 자녀인 자폐성장장애인이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에서 습득하는 내용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특수교육학 분야의 연구 동향에 있어 창업 등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의 영역에서 어머니가 자폐성장장애인의 창업직무 습득에 필요한 학습교구를 제작하여 훈련프로그램 효과에 기여한 사례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이소현 외, 2014; 이숙향 외, 2012; Sitlington et al., 2007; Westling & Fox, 2009). 이런 관점에서 본 연구는 자폐성장장애인과 더불어 실제 창업 준비의 수요자인 어머니가 창업훈련프로그램의 중재 절차에 참여함으로써 창업 준비의 실행 부분을 자녀인 자폐성장장애인의 창업직무 습득 차원에서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는 데 주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어머니는 시청각적 매체의 일환인 스마트 패드를 통한 비디오 모델링 자료로 하여금 자녀인 자폐성장장애인을 직접 대면하여 지도해야 할 어려움이나 부담을 덜 수 있었고, 또한 어머니는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통하여 자폐성장장애인과 간접적으로 소통하는 가운데 주된 교수자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그룹홈 담당 교사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 역시 얻게 되었다. 후속적으로, 자폐성 장애자녀와 공동창업을 계획·준비하고 있는 부모가 자녀의 창업직무 습득을 위해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적 접근 사례가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런 사례가 부모의 창업 실행에 주는 심리사회적 효과 역시 다각적으로 분석될 필요성이 있다. 이 때, 자폐성장장애인의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에서 어머니 모델링 기법이 증거기반의 실제로 구축될 수 있는 타당성을 얻게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적용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은 자폐성장장애인이 거주하는 그룹홈 내 주방과 식당사업체 내 주방간의 시공간적 거리감을 좁힘으로 인해 그룹홈 환경을 중심으로 한 가상현실 체험형 훈련의 효과성을 지지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우선, 본 연구의 이런 의의는 시청각적 매체의 일환인 비디오 모델링 자료를 그

그룹홈 환경에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기인되며, 선정된 종속변인(목표행동)인 요리기술의 수행 특성상 다른 직종의 직무기술에 비하여 공간적인 제한에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역시 기인된다. 이러한 이점을 활용하여, 본 연구는 앞서 <표 7>의 중재프로그램 절차에서 살펴봤던 ‘2. 음식재료·도구 점검’과 ‘3. 요리기술 행동시연’을 구성한 이후 자폐성장장애인의 요리기술 습득에 대해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었다. 여기서 ‘2. 음식재료·도구 점검’의 절차는 자폐성장장애인이 어머니 모델링 자료를 통하여 요리기술의 구체적인 수행을 준비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인지해야 할 기초내용을 촉진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또한, 자폐성장장애인은 요리기술의 행동시연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기에 앞서 음식재료·도구 점검의 과정에서 요리기술의 수행 장면에 대한 시청을 자연히 상호 병행하게 됨으로써, 그룹홈 내 주방에서 역시 어머니 모델링 자료에 포함된 식당사업체 내 주방에서의 요리기술 수행을 전이할 수 있다는 점을 교수자의 반응촉진과 함께 명확히 인식하고 학습동기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이는 본 연구가 자폐성장장애인의 창업직무 습득을 위한 가상현실 체험형 훈련을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첫 번째로 고려되어야 할 절차를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만약, 본 연구가 ‘2. 음식재료·도구 점검’과 같은 절차를 첫 번째로 고려하지 않았다면, 이후 절차로 적용된 ‘3. 요리기술 행동시연’이 효과적으로 자폐성장장애인에게 활용될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3. 요리기술 행동시연’의 절차는 자폐성장장애인이 그룹홈 장면에서 가상현실 체험의 맥락에 의해 적용될 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조건을 갖지만, 사전에 2번의 절차가 고려되지 않았거나 3번의 절차 가운데 흡수되어 부분적이고 간략히 실시되었다면 중재 절차에서 3번 절차 자체에 대한 시간적인 부담이나 그룹홈 내 가상현실 체험형 훈련의 효율성과 체계성을 타당하게 확보하는 데 한계가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강혜경, 2012; 김건희 외, 2011; 방명애, 2000; Mercer et al., 2007; Prater, 2007). 대개 그룹홈 등과 같은 가상현실에서 자폐성장장애인이 창업직무훈련을 수행할 경우 행동시연은 흥미나 역할연기 위주로 전개되는 경향이 많은데(이소현 외, 2014; Heward, 2006), 본 연구의 중재 절차에서 2번은 3번이 이런 제한적인 상황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하였다. 후속적으로, 창업을 계획·준비하는 자폐성장장애인이 그룹홈과 실제 창업 관련 사업체간의 일반화 효과를 높이는 가운데 그룹홈에서 가상현실 체험형의 맥락으로 창업직무훈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중재 절차가 다양하게 구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는 적용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의 중재 절차가 ‘어머니 모델링’에 주요한 기반을 둬으로써 자폐성장장애인에게 타인모방을 강조하게 되는 경향을 최소

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폐성장장애인이 앞서 본 <표 7>의 중재프로그램 절차에서 3번 절차 이후 ‘4. 수행기록일지 작성’과 ‘5. 어머니 피드백’의 절차를 통해 자기모델링을 충실히 전개하도록 촉진하였다. 여기서 ‘4. 수행기록일지 작성’은 자폐성장장애인이 요리기술 수행에 대한 매 평가 회기마다 보인 결과를 스스로 자기점검(self-monitoring)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일환이며, 자폐성장장애인이 향후 창업을 위하여 현재 습득하고 있는 요리기술을 보다 자기 주도적으로 조절하도록 촉진하는 데 비중을 두어 실시되었다(김영준, 2015; 배새하, 김은경, 2015; 한순미, 2004; Westling & Fox, 2009). 본 연구에서 자폐성장장애인은 향후 부모와 공동으로 식당 창업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요리기술을 습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습득한 요리기술의 유지와 일반화가 중요하게 요구된다. 이를 놓고, 본 연구의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의 중재 절차가 시작과 마무리의 차원에서 타인모방의 체제로만 구성된다면, 자폐성장장애인은 자기점검·모델링의 중재 절차를 병행할 때에 비해 요리기술의 수행 효과를 자기 주도적인 차원으로 유지하고 일반화하는 데에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김희주, 2015; 송소현, 유애란, 2011; 이소현, 1999; Cronin et al., 2007). 또한, 본 연구의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에서 ‘4. 수행기록일지 작성’의 절차는 자폐성장장애인이 창업직무인 요리기술의 수행에 대한 진전도를 파악하는 가운데 개별적인 장·단점이나 보완요소를 명확하게 인지하도록 촉구하는 데 의의가 있었다. 이와 관련해, 본 연구가 4번의 절차를 창업 준비 중인 자폐성장장애인을 위한 직무 관련 포트폴리오로 관리하는 실제로 직접 제시하진 못했으나, 위의 접근방법을 간접적으로 조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4번의 절차는 중재의 범주를 넘어 향후 자폐성장장애인이 창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역량의 유지와 발달을 위하여 연계적으로 참조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이다(조인수 외, 2013; Miller, Lombard, & Corbey, 2007). 이를 중요시하는 관점에서, 본 연구는 4번 절차에 더하여 ‘5. 어머니 피드백’ 절차를 상호 병행하여 적용하였다. 5번 절차는 자폐성장장애인이 4번 절차를 수행하는 데 있어 요리기술 수행에 대한 정반응과 오반응의 여부를 보다 명확하게 인지하고 어머니의 조언과 정서적인 격려를 통하여 내면적으로 학습동기를 증진시키도록 촉진하기 위해서 구안되었다. 덧붙여, 자녀인 자폐성장장애인과 함께 공동창업을 계획·준비하고 있는 어머니의 입장에서조차폐성장장애인의 창업직무 습득에 대한 진행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창업 이행에 대한 가능성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표면적으로 자폐성장장애인의 중재 절차에서 타인모방과 자기모방을 상호 병행하고자 4

번과 5번을 구안하였지만, 본질적으로는 자폐성장장애인과 어머니가 향후 창업 이행에 대한 동기와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조망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4번과 5번의 절차를 구안하였다. 후속적으로, 창업을 계획·준비하고 있는 자폐성장장애인이 타인모방을 통해 창업직무를 습득하는 가운데 자기점검에 의해서 창업직무 습득의 진전도를 파악하고 실제 창업 이행의 가능성을 조망할 수 있는 사정 절차와 방법이 중재프로그램 및 연구 결과의 연계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종속변인(목표행동)으로 다루어진 요리기술은 그룹홈에 거주하는 자폐성장장애인에게 창업 부분의 직업생활 측면에서 뿐 아니라 일상생활적인 주거기능까지도 포함하는 통합적응기술로써 가치가 크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요리기술은 자폐성장장애인의 식당 창업을 위해 적용되었으나, 일반적으로 그룹홈 내에서 자유롭고 수월히 적용될 수 있는 자립생활훈련의 학습내용에 해당한다(김영준, 도명애, 2015; 박안순, 2014; Kristy et al., 2008). 이는 자폐성장장애인의 일상적인 주거기능에 많은 비중을 두는 그룹홈의 환경이 시설이나 교육과정을 별도로 재구성하여 창업 등과 같은 직무기능을 자폐성장장애인에게 지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켜 준다(김영대, 2001; 김영준, 2016; 유정현, 2009). 다시 말해, 자폐성장장애인을 위해 그룹홈에서 평소 실행되는 자립생활훈련 속에 창업직무훈련 등과 같은 직업생활의 관점이 자연스럽게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폐성장장애인을 위한 그룹홈 환경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가치 범위를 크게 확장시킬 수 있는 측면을 시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를 기점으로 하여 그룹홈 환경 및 교육과정의 차원이 자폐성장장애인과 부모의 공동창업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교육적 공간으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후속적으로, 그룹홈 환경이 가정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자폐성장장애인의 자립생활훈련과 창업 등의 직업교육훈련을 상호 연계시킬 수 있는 행동기술(예: 요리기술 등)의 목록이 활발히 개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그룹홈 환경과 자폐성장장애인의 창업직무훈련 간의 기능적 관계를 이론적으로 고찰하는 기초연구 역시 전개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세 명의 자폐성장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특수교육학 분야 전체에 대해 보편화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후속적으로, 집단실험연구를 통해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장애인의 창업직무훈련에 대

한 효과성을 검증하는 노력 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부모와 함께 공동으로 식당 창업을 계획·준비하고 있는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업직무기술 습득 차원에서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으나, 이를 넘어서 본 연구에 참여한 자폐성장애인과 부모가 습득한 창업직무기술을 실제로 창업 이행에 대하여 어떻게 활용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시사하거나 밝히지 못한 제한점이 있다. 이는 본 연구가 자폐성장애인의 창업직무 습득 효과에 초점을 둔 사례연구이기 때문에 가지는 제한점이라고 본다. 본 연구가 공동으로 식당 창업을 준비 중에 있는 자폐성장애인과 부모를 대상으로 창업직무 습득 이후에 향후의 창업 이행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포함하였다면, 이런 제한점은 최소화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관련 후속연구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적용된 종속변인인 요리기술과 관련된 자기관리기술 내지 직업기초기술 차원에서 제한점을 가진다. 즉, 본 연구에서 자폐성장애인이 습득한 요리기술은 과제분석에 포함된 각 단계별 내용의 수행 뿐 아니라, 별도로 청결관리, 안전관리, 도구관리, 시간관리 등의 자기관리기술(직업기초기술)의 수행이 요리기술의 과제분석에 대한 각 단계별 수행의 전·후로 하여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청결관리, 안전관리 등의 자기관리기술은 요리기술 등과 같은 전문화된 창업직무기술과 동등한 범주로 견주어져야 할 창업기초적응기술에 해당된다(박정기, 박봉규, 2013; 박준엽, 2004). 만약, 본 연구에서 이런 창업기초적응기술이 연구 방법상의 종속변인에 포함되었다면, 자폐성장애인의 요리기술 습득과 유지에 대한 수행 효과를 보다 타당하게 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후속적으로, 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창업직무훈련프로그램 사례연구에서 직무기술과 기초적응기술을 통합 적용하는 절차와 방법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실험 설계에 따른 실험 조건 중 일반화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제한점이 있을 수 있다. 단, 본 연구는 중재 환경을 그룹홈 내 주방으로 구성하면서 평가 환경을 식당사업체 내 주방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일반화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으나, 좀 더 세부적으로 장소나 도구 등을 변경하여 일반화를 실시하였다면 연구 결과를 더욱 타당하게 제시할 수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 강지혜, 이영선 (2014). 자폐성장애폰의 스마트 기기 활용에 대한 국외 문헌분석. 자폐성장애폰 연구, 14(2), 93-118.
- 강혜경 (2012). 자폐 청소년 장애학생에 대한 연구동향과 과제 : 최근 10년간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특수교육, 11(3), 127-147.
- 강효영 (2008). 그룹홈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경험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관호 (2013). 장애인기업 지원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장애인기업 인식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경호 (2012). 부모 인식이 발달장애인 자녀의 직업재활에 미치는 영향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나사렛대학교 대학원, 충남.
- 김건희, 조정민, 임미향, 진미영, 심선경 (2011). 자폐장애 학습자의 중재전략 연구의 최근 동향 : 2006년-2010년. 정서·행동장애연구, 27(3), 337-370.
- 김백수 (2007). 고용유지율 측면에서 본 장애인창업지원의 이해와 활성화 방안연구 : 장애인 창업지원 과정의 전달체계와 지도원리에 따른 미래가치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7, 5-48.
- 김백수, 박경순 (2008).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한 실천현장에서의 성공전략연구. 재활복지, 12(3), 251-271.
- 김삼섭, 구인순, 김형완, 박은영, 박희찬, 서종열, 이효성, 임경원, 전보성, 정민호, 황윤의 (2013). 장애인 직업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영대 (2001). 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정신지체인의 직업생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대학원, 강원.
- 김영선 (2015). 예비창업자의 개인적 특성 및 환경특성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서울.
- 김영준, 강영심 (2013a). 그룹홈 거주 자폐성장애폰 성인자녀가 일반가정에서 보이는 어머니와의 부정적 상호작용에 관한 참여관찰.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4), 81-105.
- 김영준, 강영심 (2013b). 스마트폰 어머니 모델링 중재패키지가 지적장애학생의 라면조리기술에 미치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48(3), 89-110.
- 김영준 (2015). 평생학습 측면에서 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학령기 증거기반 전환교육 실제의 활용방안 고찰.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8(1), 137-166.
- 김영준, 도명애 (2015). 노래 및 음식재료판 제작활동을 통한 생활자립훈련이 그룹홈 거주 지

- 적장애인의 요리기술에 미치는 효과. 특수아동교육연구, 17(2), 177-206.
- 김영준 (2016). 그룹홈 및 사업체 연계교수를 통한 직업훈련이 지적장애인의 요양보호 직무기술에 미치는 효과. 교육혁신연구, 26(1), 95-124.
- 김희주 (2015). 다중요소중재를 활용한 직업재활훈련이 지적장애학생의 세차직무기술 수행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부산.
- 김형일 (2013). 전환교육의 이해와 실행. 경기: 교육과학사.
- 나용기 (2014). 직장동료가 판단하는 장애인의 직업적 성공 요인.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대학원, 충남.
- 남민 (2002).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주 자폐장애인 부모의 복지욕구. 자폐성장장애연구, 4(1), 133-144.
- 배새하, 김은경 (2015). 비디오 자기 모델링 중재가 자폐스펙트럼장애 중학생의 설거지 기술 수행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6(1), 135-159.
- 변충규, 성창수 (2012). 장애인 창업자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22(1), 71-87.
- 박병숙 (2008).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을 위한 비디오 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중재 고찰. 특수교육, 7(1), 123-144.
- 박안순 (2014). 국내 요리치료 연구 동향에 관한 연구 : 2000년~2013년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남부대학교 대학원, 전남.
- 박안순, 이봉선, 박계영 (2015). 요리활동 치료 프로그램에 따른 요리활동 동향에 대한 연구 : 2000년 ~ 2015년 학위논문을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29(11), 195-208.
- 박재국, 김진희, 박유정, 서보순, 김은라, 조상구....., 하운영 (2016). 장애학생 졸업 후 사후관리 매뉴얼. 부산: 부산광역시교육청.
- 박지연 (2012). 장애인 가족지원을 위한 증거기반의 실제. 서울: 학지사.
- 박정기, 박봉규 (2013). 소상공인 창업론. 서울: 대진.
- 박춘엽 (2004). 창업학:이론 방법 사례.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 박희찬 (2016).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정책의 변천. 지체·중복건강장애연구, 59(2), 59-81.
- 박혜성, 안의정, 이소현, 이숙향 (2014). 취업한 자폐 범주성 장애인의 직장생활 경험 및 지원 요구 고찰. 자폐성장장애연구, 14(2), 65-92.
- 박혜진 (2013). 자폐 범주성 장애 아동을 위한 모방기술 중재 관련 연구문헌 분석. 자폐성장장애연구, 13(2), 65-86.
- 방명애 (2000). 자폐아동의 인지특성과 교수전략. 정서·학습장애연구, 16(1), 139-157.

- 서경희 (2014). 파워카드 전략과 모델링이 고기능 자폐스펙트럼장애 청소년의 대화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례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30(1), 1-26.
- 신현희, 최연우, 김수진, 김경미 (2014). 성인 지적장애인에 대한 비디오 모델링 훈련이 식사준비에 미치는 영향 : 단일사례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3(2), 375-385.
- 송소현, 유애란 (2011). 정신지체·자폐성장애 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 관련 연구동향 분석 : 1990년~2010년까지 국내 연구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3(2), 221-248.
- 이금진 (2008). 장애인의 창업실패와 창업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 영업장소 전대 창업자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복지학*, 8, 101-129.
- 이소현 (1999). 자폐 장애의 일탈적 특성 고찰을 통한 특수교육적 접근의 방향성 정립 : 사회성 발달 장애를 중심으로. *특수교육학연구*, 34(2), 227-256.
- 이소현, 이숙향, 윤선아, 김지영, 오세립 (2014). 자폐 범주성 장애 학생의 특성 및 교수방법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및 지원 요구. *특수교육학연구*, 49(3), 195-217.
- 이숙향, 송은주, 이소현 (2012). 자폐 범주성 장애 청소년과 성인의 직업교육 및 고용지원을 위한 중재 요소 고찰. *특수교육학연구*, 46(4), 167-193.
- 이은경 (2008). 장애인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경북.
- 이은주, 김영태 (2009). 자폐 범주성 장애아동의 모방능력에 대한 연구문헌 분석. *특수교육*, 8(2), 239-258.
- 이원희 (2010). 장애인의 창업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서울.
- 이재욱, 강수균 (1998). 자폐자에 대한 원조 요구 행동의 형성과 일반화에 관한 연구 : 비디오 변별 훈련의 효과의 검토. *난청과언어장애*, 21(2), 47-57.
- 이재욱 (2006). 자폐성 장애의 일반화를 위한 비디오 모델링에 대한 논의.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7(1), 369-383.
- 이현진 (2006). 비디오 모델링을 통한 최소촉진법이 자폐성 아동의 일상생활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경남.
- 왕미 (2013). 자폐성 장애아동의 교수방법에 대한 한국, 중국 및 영국 특수교사들의 인식 및 사용실태 비교.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전북.
- 유승연 (2012). 모방으로서의 학습.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 유정현 (2009). 장애인 그룹홈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가야대학교 대학원, 경남.
- 윤수용 (2015). 직업재활훈련 중인 발달장애인의 직업 경험에 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경남.
- 조선경 (2009). 생활시설과 그룹홈에 거주하는 장애청소년의 사회성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경남.
- 조성열, 김백수 (2005). 직업재활과정으로서 장애인 창업지원의 필요성과 방향. 직업재활연구, 15(1), 205-228.
- 조인수 (2009). 전환교육계획과정에서의 가족·부모 역할체계 탐색. 지적장애연구, 11(3), 193-211.
- 조인수, 정금자, 도명애 (2013). 독특한 교육적 지원요구를 가진 아동을 위한 생활자립훈련프로그램. 경북: 대구대학교 출판부.
- 조희용 (1999). 동업(공동창업)에 관한 탐색적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서울.
- 정은혜 (2015). 장애인 창업의 마케팅전략을 통한 활성화 방안 연구. 유통과학연구, 13(2), 105-112.
- 정소정 (2016). 비디오 포레모델링이 지적장애학생의 조리기술 수행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부산.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5). 2014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진로정보 (판매 및 개인 서비스 직). 세종: 저자.
- 한동욱, 강민채 (2014). 특수교육 대상 아동들의 사회성 기술 향상을 위한 스마트 콘텐츠 개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2), 504-510.
- 한순미 (2004). 평생학습 사회에서의 자기주도적 학습전략. 경기: 양서원.
- 황복선 (2006). 자폐아동과 어머니의 사회성 기술 증진에 미치는 어머니-매개 사회적 상호훈련방법의 습득 및 일반화 효과. 특수교육학연구, 41(3), 1-27.
- 홍주희, 이숙향 (2016). 국내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 청소년 대상 전환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요소 및 성과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18(1), 145-169.
- Beakley, B. A., Yoder, S. L., & West, L. L. (2003). *Community-based instruction: A guidebook for teachers*. Arlington, VA: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Benitez, D., Lattimore, J., & Wehmeyer, M. L. (2005). Promoting the involvement of student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in career and vocational planning and decision-making: The Self-Determined Career Development Model. *Behavioral Disorders*, 30(4), 431-447.
- Chapper, S. L., & Somersb, B. C. (2010). Employing person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s: A collaborative effort.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32(2), 117-124.
- Cronin, M. E., Patton, J. R., & Wood. S. J. (2007). *Life skills instruction: A practical guide for*

- integrating real-life content into the curriculum at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levels for students with special needs or who are placed at risk* (2nd ed.). Austin, TX: PRO-ED.
- Dahl, K. (1998). Why cooking in the curriculum? *Young Children*, 53(1), 81-83.
- Dunn, R., Honigsfeld, A., Doolan, L. S., Bostrom, L., Russo, K., Schiering, M. S., Suh, B., & Tenedero, H. (2009). Impact of Learning-Style Instructional Strategies on Students' Achievement and Attitudes: Perceptions of Educators in Diverse Institutions. *A Journal of Educational Strategies, Issues and Ideas*, 82(3), 135-140.
- Dymond, S. K. (2004). Community participation. In P. Wehman & J. Kregal (Eds.), *Functional curriculum for elementary, middle, and secondary age students with special needs* (2nd ed.; pp. 259-292). Austin, TX: PRO-ED.
- Greene, C., & Kochhar-Bryant, C. A. (2003). *Pathways to successful transition for youth with disabilities*.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Prentice Hall.
- Heward, W. L. (2006). *Exceptional Children: An Introduction to Special Education*. Pearson International Edition.
- Kristy, R., Paige, H., Dorothy, E., & Christine, B. (2008). Development of a performance assessment of executive function: The Children Kitchen Task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2(5), 528-537.
- Mann, W. (2005). *Smart technology for aging, disability, and independence : the state of the science*. NJ: Wiley-interscience.
- McDonnell, J. M. & Hardman, M. L. (2010). *Secondary and transition programs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London: Sage Publishing.
- Mercer, C. D., Mercer, A. R., & Pullen, P. C. (2011). *Teaching students with learning problems* (8th ed.). NJ: Pearson.
- Miller, R. J., Lombard, R. C., & Corbey, S. A. (2007). *Transition assessment: Planning transition and IEP development for youth with mild to moderate disabilities*. Boston: Allyn and Bacon.
- Prater, M. A. (2007). *Teaching strategies for students with mild to moderate disabilities*. Boston, MA: Allyn and Bacon.
- Sitlington, P. L., Neubert, D. A., Begun, W. H., Lombard, R. C., & Leconte, P. J. (2007). *Assess for success: A practitioner's handbook on transition assessment* (2nd ed.). Thousand Oaks, CA: Corwin Press.
- Sze, S. (2009). Learning Style and The Special Needs Child. *Journal of Instructional Psychology*, 36(4), 360-362.

- Test, D. W., & Mazzotti, V. L. (2011). Transitioning from School to Employment. In M. E. Snell, & F. Brown (Eds.). *Instruction of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7th ed.) (pp. 569-611).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 Wehman, P., Schall, C., Carr, S., Targett, P., West, M., & Cifu, G. (2014). Transition from school to adulthood for youth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What we know and what we need to know. *Journal of Disability Policy Studies*, 25(1) 30-40.
- Westling, D. L., & Fox, L. (2009). *Teaching Students with Severe Disabilities* (4th ed.). Upper Saddle River, NJ: Merrill Prentice Hall.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Job Training Program using Mother Modeling on the Cooking Skills of Individual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Living in Group Homes

Kim Young Jun

(Dongg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job training program on cooking skills of individuals with autism spectrum disorder living in group homes. For this purpose, three individual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have been living in group homes for 5~6 months after graduating majoring course of special school were selected as subjects. The experimental environment was divided into two areas including kitchen in group homes and kitchen at Restaurant workplace. As for the experiment design, the multiple probe design across subjects, one of the single-subject research techniques, was used, and the subsequent experiment conditions consisted of baseline, intervention, and maintenance. Entrepreneurial job training program using mother modeling in group home was used as independent variable to create learning method based on smart-pads videos filming through cooking skills performances of mother in kitchen at Restaurant workplace. Also in the independent variable of this study, practical intervention in the group home were applied monitoring of food materials and tools and behavioral rehearsal with materials and tools used by the subjects in kitchen at group homes. Cooking skills, the target behavior (dependent variable), was operationally defined as cooking of kimchi stew by the subjects and this performance was composed in a total of 10 stages through task analysis.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 subjects were found to effectively acquire cooking skills, the target behavior, through the intervention program. In addition, the subjects effectively maintained the target behavior acquired until 3 weeks after the end of the intervention. Lastly, this study focused its discussion on implications of th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 **Key words** : mother modeling, entrepreneurial job training program, group home, cooking skills, autism spectrum disorder

논문투고일 : 2016. 10. 31

논문심사일 : 2016. 12. 07

게재확정일 : 2016. 12. 14

장애인복지 연구 제7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Vol. 7, No. 2, 109-120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영향

명도복지관 백 삼 현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었다. 연구의 참가자는 전남 M시 M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으로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6명을 사전 동의를 받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10회, 주 5회(회당 40분) HRmax 50-60%의 운동강도로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전·후 스트레스체크기 헬스체커를 이용하여 스트레스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스트레스 지수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대응표본에 대한 비모수 통계방법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적용하여 유의 수준은 .05로 하였다. 본 연구결과 스트레스의 변화는 .05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대상자 6명중 5명이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명은 사전·사후값이 동일하게 나타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스트레스해소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스트레스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신규 사업으로 그 효과성을 구명함으로써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필요성을 부각시킬 수 있었으며, 지적장애인들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특수체육현장에서 신규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지적장애인, 가상현실프로그램, 스트레스

I. 서론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움직임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인식한다. 오늘날 사람들의 보편적 인생관은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여가활동을 찾고자 노력한다. 특수교육 현장에서도 게임을 활용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적으로도 장애학생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위한 게임매체의 체험 기회증대와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는 대회가 유치되고 있으며 게임은 비장애인 학생들과의 접근, 의사소통의 기회 등 장애학생의 사회 통합통로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윤준웅, 2011).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은 닌텐도 Wii를 활용한 게임프로그램으로 공간과 시간에 관계없이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과 가장 가까운 환경을 적용할 수 있어 그 효과를 더욱 극대화 할 수 있다. 또한, 여러 형태의 종목을 개인, 단체별로 참여할 수 있어 참여형태의 폭이 넓은 편이고, 리모컨과 문차크의 조작이 간편하여 장애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게임형태로 집중력을 높이고 흥미를 더 할 수 있어 간접체험 프로그램으로 많은 활용이 용이하다.

강민수, 백삼현(2015)는 12주간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을 통해 지적장애인의 신체적응행동과 신체조성 및 기초체력의 변화에 대한 연구로 그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이처럼 가상현실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현실 세계처럼 보이고 느껴지는 환경을 경험하도록 컴퓨터하드웨어에 의해 만들어진 상호작용적 시뮬레이션으로 실시간 발생하는 몰입적이고, 상호작용적인 3차원의 컴퓨터 경험으로 정의 될 수 있다(Weiss, Rand, Katy & Kizony, 2004 재인용). 이처럼 가상현실 프로그램은 실제 환경과 유사하여 흥미를 극대화 할 수 있으며, 장소구애가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Howard, 1995 재인용).

지적장애인의 특성에는 낮은 동기유발과 쉽게 포기하고 스스로 운동을 하려는 욕구가 부족하여 재미있는 운동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 이들은 평균이하의 지능과 기억력에 결함을 보이며 주의집중시간이 짧고 인내력이 부족하여 운동을 지속하여 운동효과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다(조인수, 2005 재인용). 또한, 지적장애인은 자기관리 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부족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나아가 심한 부적응 문제를 유발 할 수 있다(고영숙, 2003

재인용). 이처럼 의사표현이 부족하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지적장애인들의 스트레스 해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전유진(2015)은 총 10회기 스피닝 운동프로그램을 통하여 20명의 지적장애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험군과 통제군으로 나누어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신체활동을 통한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해소를 입증하였다. 하지만 현재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그 효과성 및 실태, 만족도에 대한 결과를 도출한 도구는 대부분 설문지가 많다. 지적장애의 특성상 지적장애인의 설문작성은 모든 영역에서 완전하다고 볼 수 없다. 이에 지적장애인의 직접적인 연구보다는 지적장애인의 부모, 형제, 특수학교 교사, 복지관 종사자 등 지적장애인과 관계된 집단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 당사자보다 주변인에게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월등히 많은 편이다.

따라서 지적장애 본인들의 현재 스트레스 상태 및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스트레스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여 실질적인 변화의 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앞으로 지적장애인들이 흥미를 가지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그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관련된 연구는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여 지적장애인들의 스트레스 해소프로그램 개발과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표 1〉 일반적 특성

연령(세)	성별	장애등급
28.7±7.15	남 : 4명 여 : 2명	지적장애 1급:3명 2급:1명 3급:2명
총 6명		

본 연구는 전라남도 M시에 위치한 M복지관 이용자 중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지적장애인 6명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신체적 움직임이 원만하고 음악과 춤을 좋아하는 대상으로 그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절차 및 운동 프로그램

본 연구는 2016년 6월 21일부터 7월 4일까지 M복지관 체력단련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를 규명하고자 총 10회(토, 일요일 미실시), 주 5회(월, 화, 수, 목, 금), 회당 40분으로 준비운동 5분, 본 운동 30분, 마무리운동 5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본 운동의 운동강도는 대상자 6명의 평균심박수와 나이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HRmax 약 50% - 60%의 운동강도를 설정하였으며 무선심박계는 Polar F4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운동강도 산출법(최대심박수-나이-안정시심박수×운동강도+안정시심박수)이며, 본 연구의 프로그램 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가상현실 댄스세부프로그램

운동종목	운동내용	운동빈도	운동시간	운동강도
준비운동	스트레칭		5분	
본운동	비스트 : 아름다운 밤이야(3분 47초) J = 120 티아라 : Roly Poly(3분 31초) J = 130 휴식 약 4분 카라 : 미스터(3분 13초) J = 130 싸이 : 강남스타일(4분 12초) J = 132 휴식 약 4분 카라 : 미스터(3분 13초) J = 130 싸이 : 강남스타일(4분 12초) J = 132 〈전체평균〉 J = 129BPM	주 5회	30분	HRmax 50% - 60%
마무리운동	스트레칭		5분	

- 빠르기 환산: J = 100은 100BPM(분당 100회)

3. 측정도구 및 방법

스트레스체크기는 (주)트라이스의 헬스체크를 이용하여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측정 전 약 3-4분정도 안정을 취한 상태에서 측정자는 오른쪽 검지를 헬스체크 광센서에 위치한 다음 개인신상정보(성별, 나이)를 입력한 후 스트레스를 체크한다. 체크시간은 약 1분 정도 소요되며 측정 시 검지를 움직이면 측정오류가 발생되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 다음 측정해야 한다. 스트레스체크기는 혈액이 심장의 수축에 의해 대동맥 기시부에 밀려나왔을 때 발생한 혈관내의 압력변화가 말초방향으로 전해져 갈 때 1분간당 분광측정의 원리를 이용하여 두 개 고유파장이 빛의 농도가 다른 물질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흡광도 차이를 이용하는 침단 측정 장비이다.

4. 자료처리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자료는 사전·사후를 측정하여 기술통계를 구하였으며, 총 10회기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 사전·사후 스트레스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1.0을 이용하였다. 사례수가 작고, 관측값의 정규분포성이 가정되지 않아 비모수 통계방법인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05로 하였다.

Ⅲ. 연구결과

연구대상자는 총 6명이며, 총 10회기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을 적용한 스트레스의 사전·사후값을 측정하였다. 사전·사후값에 대한 기술통계는 아래 <표 3>과 같다. 개입 후 평균값을 살펴볼 때, 평균값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후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전·사후값의 차이에 대한 순위 및 부호를 부여한 결과,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양의 부호(+)가 할당되었다.

<표 3> 기술통계 및 개인별 변화도 부호순위

	인원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사전검사	6	8.38	1.47	6.4	10.5
사후검사	6	6.98	.54	6.4	7.6

대상자	사전	사후	편차	순위	부호순위
1	8.8	7.6	1.2	2.5	+2.5
2	8.8	7	1.8	4	+4
3	7	6.4	0.6	1	+1
4	8.8	7.6	1.2	2.5	+2.5
5	10.5	6.9	3.6	5	+5
6	6.4	6.4	0	n/a(0)	+

부호가 할당된 순위의 합은 15이며<표 4>, 이에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결과 .0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z=-2.032$, $p=.042$). 즉‘중위값 차이는 0이다’라는 영가설을 기각하게 되므로, 사전값과 사후값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개인별 스트레스의 변화

	n	평균순위	순위합	z(사전-사후)	근사유의확률
양의 순위	5	3	15	2.032*	.042
음의 순위	0	0	0		
동률	1				
합계	6				

* $p<.05$ (양의 순위 기준)

IV. 논의

본 연구는 10회기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데 있었다. 지적장애인 6명을 대상으로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05수준에서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명중 5명이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논의한다.

전유진(2015)는 지적장애 중고생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에 10회기 스피닝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설문지를 이용한 결과는 실험집단의 중고생들은 부모, 친구, 학업, 교사와 학교,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선(2013)은 특수학교 방과 후 수업학생 15명과 수업을 참여하지 않는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12주간(주 4회)난타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설문지를 이용하여 부모요인, 친구요인, 학업요인, 교사 및 학교요인 총 4가지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의 변화를 확인한 결과 실험집단에서 4가지 요인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지선(2011), 이미영(2014), 김윤미(2015) 등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반면, 노수진(2011), 송명주(2015), 송현종(2013), 김무형(2011), 그 외 다수는 지적장애인의 부모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영미(2014), 김현기(2013), 남시권(2010) 등은 시설종사자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외 특수학교교사, 지적장애의 형제자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비교적 많은 편이다. 왜 지적장애 당사자에 대한 연구는 못하고 있는 것일까, 위에 연구들은 모두 설문지나 인터뷰를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인지가 부족하고 의사표현이 불명확하며 순간순간의 심리적 변화가 심한 지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부적합한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며 그에 대한 답변도 신뢰하기란 참 어려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첨단장비를 이용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프로그램 전·후의 변화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며, 보호자와 당사자의 인터뷰를 병행한다면 스트레스의 발생요인 또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측정도구의 변화만으로 지적장애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그 효과성을 입증하는데 수월해질 것으로 본다. 앞으로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전남 M시 M복지관을 이용하는 지적장애인으로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희망한 6명을 사전 동의를 받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총 10회, 주 5회(회당 40분) HRmax 50-60%의 운동강도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전·후 스트레스체크기 헬스체커를 이용하여 스트레스의 변화를 확인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10회기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으로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는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둘째, 10회기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에 참가한 지적장애인의 개인적인 변화는 6명 중 5명이 스트레스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1명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이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규명하였다. 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해소에 대한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해소에 접근은 그리 쉽지 않았다. 또한, 스트레스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더욱더 묵인 되었던 것이다. 스트레스측정을 첨단장비를 이용하여 스트레스 발생 원인을 확인하고, 스트레스해소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지적장애인이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연구를 통해 신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민수, 백삼현 (2015). 가상현실 댄스프로그램이 지적장애청소년의 신체적응행동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제26집 1호
- 고영숙 (2003). 통합교육 환경에서의 정도 정신지체 학생의 스트레스.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무형 (2011). 성인 지적장애인의 일상생활능력과 거주형태가 부모의 부양부담에 미치는 영향.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미 (2015). 음악과 점진적 근육이완기법 적용에 따른 직업재활과정 성인지적장애인의 스트레스 반응효과.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기 (2013).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시권 (2010).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재활교사의 직무스트레스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수진 (2011). 성인 지적 장애인 부모의 부양스트레스와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경원대학교 대한원 석사학위논문.
- 송명주 (2015). 전환기 지적장애학생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방식.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현중 (2013). 지적장애자녀를 둔 부모의 자아분화 수준과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양지선 (2011). 통합교육을 받는 지적장애 중학생의 학교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음악놀이활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준웅 (2011). 체감형 비디오 게임을 이용한 신체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운동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영 (2014). 정도 지적장애 청소년의 성 스트레스에 대한 질적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미 (2014). 지적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파트너십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유진 (2015). 스피닝 운동프로그램이 지적장애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대학교 교육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조인수 (2005). 정신지체아교육. 대구:대구대학교 출판부.
- 허선 (2013). 난타북을 이용한 난타활동이 지적장애 학생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Howard, R. (1995). Assessing learning in VR: Towards developing a paradigm. Virtual Reality Roving Vehicles(VRRV) Project. *Report: ED392826*. 27. 재인용.
- Weiss, P. L., Rand, D., Katy, N., & Kizony, R. (2004). Video capture virtual reality as a flexible and effective rehabilitation tool. *Journal of Neuro Engineering and Rehabilitation*, 1(12), 1-12.

The effect of virtual reality dancing program on the stres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ack Sam Hyun

Myongdo Welfar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virtual reality dancing program on the stress changes in intellectual disabilities. These six participants are the intellectual disabilities who have used Jeon-nam welfare M and voluntarily wish to participate in the virtual reality dancing program. For 2 weeks(total tenth) 5 times a week, Virtual reality dancing program was conducted wherein HRmax's 50-60% intensity and was confirmed using the program before&after stress checker health keoker. Stress level were determined using SPSS 12.0, method of analy-sation was applied Wilcoxon Signed Rank Test, which is nonparametric statistics for matching sample and significant level was set to .05. Results showed a significant change of stress in the .05, subjects of 5/6 Showed positive change in the stress and one is no change.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is positive change on virtual reality dancing program in the stress of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hus, We ought to recognize the need for stress relief program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and develop and help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to live a happy life free from stress.

■ **Key words** :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virtual reality program, stress

논문투고일 : 2016. 10. 31

논문심사일 : 2016. 12. 07

게재확정일 : 2016. 12. 14

원고투고요령

1. 원고투고요령

「장애인복지연구」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사람은 장애관련 주제에 대해 25페이지 이내로 논문을 작성하여 마감일까지 제출한다. 논문 투고 시 원고 및 투고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자메일로 제출한다. 이 때 투고신청서와 원고작성요령은 본원 홈페이지(www.koddi.or.kr /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원고와 함께 송부한다.

2. 학술지 발간 횟수 및 발간일

학술지 발간 횟수는 연 2회로 하며, 매월 6월 30일, 12월 31일에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원고 투고 시기

학술지의 원고는 상시 투고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접수는 항시 한다. 제출된 논문은 「장애인복지연구」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제출처

(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개발연구부 학술지 담당자
(150-917)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5층
e-mail : k16590@koddi.or.kr/ky2016@koddi.or.kr

〈편집위원〉

김정희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실장)
권순용 (제주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경미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미옥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용득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진열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신현욱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우주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이선우 (인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한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 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기획·편집〉

임수경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기획팀 연구원)
김태용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구기획팀 연구원)

「장애인복지 연구」 제7권 제2호
Disability & Social Welfare

발 행 일 : 2016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13 이룸센터 5층
발 행 인 : 황화성
대표전화 : 02-3433-0600
팩 스 : 02-416-9567
홈페이지 : www.koddi.or.kr
인 쇄 처 : (사)다움복지회
